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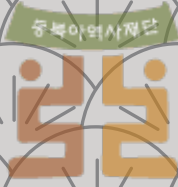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한일 고지도 속에 나타난
독도와 동해 표기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1. 서론

독도 영유권 강화 및 동해 표기 정당성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사료 가운데 고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지도는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제삼자(주로 서양인)가 독도 및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리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사료가 만들어진 당시의 지리 정보를 전해 주는 것에는 각종 지리서나 탐험기도 있지만, 고지도가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위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독도와 관련한 새로운 고지도가 발굴될 때마다 언론 및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고지도와 일본 고지도 중 독도 영유권 강화 및 동해 표기 정당성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도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조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도의 경우 한국 고지도에 대해서는 이찬(1979), 양보경(2005), 오상학(2006), 김기혁·오상학·이기봉(2007), 이상태(2007, 2009, 2011a, 2014), 김호동(2013), 이상균(2019), 이기봉(2020)의 연구가 있고, 일본 고지도에 대해서는 김문길(2001), 호사카 유지(2005a, 2005b, 2005c), 이상태(2013), 남영우(2014), 우리문화가꾸기회(2015), 이상균(2015)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한국 고지도에 대해서는 양보경(2004), 일본 고지도에 대해서는 심정보(2013, 201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2. 한국 고지도 속 독도

한국 고지도 가운데 독도인 우산도가 나타나는 지도에는 전국 지도류, 도별 지도류, 군현 지도류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전국 지도류와 도별 지도류 중 대표적인 지도를 살펴보고, 이후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도로 기재된 지도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국 지도류와 도별 지도류

독도 관련 지도 가운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에 실린 「팔도총도(八道總圖)」이다. 이 지도가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고지도 중에서 우산도가 기재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이기 때문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동국여지승람』을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며, 두 책 모두 조선 시대에 지리 교과서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일본에서도 조선의 지리를 파악할 때 이 책자들을 주로 참조하였다.¹

정상기(鄭尙驥)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18세기 중엽)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가 제대로 표현된 최초의 지도이다. 이 지도는 정상기가 그린 후 그의 후손 정항령(鄭恒齡)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본 영조

1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20,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22쪽.



그림 1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팔도총도」(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 「동국대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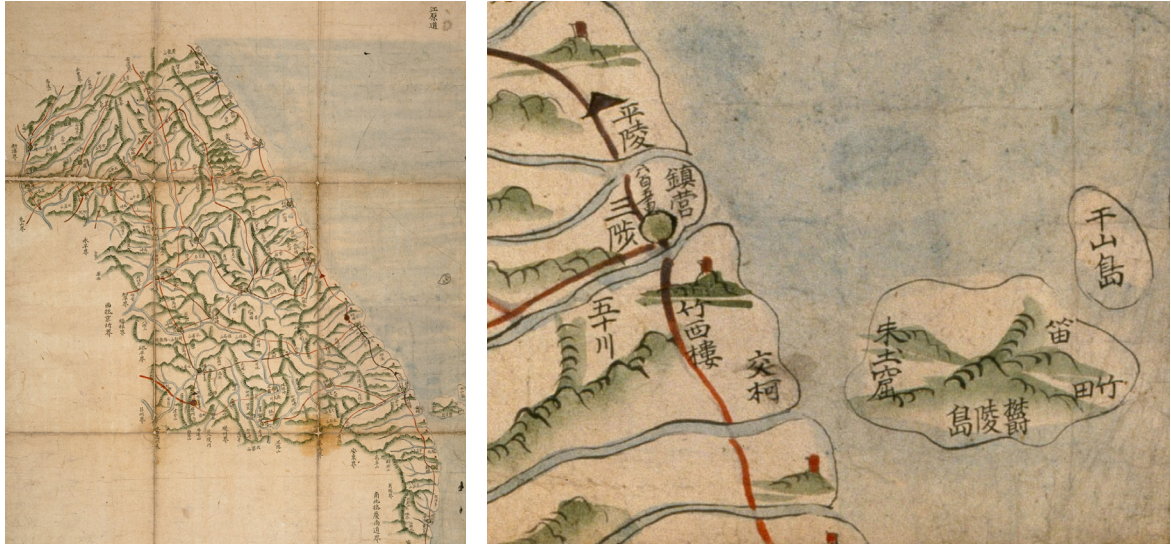


그림 3 『팔도지도』 내 「강원도」 지도에 기재된 울릉도와 우산도(18세기 후반)(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 모사하도록 한 지도이다.² 백리척(百里尺)이라는 축척을 고안하여 기존의 한반도 지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한반도의 형태를 실제와 유사하게 그린 조선 최초의 지도이다. 그리하여 정상기는 조선 후기 지도 발달사에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이 지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작된 대부분의 지도에서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그려졌다. 이러한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 변화는 안용복(安龍福)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울릉도 쟁계’를 통해 바로잡힌 결과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의 소속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난 후 조선 조정에서는 1694년에 삼척영장(三陟營將) 장한상(張漢相)을 수토관(搜討官)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장한상은 울릉도의 성인봉에 올라 동남쪽 바다에 있는 섬을 본 후 기록하였다. 아울러 안용복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도해 과정에서 직접 독도를 목격하고, 독도에서 일본인들을 쫓아낸 경험을 조선 관리들에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 정부는 우산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 결과 우산도는 제자리에 그려질 수 있었다.³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동국대지도」를 모사한 지도들은 주로 도별도(道別圖) 형태로 분리 작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국대지도」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정상기의 지도를 활용한 지도류 가운데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기재된 지도가 많았고, 국내외 다수의 도서관에 이러한 지도들이 소장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팔도지도』의 「강원도」 지도에는 강원도에 속한 군현 및 섬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우산도가 함께 나타나 있다. 이 지도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비교적 크고 상세하게 그렸으며, 울릉도에는 산지 표시와 함께 주토굴(朱土窟), 죽전(竹田) 등이 표시되어 있다. 주토굴과 죽전 표시는 조선 정부에서 수토(搜討) 제도를 시행하여 수토사들이 울릉도를 수토한 이후, 염료로 사용되는 붉은 흙과 대나무를 조정에 수토의 증거로 제출한 것과 밀접한

2 관련 내용은 『조선왕조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수찬 홍양한(洪良漢)이 「삼국기지도(三國基址圖)」를 들었는데, 각기 방위색(方位色)으로 그 경계를 표시하였다. 임금이 보고서 말하기를, “삼국의 지형(地形)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분명하다.” 하였다. 홍양한이 말하기를, “정항령의 집에 「동국대지도」가 있는데, 신이 빌려다 본즉 산천과 도로가 섬세하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백리척(百里尺)으로 재어 보니 틀림없이 착착 맞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명해 가져오게 하여 손수 펴 보고 칭찬하기를, “내 70의 나이에 백리척은 처음 보았다.” 하고, 홍문관에 1본(本)을 모사(模寫)해 들이라고 명하였다(『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8월 6일 을축 1번째 기사 “유신과 편차인을 불러 『심감(心鑑)』을 읽히고, 홍양한이 올린 「삼국기지도」를 보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내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3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20,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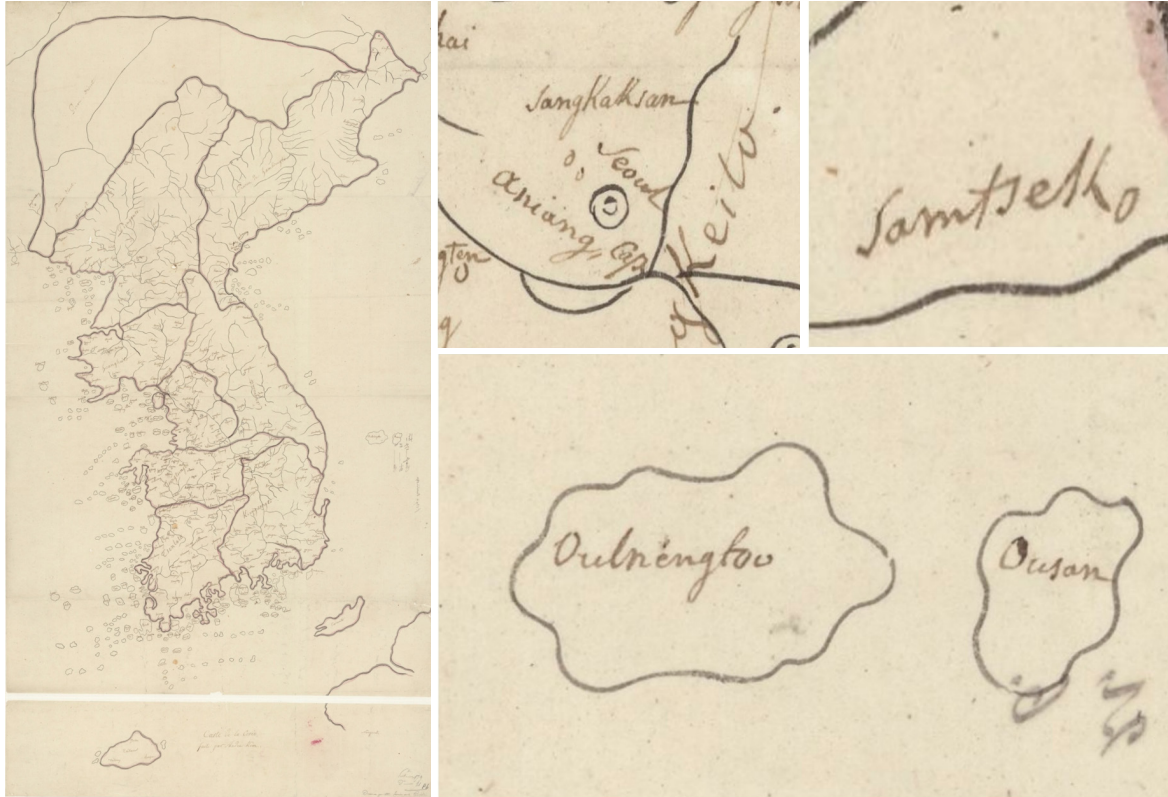


그림 4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속 서울, 삼척, 울릉도, 우산 표기

관련이 있다. 이 점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지도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수토제 운용의 증거로 이해할 수 있다.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金大建) 신부가 작성한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1845년)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를 모사한 중요한 지도이다. 어릴 적 마카오로 건너가 천주교를 배우고 조선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1845년 한성부 서고에 있던 지도를 모사한 「조선전도」를 작성하여 마카오의 파리외방전교회로 보냈다. 그는 프랑스 신부들이 해로를 통해 조선으로 입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조선전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 최초로 조선 각지의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도에는 조선의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각지의 도별 명칭, 군현 명칭, 섬의 명칭 등 총 400여 개의 지명이 기재되어 있다(김종근, 2020a).⁵ 서울을 'Seoul'이라는 로마자로 표기한 지도는 이 지도가 최초이다.

독도인 우산도가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에 기재된 이후 우산도가 표기된 지도가 조선을 넘어 유럽에까지 전파되었다. 대표적으로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사본 지도 2매와 1860년에 제작된 「라틴어본 조선전도」, 미국 해군 장교 펠란(J. R. Phelan)이 1868년에 작성한 「조선전도」, 1855년 『파리지리학회지』에 소개된 「조선전도」, 달레(C. C. Dallet)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1874년)에 실린 「조선지도」, 리델(F.C. Ridet) 주교의 『한불자전(韓佛字典)』(1880년) 내 「조선지도」에도 우산도가 기재되었다(김종근, 2020b).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목판본 지도인 「해좌전도(海左全圖)」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에 묘사된 한반도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해좌전도」는 국내외 다수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4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20,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66쪽.

5 김종근, 2020,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권 1호, 133~162쪽.



그림5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 전래 이후 서양 지도에 표기된 울릉도와 우산도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목판으로 대량 생산된 「해좌전도」가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도는 동시대의 필사본 지도에 비해 수준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산과 산줄기, 하천, 섬 등의 자연 지형과 수도, 군현, 역원, 병영, 진보(鎭堡), 도로망 등 인문 지리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 주변에 우리나라의 간략한 역사 및 역대 왕조의 행정구역 정보와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속리산, 지리산 등 총 20개의 주요 명산 및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 덕적도 등의 섬에 대한 정보, 주요 사찰 및 관동팔경(關東八景) 등에 대한 정보도 기재되어 있다. 그중 울릉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는 본래 우산국이다. 지세가 험해 복속되지 않아 신라는 이사부를 보내 그곳을 쳐 항복하게 하였다. 중봉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1만여 보, 서쪽 바다까지 1만 3천여 보, 남쪽 바다까지 1만 5천여 보, 북쪽 바다까지 8천여 보에 이른다. 촌락으로 삼을 만한 터가 7개소 있으나 암석이 많아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다. 본조 세종 22년 만호 남호를 보내 서부 김환 등 70여 인을 사로잡아 돌아오니 그 땅이 마침내 비게 되었다.⁶

이처럼 「해좌전도」에는 울릉도와 관련한 역사적, 지리적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울릉도를 중요한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표시된 점은 우산도가 울릉도의 부속 도서인 동시에 울릉도와 함께 우리의 중요한 영토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⁷

6 지도상에 기재된 원문은 다음과 같다. “鬱陵島本于山國 特險不服新羅遣異斯夫擊降之 自中峯 東至海一萬餘步 西至一萬三千餘步 南至海一萬五千餘步 北至八千餘步 有村基址七所然多岩石民不居 本朝 世宗二十二年遣萬戶南顯往搜捕盡浮金丸等七十余人而還其地遂空.”

7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20,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74~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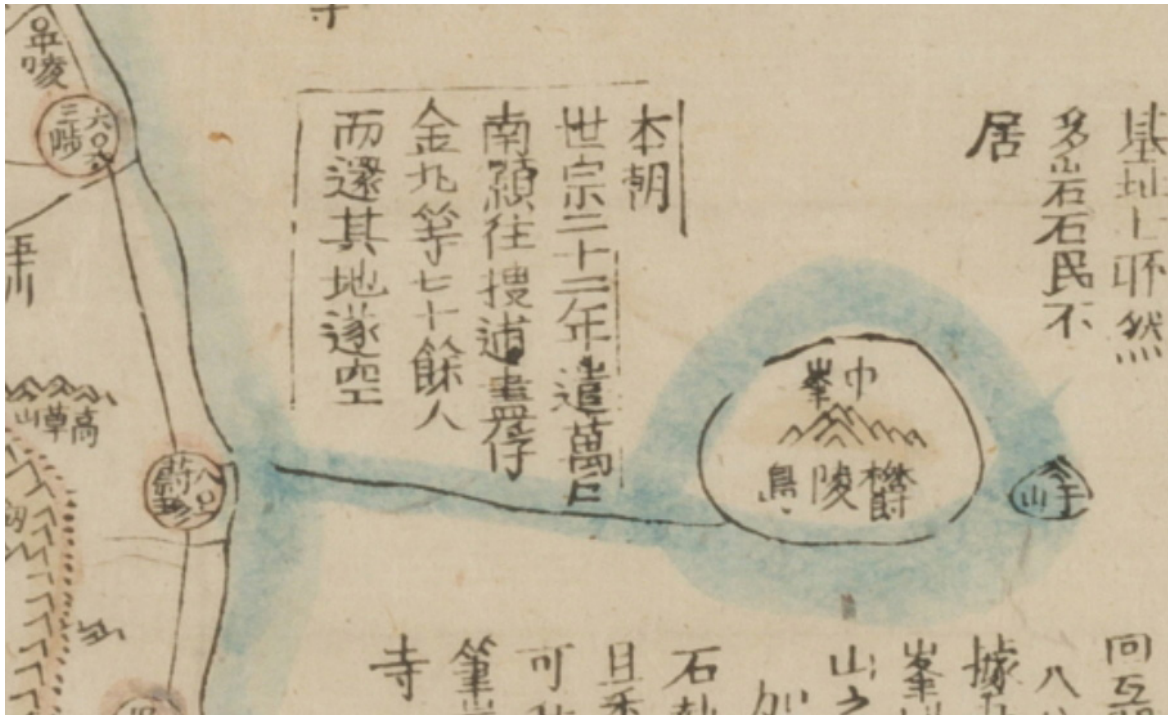


그림 6 「해좌전도」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2) 울릉도와 우산도 상세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상세하게 기재된 대축척 지도에는 군현지도책 지도, 전국지도첩(책) 지도, 대축척 단독 지도, 지리서 내 지도 등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울릉도와 우산도가 상세하게 기재된 고지도는 총 24매이며 자세한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울릉도 고지도 목록

유형 1	유형 2	지도책 및 지도명	제작 시기	소장처	비고
군현지도책	회화식	해동지도	18세기 중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여지도	18세기 중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지승	19세기 초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광여도	19세기 초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여지도	18세기 초반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회화식	팔도여지도	18세기 중반	국립중앙도서관	필자 추가
군현지도책	방안식	조선지도	18세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지도	18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팔도지도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해동여지도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지도	18세기	고려대학교 도서관	김기혁(2006)
군현지도책	방안식	강역전도	18세기 후반	일본 동양문고	필자 추가
군현지도책	방안식	팔도군현지도	19세기	영국 국립도서관	필자 추가
대축척 전국 지도	회화식	청구도	183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대축척 전국 지도	회화식	동여도	19세기 중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대축척 전국 지도	목판	대동여지도	1861년/1864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외 다수	김기혁(2006)
대축척 전국 지도	회화식	대동여지도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연구원	필자 추가
대축척 단독 지도	회화식	울릉도도형 (박석창)	1711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대축척 단독 지도	회화식	울릉도내도 (이규원)	188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대축척 단독 지도	회화식	울릉도외도 (이규원)	188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기혁(2006)
대축척 단독 지도	회화식	울릉도도형 (미상)	미상	국립중앙도서관	김기혁(2006)
대축척 단독 지도	회화식	울릉도도형 (미상)	미상	삼척박물관	필자 추가
대축척 단독 지도	회화식	울릉도도	미상	천안박물관	필자 추가
지리서 내 지도	회화식	동여도지	1830년대	영국 국립도서관	필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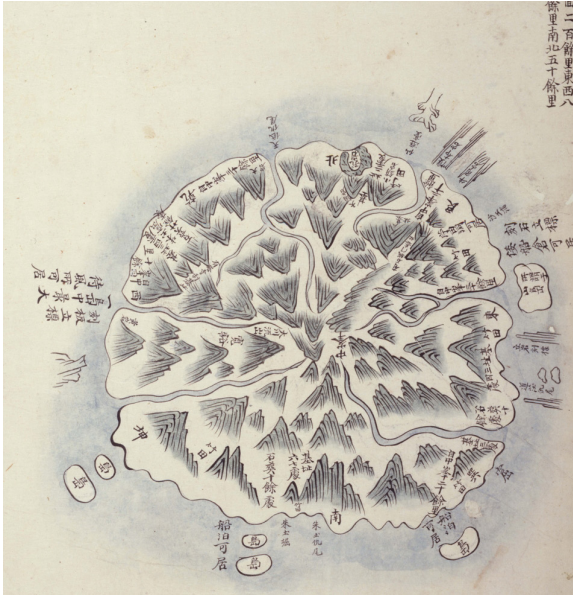


그림 7 『해동지도』 속 울릉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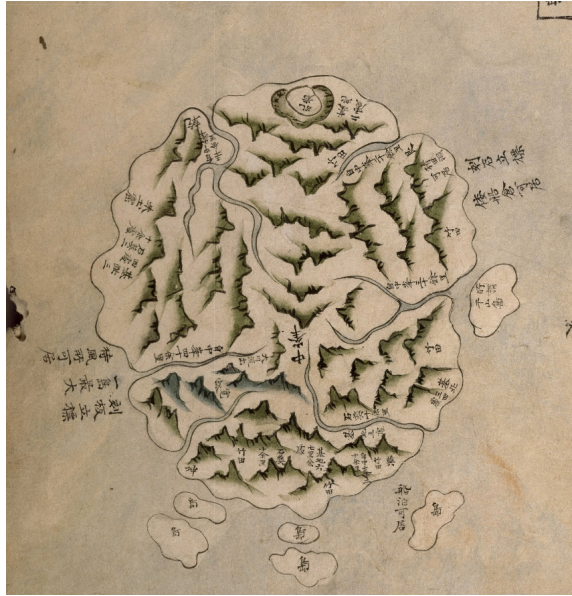


그림 8 『여지도』 속 울릉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9 『지승』 속 울릉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0 『광여도』 속 울릉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1 『여지도』 속 울릉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12 『팔도여지도』 속 울릉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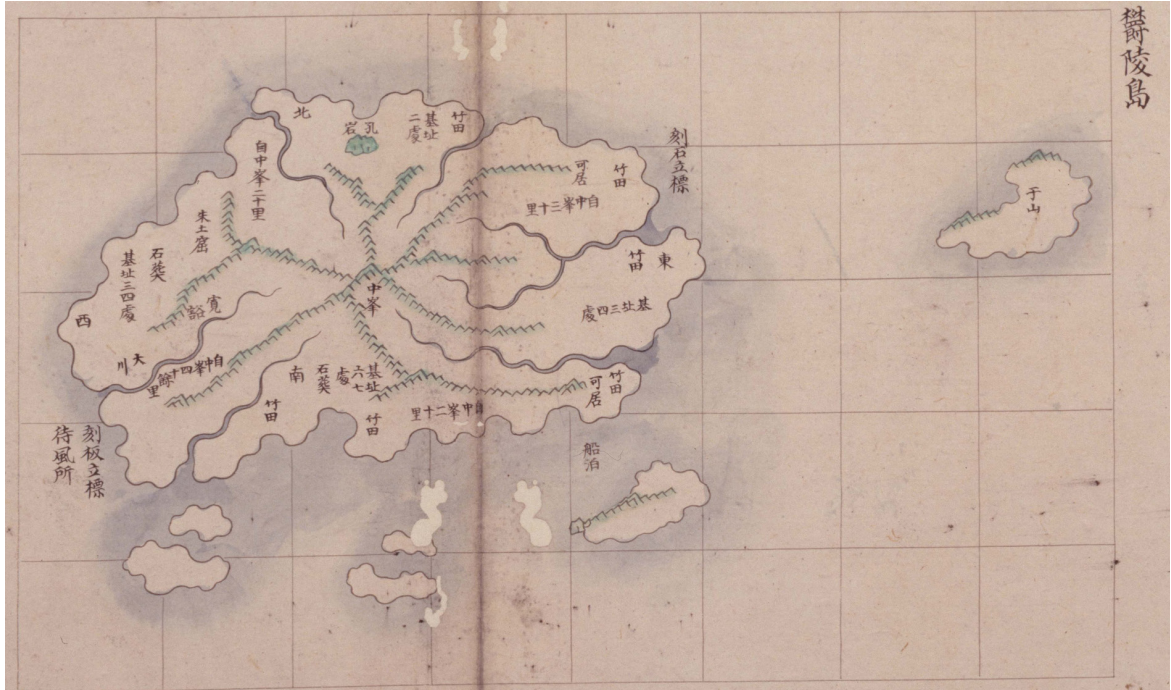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4 『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1) 군현지도책 회화식 지도

군현지도책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작성되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나타난 군현 지도는 크게 회화식(繪畫式)과 방안식(方眼式)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화식 지도는 6매, 방안식 지도는 7매의 지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회화식 지도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여지도(輿地圖)』, 『지승(地乘)』, 『광여도(廣輿圖)』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여지도(輿地圖)』, 『팔도여지도(八道輿地圖)』 내에 존재하는 6매의 지도가 확인된다.

6매의 지도에 묘사된 울릉도는 감자 형태의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 '소위 우산도(所謂于



그림 15 『팔도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山島)'가 있고, 남쪽에 5개의 섬이 존재한다.⁸ 울릉도 한가운데에는 성인봉인 중봉(中峯)이 표시되어 있고, 사방으로 산들이 뻗뻗하게 그려져 있다. 아울러 산지 사이로 5개의 하천이 흐르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나, 명칭은 존재하지 않고 큰 하천[大川]이라는 표시만 있다. 섬의 북쪽에는 공암(孔岩)이 해안선 안쪽에 그려져 있다. 마을 명칭으로는 동북쪽에 저전동(楮田洞)이 표기되었고, 이 외에 섬 서쪽의 대풍소(待風所), 동쪽의 왜선창(倭船倉) 등에는 거주 가능[可居]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집터[基址 혹은 基地]는 다섯 군데 표시되어 있고, 돌무지무덤도 석장이라는 명칭으로 남쪽과 서쪽에 표시되어 있다.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곳을 의미하는 죽전(竹田)은 섬의 해안선 인근에 여섯 군데 표시되어 있다. 수토사의 방문과 관련한 정보로 각석입표(刻石立標)와 각판입표(刻板立標) 등이 지도의 오른쪽과 왼쪽에 쓰여 있다. 수토사가 울릉도를 수토한 증거로 제시한 붉은 흙이 나오는 주토굴(朱土窟)은 섬의 서쪽에 기재되어 있다. 총 6매의 지도 가운데 『해동지도』에 실린 울릉도 지도에는 다른 5매의 지도와 달리 더 많은 지리 정보가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북쪽 해안에는 선유대(仙遊臺), 우각암(牛角岩), 쌍포암(雙布岩) 등이 그림과 함께 기재되어 있고, 도장구미(道莊仇尾), 주토구미(朱土仇尾), 석성문기지(石城門基址), 탑사찰기지(塔寺刹基址) 등도 다른 지도들에는 없는 지명이다. 아울러 주토굴이 섬의 서쪽뿐만 아니라 남쪽에도 있다. 이러한 『해동지도』 내 울릉도 지도는 1711년 울릉도를 수토한 박석창(朴錫昌)이 그린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을 참조하여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상학, 2006, 88쪽).

2-2) 군현지도책 방안식 지도

현재까지 확인된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진 방안식 지도는 7매로, 각각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조선지도(朝鮮地圖)』,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지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팔도지도(八道地圖)』와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지도』, 일본 동양 문고에 소장된 『강역전도(疆域全圖)』,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등 7개의 지도책에 실려 있다.

8 '소위 우산도'와 관련해서는 이 섬이 독도인 우산도를 그린 것이라고 판단하는 연구(배우성, 1998; 이상태, 2007)와 죽도를 그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오상학, 2006; 김화경, 2008; 이상태, 2011; 이기봉, 2020)가 있다.



그림 16 『해동여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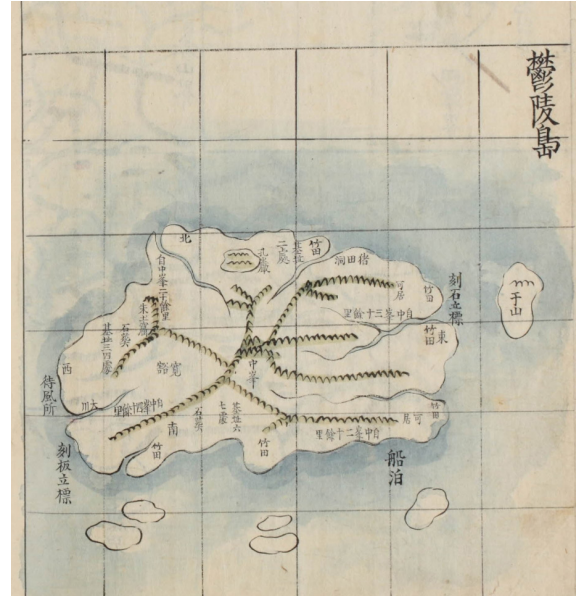


그림 17 『강역전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일본 동양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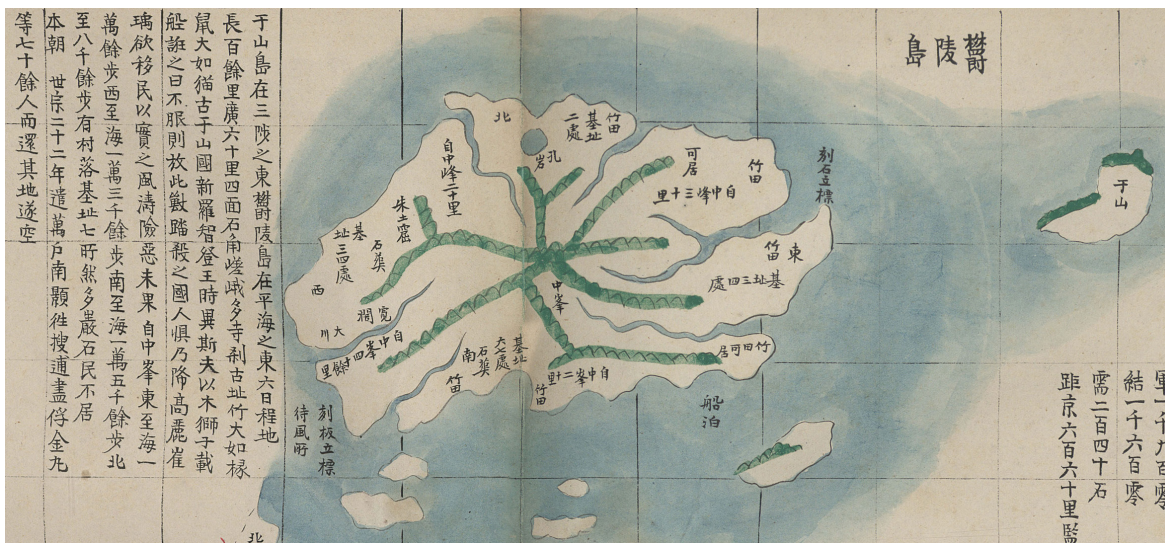


그림 18 『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고려대학교 도서관)



그림 19 『팔도군현지도』 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영국 국립도서관)



그림 20 『청구도』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1 『동여도』속 울릉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2 목판본 『대동여지도』속 울릉도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3 필사본 『대동여지도』속 울릉도와 우산도
(출처: 한국연구원)

이들 지도에 그려진 울릉도는 회화식 지도에서와 달리 고구마 형태로 좌우가 넓은 타원형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우산도 이외에 5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회화식 지도에서는 우산도에 ‘소위(所謂)’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소위’가 사라졌다. 그리고 우산도가 울릉도에서 40리 정도 떨어진 형태로 그려져 있다.⁹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신경준(申景濬)의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에 담긴 울릉도와 우산도 관련 내용이 반영된 지도라고 보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73쪽).

방안식 지도에 그려진 울릉도 내부 지형은 회화식 지도에서와 달리 중봉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산맥이 뻗어 있는 연맥식(連脈式) 형태의 산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산맥들 사이로 6개의 하천이 흐르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지도상에 기재된 지명의 수는 회화식 지도에서보다 적는데 중봉, 공암, 대천, 석장(石葬), 죽전(5개), 대풍소, 각석입표, 각판입표, 관활(寬豁), 선박(船泊) 등이다.

2-3) 대축척 전국 지도

이 유형의 지도에는 김정호(金正浩)가 그린 『청구도(靑邱圖)』, 『동여도(東輿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및 사본 지도들이 있다. 『청구도』와 『대동여지도』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판본과 모사본들이 존재하나, 지면의 한계로 이 글에서는 대표적 지도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을 중심으로 살

9 『해동여지도』와 『강역전도』 내의 지도에는 울릉도 인근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지만, 『동국문헌비고』에 나오는 ‘우산도=송도=현재 독도’라는 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09, 73쪽).

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구도』에 나타난 울릉도의 형태는 방안식 지도에 묘사된 울릉도의 형태와 유사하다. 아울러 울릉도의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고 남쪽에 5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산맥 형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봉에서 연결된 산맥들이 뺏어 있고, 산지 사이로 7개의 물줄기가 표시되어 있다. 지명도 방안식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하여 중봉, 공암, 대천, 석장(2개), 죽전(5개), 대풍소, 각석입표, 각관입표, 관활 등이 있고, 이 외에 저전동이 추가되었다.

『동여도』와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경우 울릉도가 타원형에 가깝게 그려졌고, 주변에는 3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 아울러 우산도는 생략되었다. 목판본 『대동여지도』에서 우산도가 그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목판본이므로 판각의 여유가 없어서 우산도를 생략한 것이다”(이상태, 2011, 195쪽)라는 해석과 “우산도에 대한 『해동여지도』 계통의 지도와 『국조보감』의 기록이 서로 달라서 지도에 분명하게 그럴만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다”(이기봉, 2020, 226쪽)라는 해석이 있다. 울릉도 남쪽에 그려진 돌섬 3개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독도라는 주장도 있다(이상균, 2019).

반면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는 우산도가 기재된 지도가 존재한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 소장한 필사본 『대동여지도』에는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이 필사본은 김정호의 사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모사자가 추가로 우산도를 그려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서 생략한 우산도를 모사자가 그려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2-4) 대축척 단독 지도

수토사들이 수토 사업 이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유형의 지도에는 박석창이 그린 「울릉도도형」, 이규원(李奎遠)이 그린 「울릉도내도(鬱陵島內圖)」와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 작자 미상의 「울릉도도형」 2매 및 「울릉도도(鬱陵島圖)」 1매 등 총 6매가 있다. 이 지도들은 모두 그려진 형태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박석창이 그린 「울릉도도형」은 1711년 울릉도 수토 후 작성한 지도이다. 이 지도는 서쪽이 지도의 위쪽에 배치되어 있다. 울릉도는 사각형에 가깝게 그려져 있고, 울릉도 안쪽에는 중봉을 중심으로 산들이 뿔뿔하게 그려져 있다. 하천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하천과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길게 표시되



그림 24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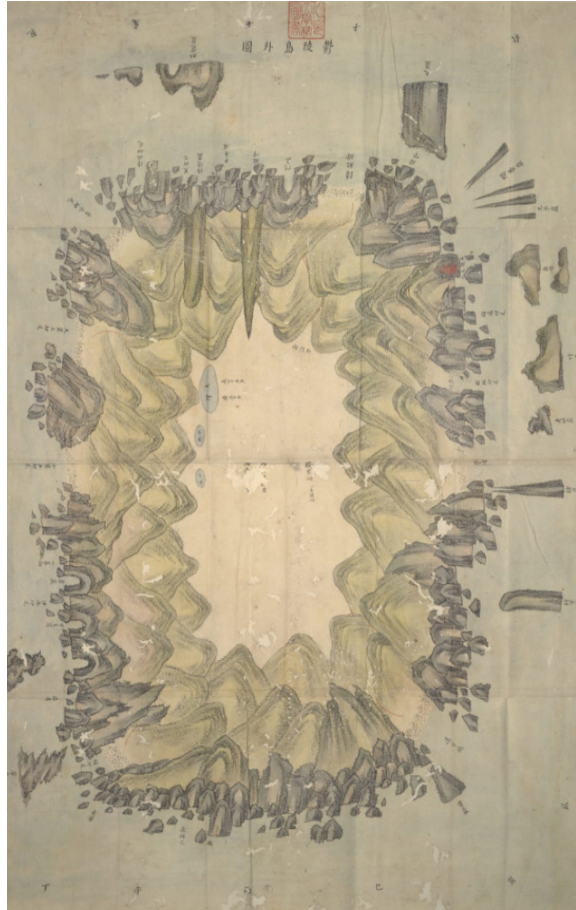


그림 25 이규원의 「울릉도내도」와 「울릉도외도」(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6 「울릉도도형」(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27 「울릉도도형」(출처: 삼척박물관)



그림 28 「울릉도도」(출처: 천안박물관)

어 있고 나머지 9개의 하천은 짧게 표시되어 있다. 이 외에 저전동, 각석입포, 각판입포, 주토굴, 집터[基地] 5곳, 돌무덤(석장) 2곳, 왜선창, 대나무 서식지[竹田] 10곳 등이 표시되어 있다. 울릉도의 북동쪽 해안에는 공암 및 돌봉우리[石峯] 6개가 표시되어 있고, 동쪽에는 ‘소위 우산도’가, 동남쪽에는 무기명의 섬 5개가 그려져 있다. 특히 ‘소위 우산도’에는 해장죽 서식지[海長竹田]가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소위 우산도’는 우산도인 독도가 아니라 죽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기며, 이 지도를 참조하여 그린 회화식 울릉도 지도에 나타나는 ‘소위 우산도’ 역시 죽도를 그린 것으로 판단한다(오상학, 2006; 김화경 2008; 이상태, 2011; 이기봉, 2020).

이규원의 「울릉도내도」와 「울릉도외도」는 1882년 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검찰한 결과를 『울릉도 검찰일기(鬱陵島檢察日記)』로 작성해 보고하면서 함께 제출한 지도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내도」에는 나리분지를 중심으로 주변 산봉우리가 묘사되어 있고, 「울릉도외도」에는 울릉도의 해안선 일대가 중점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울릉도의 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깝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울릉도도형」은 박석창의 지도와 명칭은 같으나 그려진 형태와 내용은 다르다. 이 지도는 산을 좀 더 크게 표현한 편이고, 해안가에 있는 바위와 섬들도 크게 그려져 있다. 또한 대풍소, 추봉(錐峯) 등의 산지 지명, 소우도(小于島), 대우도(大于島) 등의 섬 지명, 공암, 용암(龍巖), 후죽암(候竹巖), 황토굴(黃土窟), 소황토구미(小黃土龜尾), 평초구미(萍草龜尾), 도장구미(都藏龜尾), 장사구미(長沙龜

尾), 왜선창구미(倭船倉龜尾), 천저구미(天底龜尾) 등의 해안 지명, 다투밭인 저전(楮田), 모시밭인 저전(苧田), 대나무밭인 죽전(竹田) 등 산물 관련 지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김기혁, 오상학, 이기봉, 2007).

삼척박물관에 소장된 「울릉도도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울릉도도형」과 유사한 계통이다. 섬 전체 형상 및 산을 그린 형태가 기존의 지도와는 다르다. 아울러 황토색을 사용한 점도 특이하다. 대풍소, 추봉 등의 산지 지명과 소우도, 대우도 등의 섬 지명, 주토굴, 대풍구미(待風龜尾), 공암, 현석구미(玄石龜尾), 천저구미, 후죽암, 용암, 장사구미, 통구미(桶龜尾), 도장구미, 평초구미, 사태구미(沙汰龜尾), 왜선창 등의 해안 지명과 저전(苧田), 저전(楮田) 등 산물 관련 지명 등이 표기되어 있다(백인기, 2012).

천안박물관에 소장된 「울릉도도」는 최근에 존재가 확인된 또 다른 형태의 수토 지도이다. 섬 형태는 타원형으로 그려져 있고, 섬 안쪽의 나리분지 부분에 나리동(羅里洞)이라는 지명이 표시되어 있다. 해안 선을 따라서 지명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북쪽으로부터 대암, 도항, 향로봉, 정소내선처, 내수내전곡, 소저포, 대저포, 도방청, 아륙사, 장포, 현포, 통구미, 천뢰산, 곡포, 사태구미, 굴암, 산막곡, 소황토구미, 대황토구미, 향목곡, 대풍구미, 광대추, 추산, 오년포, 구선창 등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섬의 북동쪽에는 죽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5) 지리서 내 지도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 시대까지 삼척에 소속된 도서였기에 군현별로 기록이 존재하는 지리서 내에는 일반적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를 그린 지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동여도지(東輿圖志)』에는 울진 편에 이어서 울릉도 지도와 울릉도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군현 지도 중 방격 지도에 해당하는 지도와 유사한 형태로 그려져 있고, 다만 동쪽에 그려진 우산도에는 지명 표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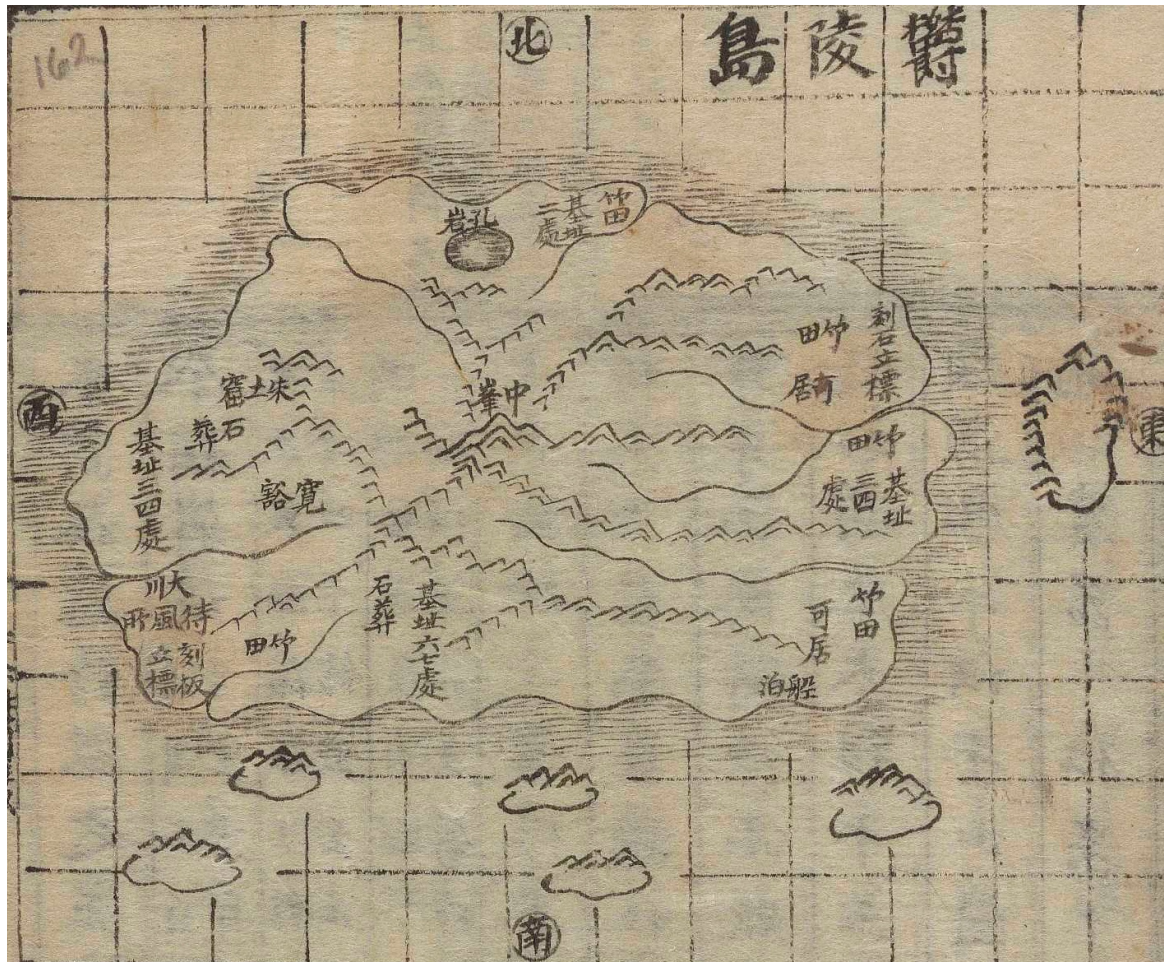


그림 29 『동여도지』 내 울릉도 지도 (출처: 영국 국립도서관)

3. 한국 고지도 속 동해

기존 연구(양보경, 2004)에 따르면 한국 고지도 속에 나타난 동해 표기에는 8가지 유형이 있다.

표 2 한국 고지도 속에 나타난 동해 표기의 8가지 유형

지명 유무	지명 표기 방식	표기에
지명이 있는 경우	동해 표기(바다)	東海, 東洋, 東洋海
	동해 표기(육지)	東海
	대한해	大韓海
	기타 표기	滄海
	일본해	日本海
	일반적 명칭	大海, 海, 東抵大海, 東接大海, 東大海, 南大海
지명이 없는 경우	여백에 방위 표시	東, 卯
	무표기	없음

이 글에서는 바다와 육지에 동해(東海)가 명확하게 표기된 경우와 대한해(大韓海) 및 기타 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바다에 표기된 동해

바다에 동해가 표기된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740년대에 작성된 '비변사인 방안 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즉 비변사 도장이 찍힌 방안 지도 중 하나인 『영남지도(嶺南地圖)』이다. 『영남지도』 가운데 「경주」, 「울산」 도엽(圖葉)에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 30 『영남지도』 내 「경주」 도엽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1 『영남지도』 내 「울산」도엽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여지도』 내 「흥해군(興海郡)」도엽, 『광여도』 내 「울산부(蔚山府)」도엽에도 바다에 동해 표기가 존재한다.



그림 32 『여지도』 내 「흥해군」도엽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3 『광여도』 내 「울산부」도엽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750년경에 작성된 『해동지도』 내 「홍해군」 지도, 『경주도회좌통지도(慶州都會左通地圖)』 내 「홍해」 지도, 『서북계도(西北界圖)』 내에도 바다에 동해 표기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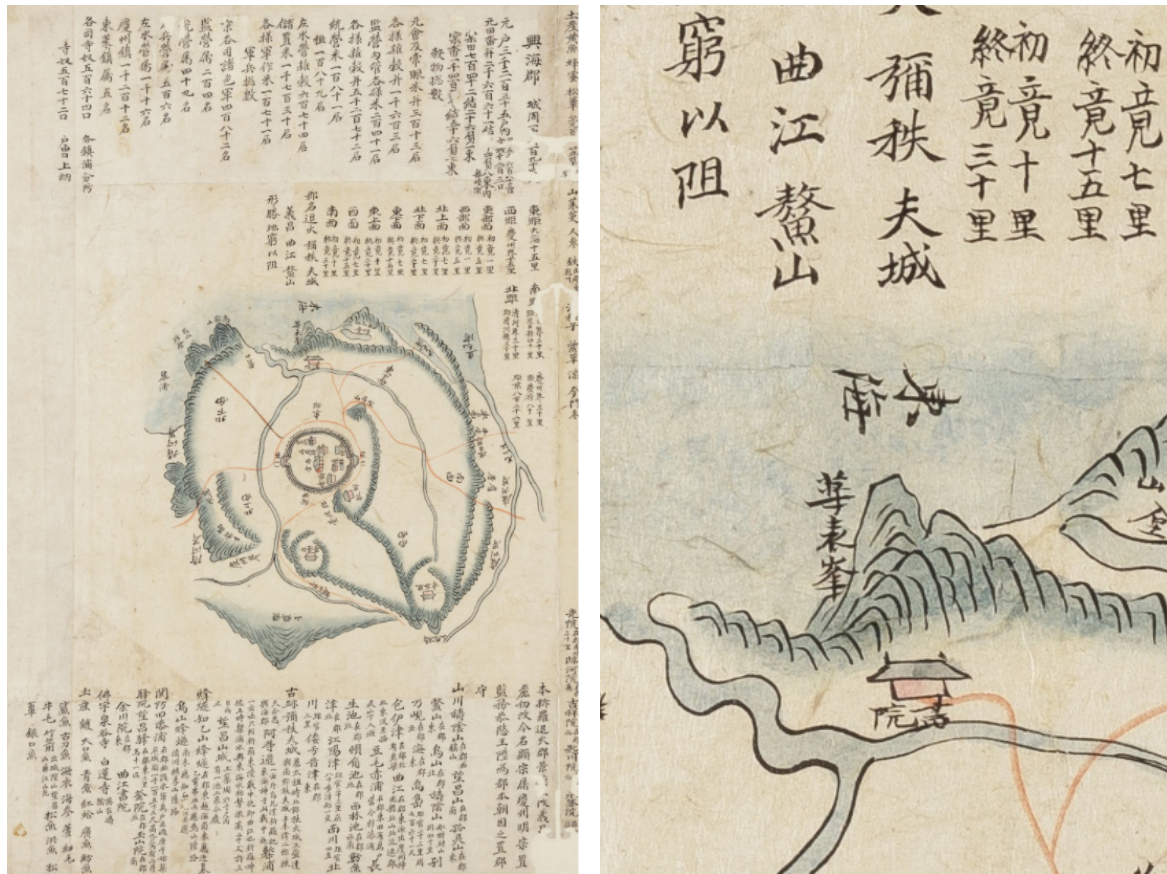


그림 34 『해동지도』 내 「홍해군」 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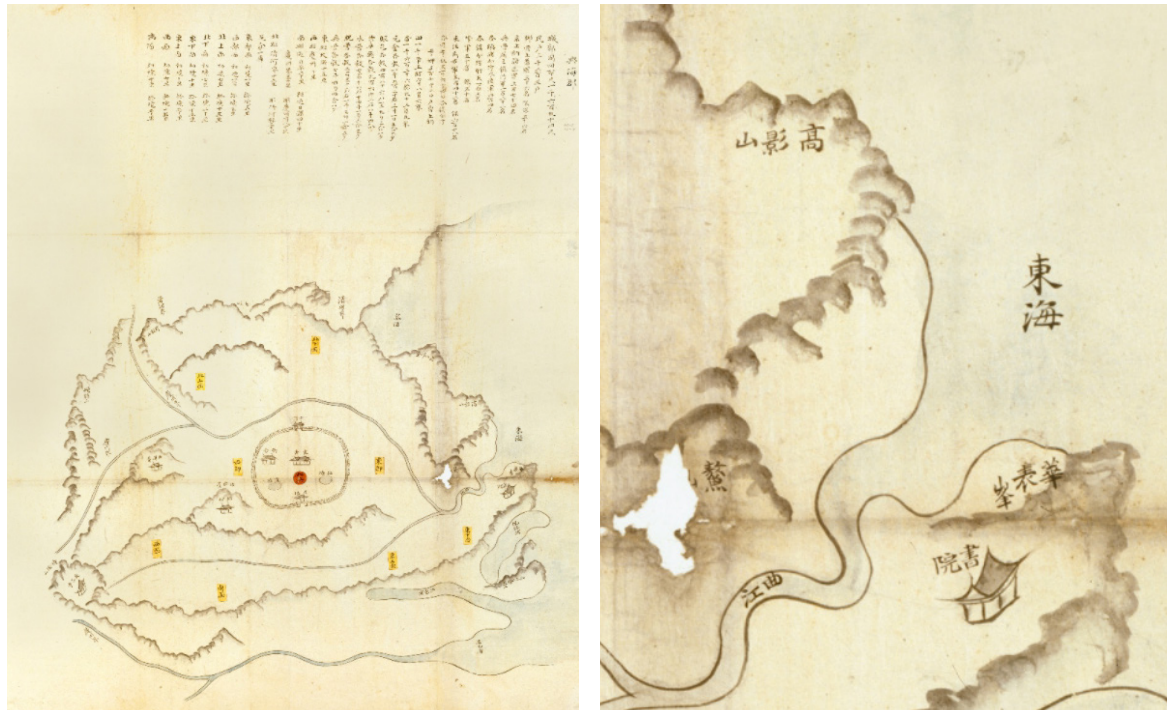


그림 35 『경주도회좌통지도』 내 「홍해」 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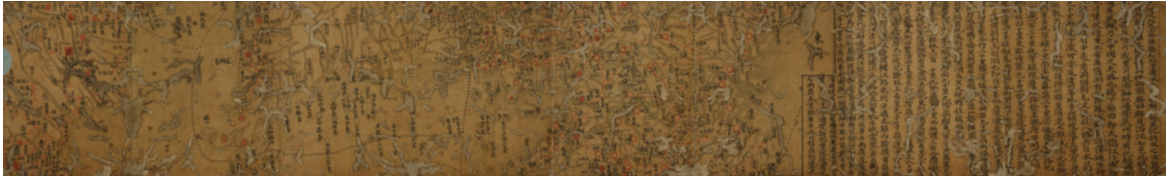


그림 36 『서북계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조 대에 작성된 『여지도』 가운데 「천하도지도(天下都地圖)」, 「아국총도(我國總圖)」, 「조선·일본·유구국도」, 「경상도」 도엽에도 바다에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 37 『여지도』 내 「천하도지도」 속 소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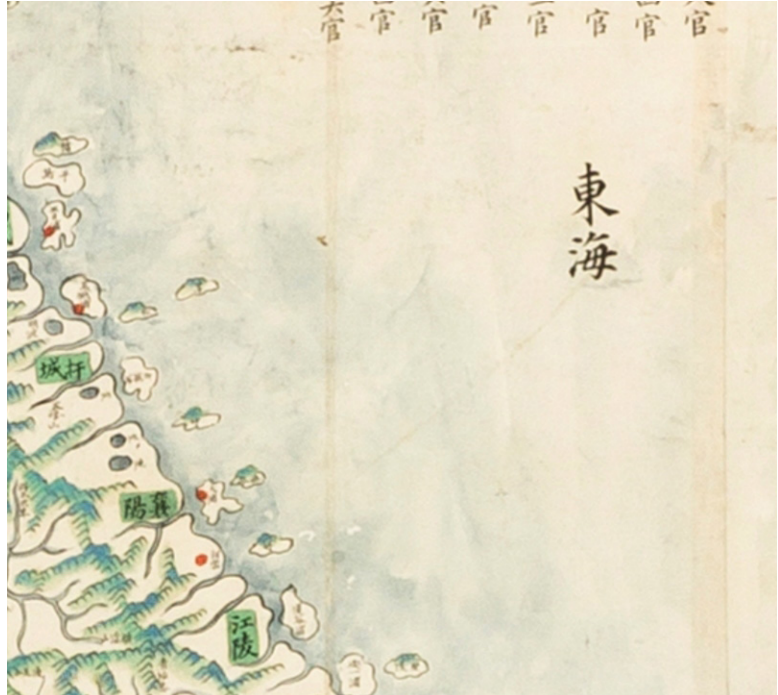


그림 38 『여지도』 내 「아국총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39 『여지도』 내 「조선·일본·유구국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40 『여지도』 내 「경상도」 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2년에 제작된 지도집 『1872년 지방지도』에 수록되어 있는 「무산지도」, 「평해군지도(平海郡地圖)」, 「울산목장지도(蔚山牧場地圖)」 등에도 바다에 동해 표기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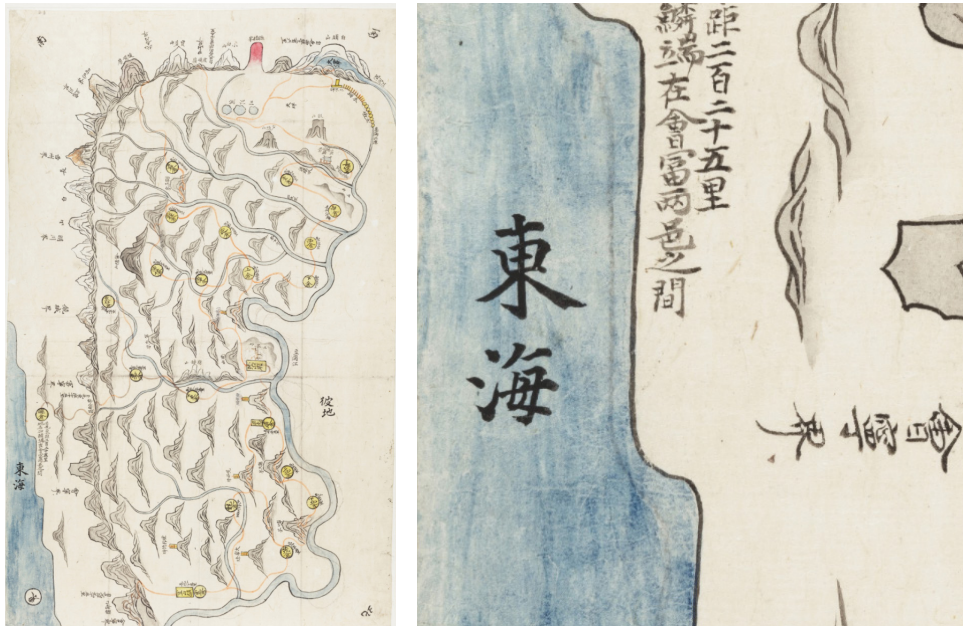


그림 41 『1872년 지방지도』 내 「무산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42 『1872년 지방지도』 내 「평해군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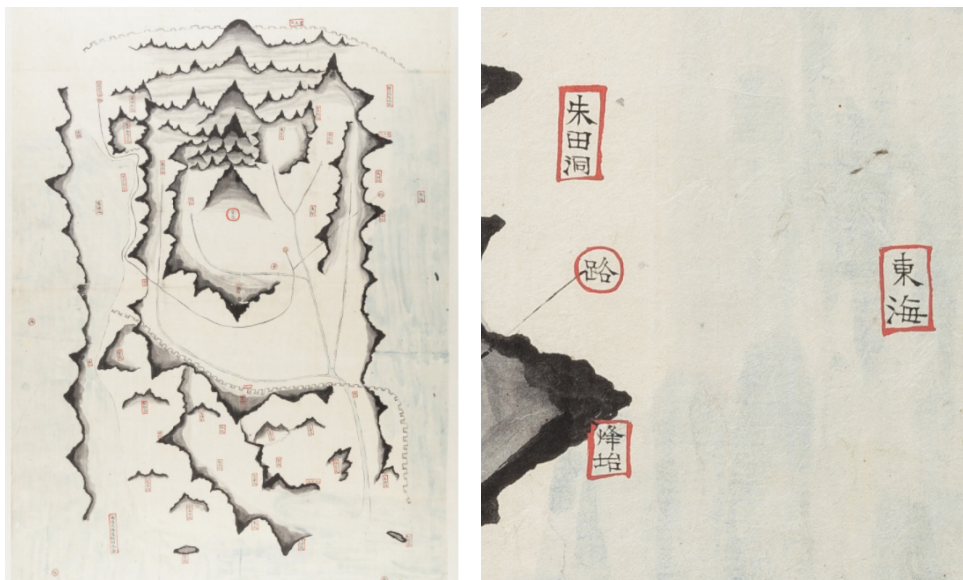


그림 43 『1872년 지방지도』 내 「울산목장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지도 중에도 바다에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3매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서북 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와 『각읍지도(各邑地圖)』 내 「경주」, 「울산」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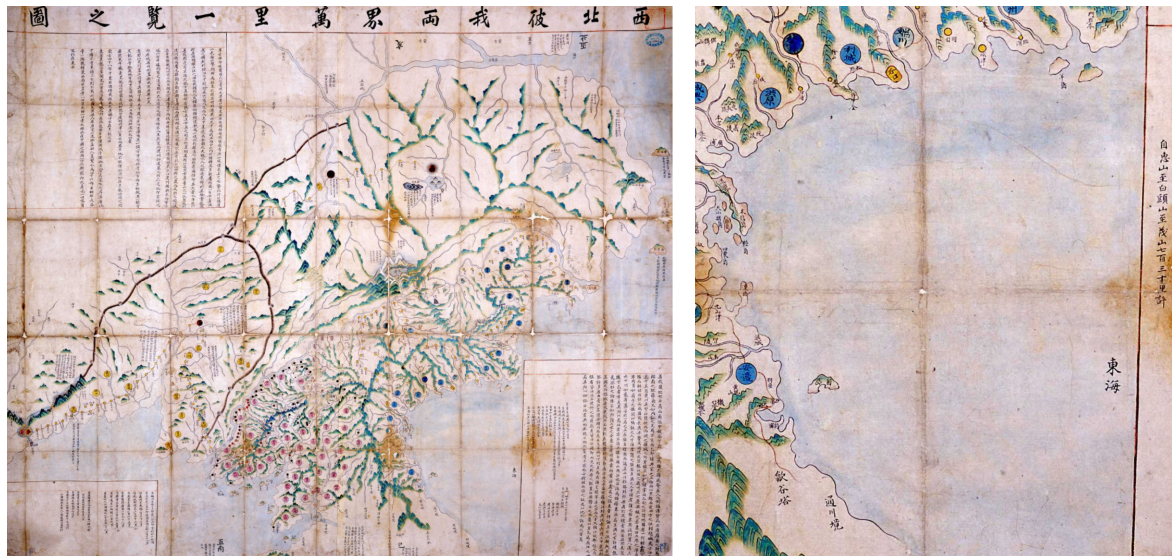


그림 44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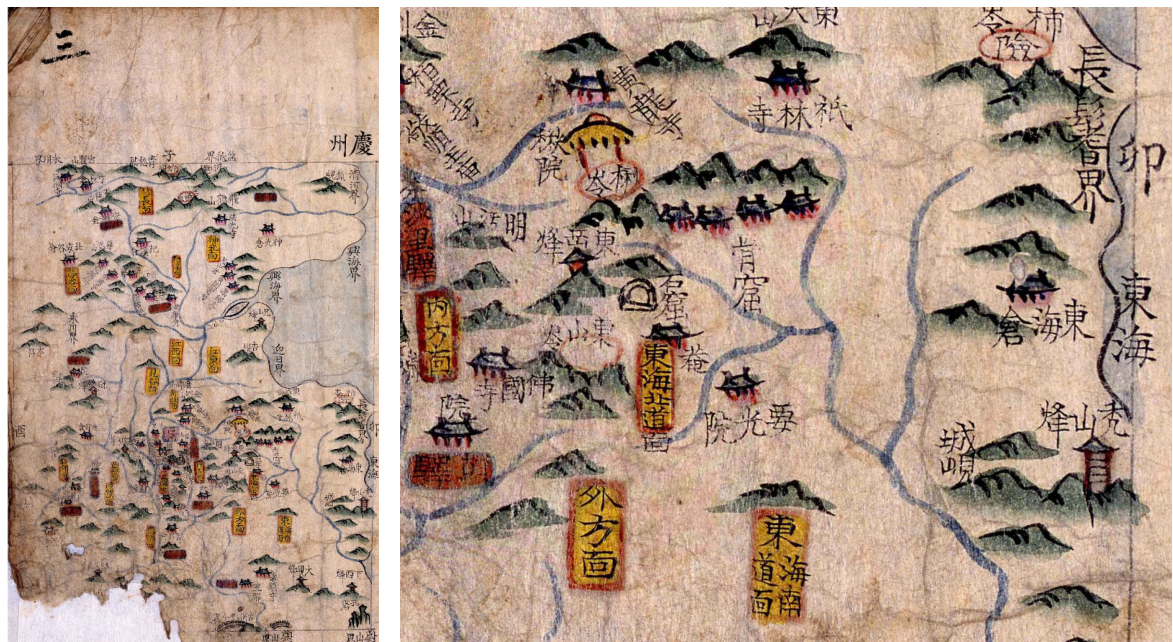


그림 45 『각읍지도』 내 「경주」 도엽 속 동해 표기(출처: 국립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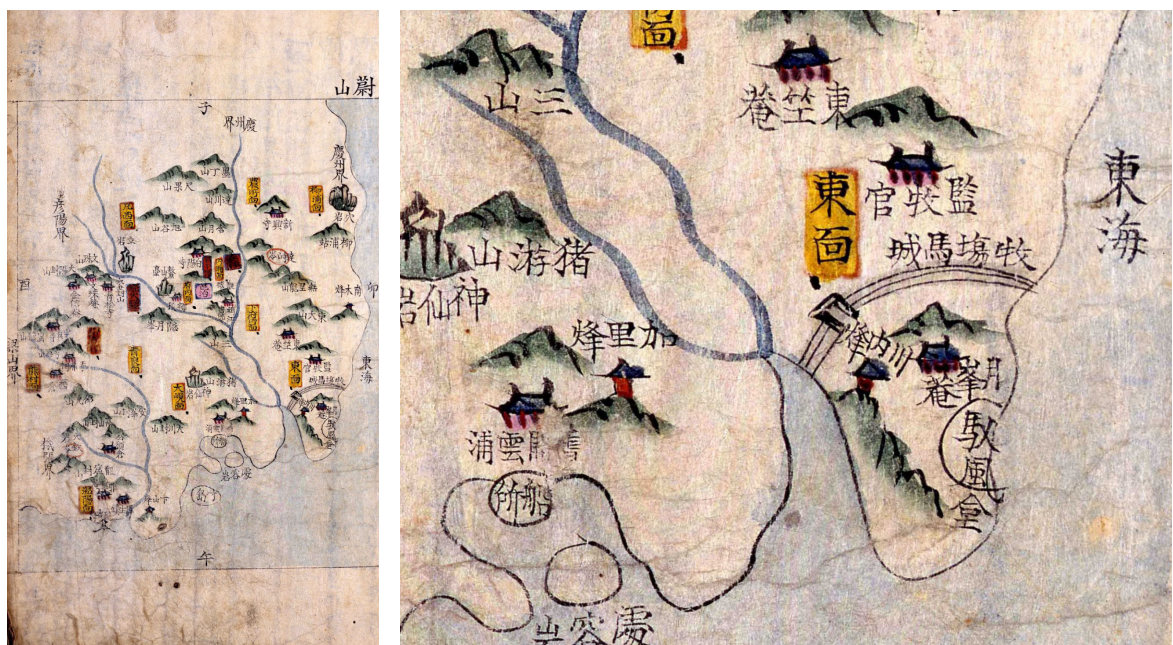


그림 46 『각읍지도』 내 「울산」 도엽 속 동해 표기(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한편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지도 중에도 바다에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도서관의 미국지리학회(AAG) 컬렉션에 소장된 『여지도』 내의 「전도」와 영국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여지도』 내의 「첩역전도(鰈域全圖)」에도 바다에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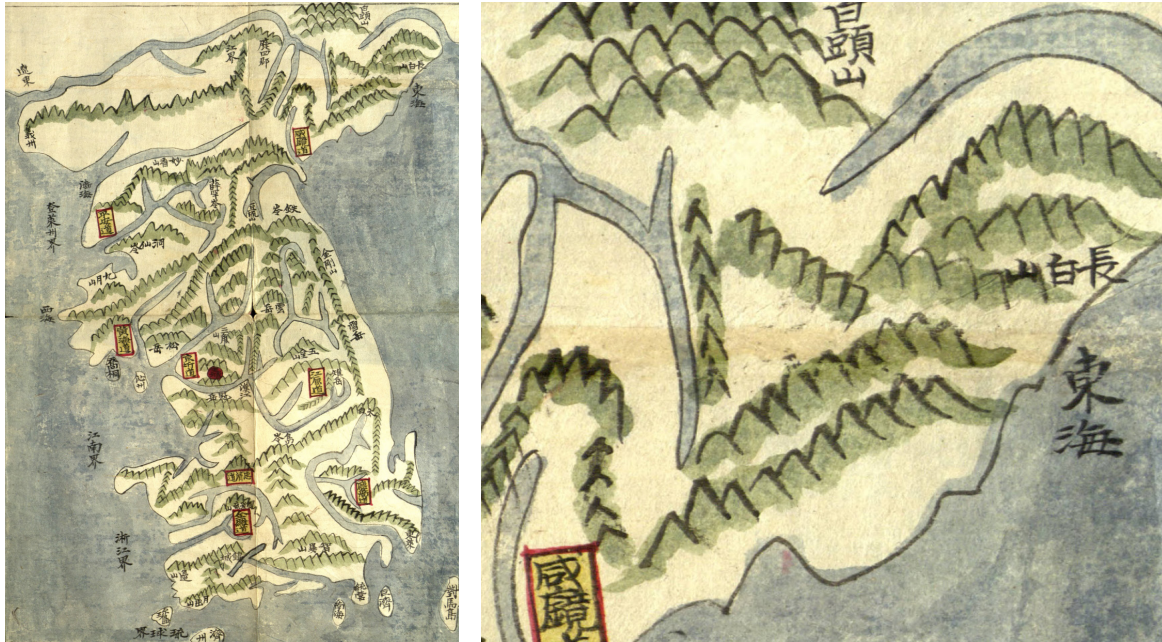


그림 47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도서관의 AAG 컬렉션 소장 『여지도』 내 「전도」 속 동해 표기(출처: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도서관)



그림 48 영국 국립도서관 소장 『여지도』 내 「첩역전도」 속 동해 표기(출처: 영국 국립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개화기에 작성된 『첩역지도(蝶域地圖)』 중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와 「경상도도(慶尙道圖)」에는 각각 바다에 동양(東洋)과 동해(東海)라는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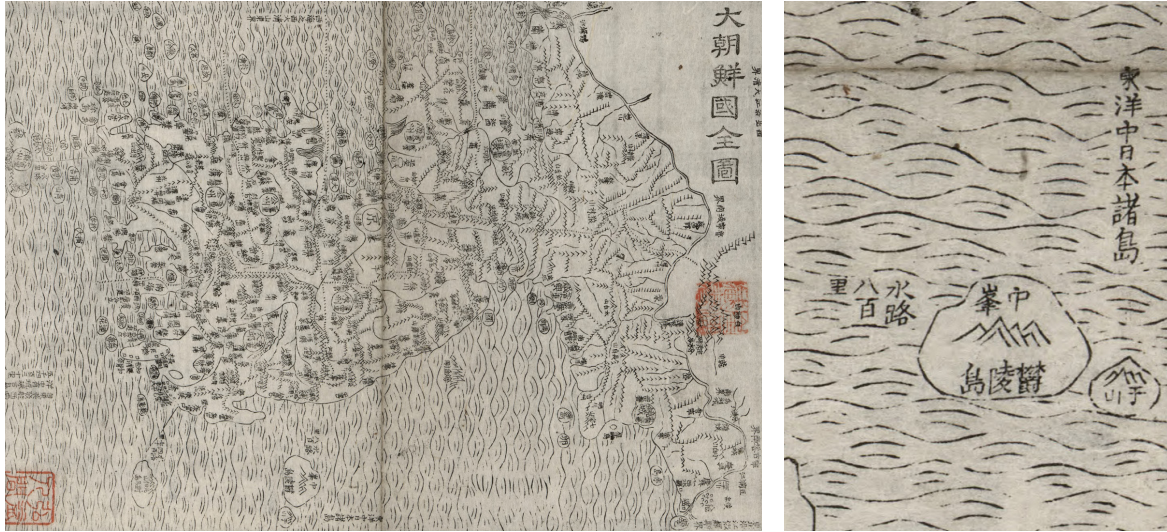


그림 49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첩역지도』 내 「대조선국전도」 속 동양 표기(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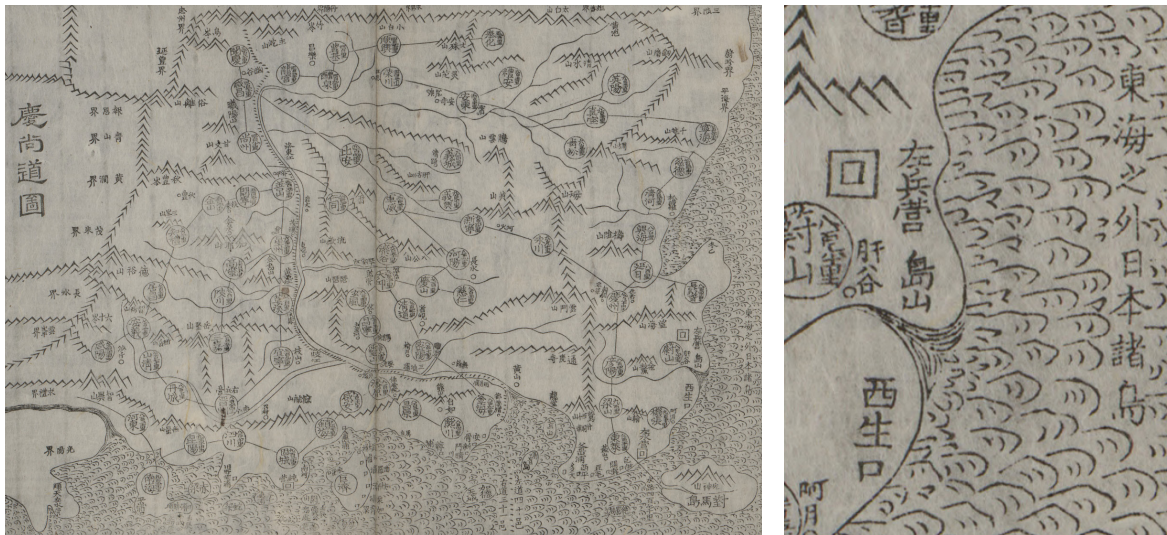


그림 50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첩역지도』 내 「경상도도」 속 동해 표기(출처: 미국 의회도서관)

중국에서 작성한 책자 내에도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19세기 중국 학자인 위원(魏源)이 제작한 『해국도지(海國圖志)』라는 지리서에 수록된 「조선지도」와 「원대서북강역연혁도(元代西北疆域沿革圖)」에도 바다에 동해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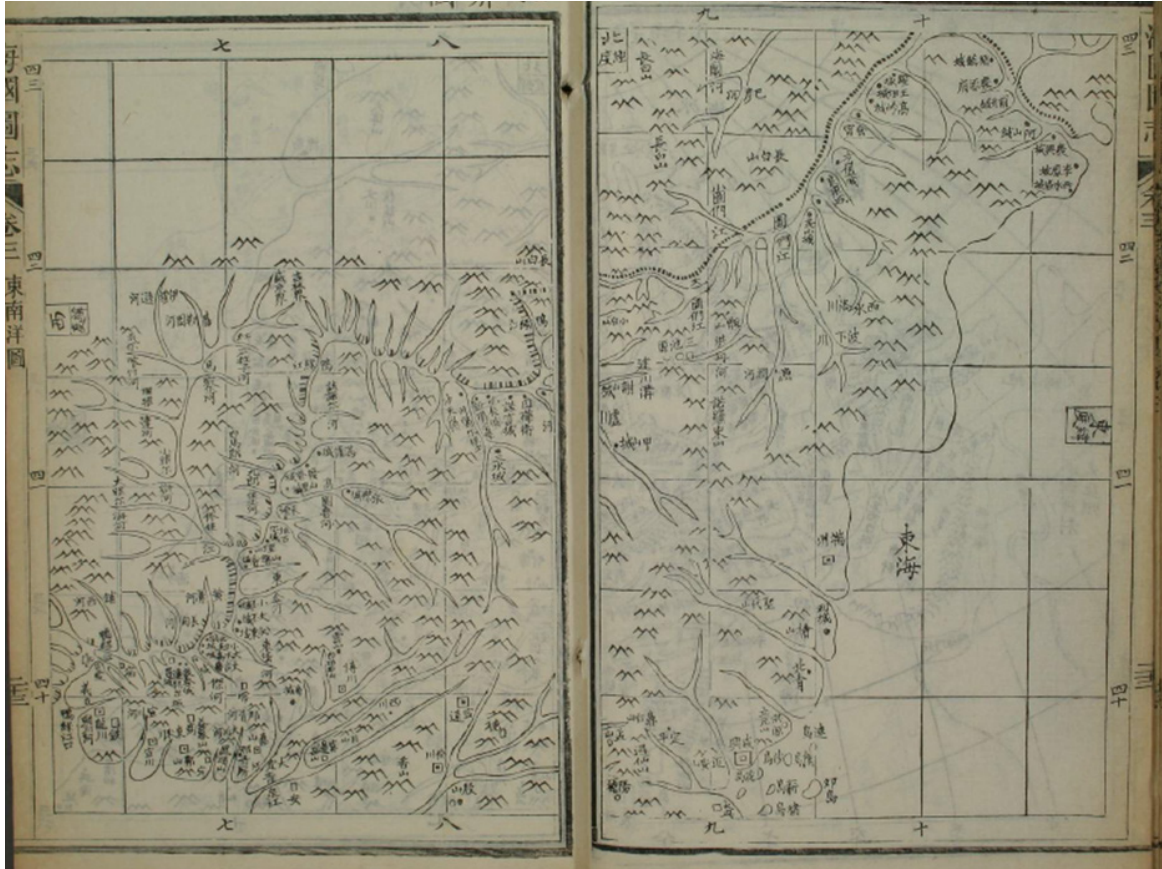


그림 51 위원의 『해국도지』 내 「조선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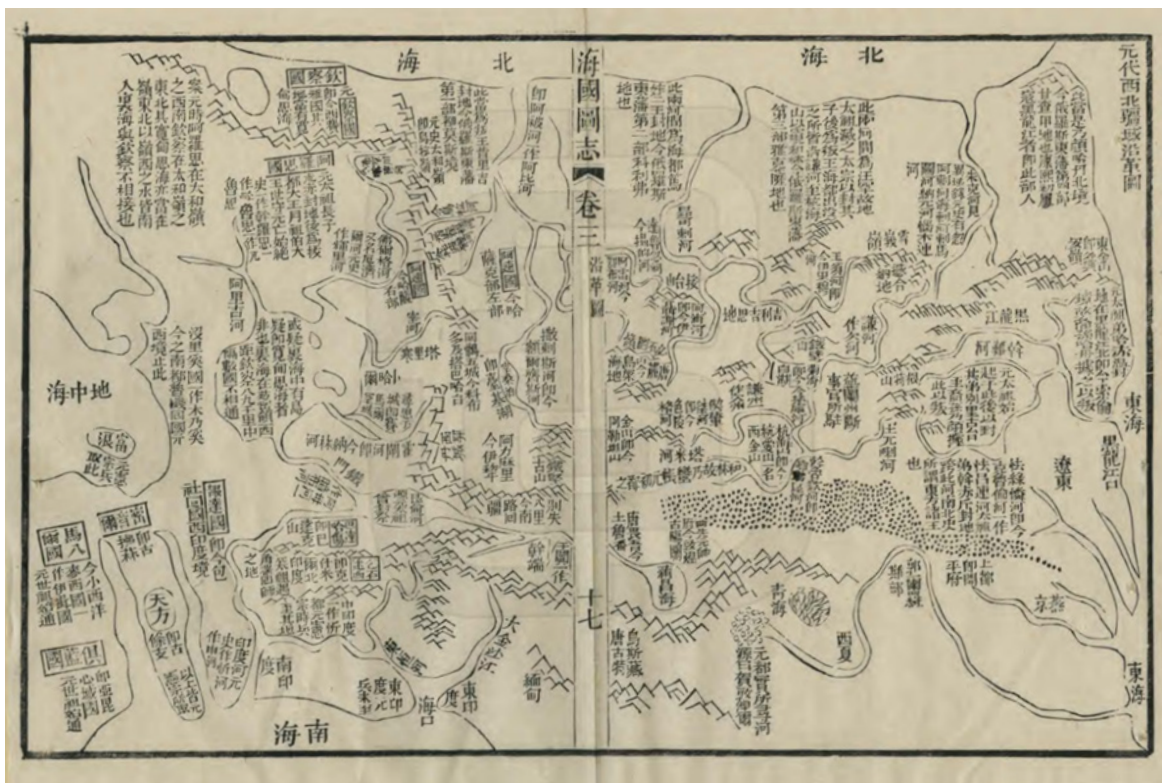


그림 52 위원의 『해국도지』 내 「원대서북강역연혁도」 속 동해 표기(출처: 일본 와세다대학교 도서관)

2) 육지에 표기된 동해

독도가 표기된 고지도로 널리 알려진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팔도총도」에는 독도인 우산도뿐만 아니라 동해도 표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동해 표기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 표시된 점이다. 그 까닭은 이 지명이 동해 해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당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팔도총도」를 모사한 『역대지도』 내 「팔도총도」, 『요도(瑤圖)』 내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 등에서도 계속해서 육지에 동해를 표기하였다.



그림 53 『신증동국여지승람』 내 「팔도총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54 『역대지도』 내 「팔도총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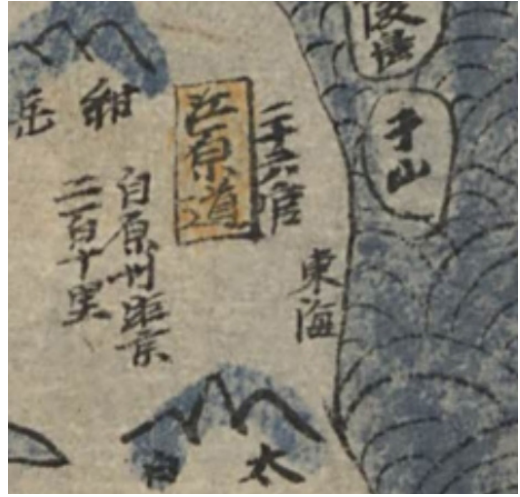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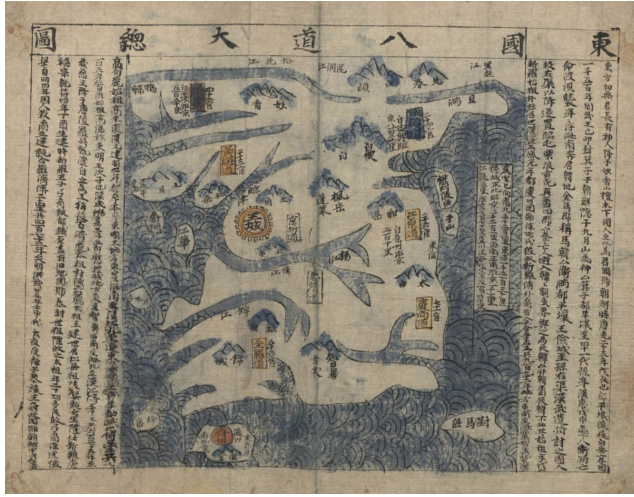


그림 55 『요도』 내 「동국팔도대총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2년 지방지도』 중에도 「단천부지도」, 「삼척부지도」, 「삼척진지도」 등 육지에 동해가 표기된 지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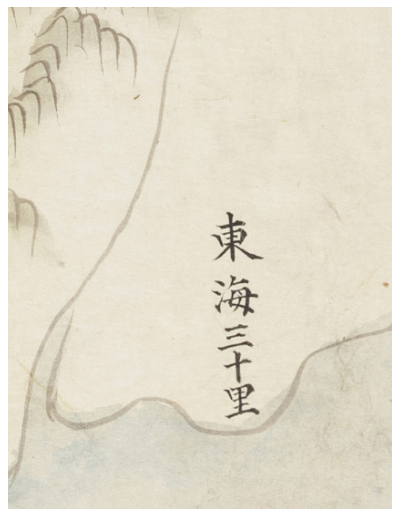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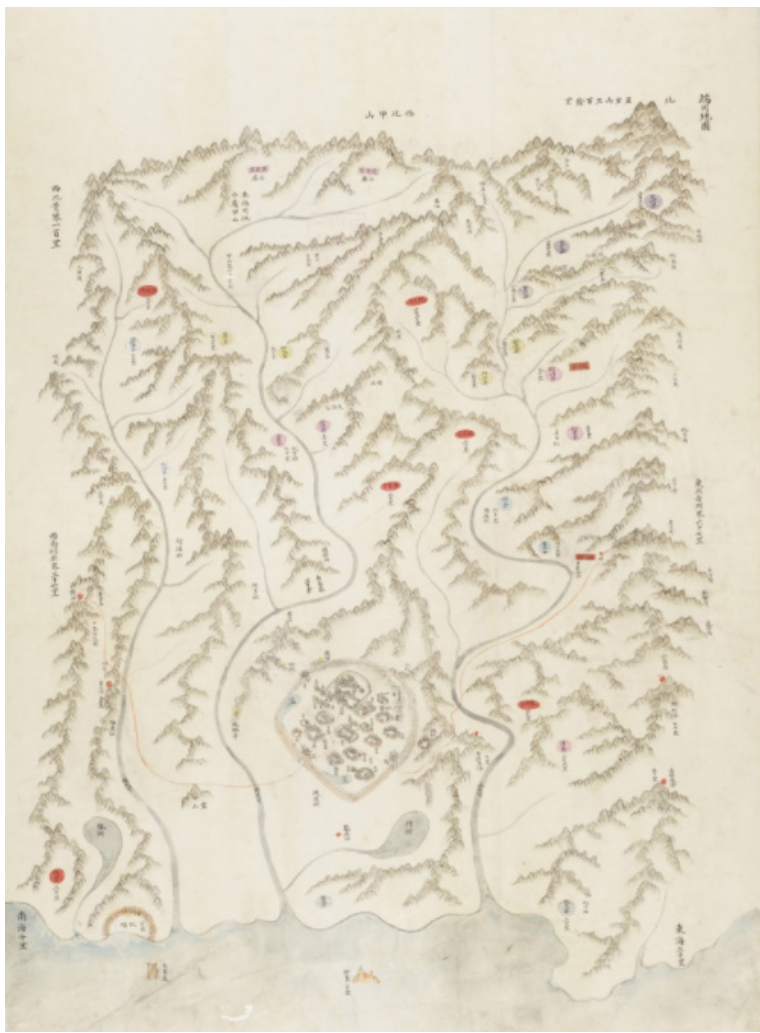


그림 56 『1872년 지방지도』 내 「단천부지도」 속 동해, 남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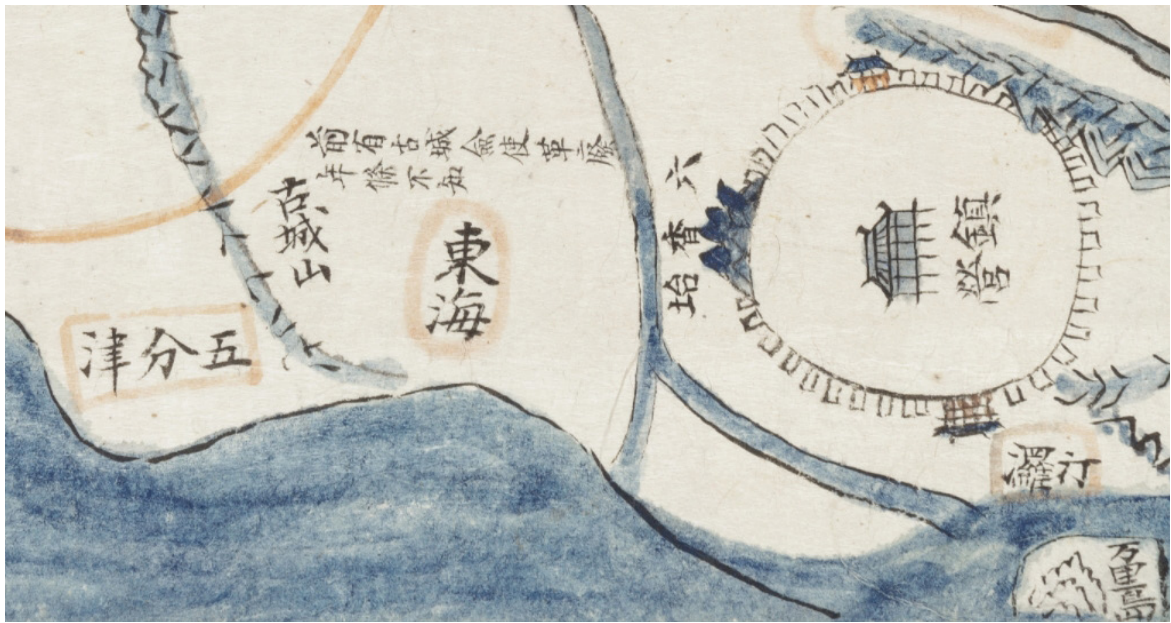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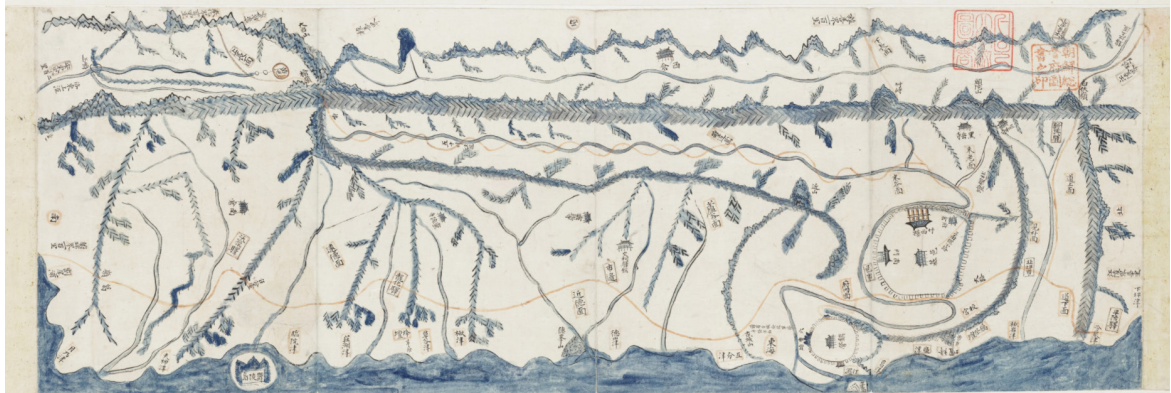


그림 57 『1872년 지방지도』 내 「삼척부지도」 속 동해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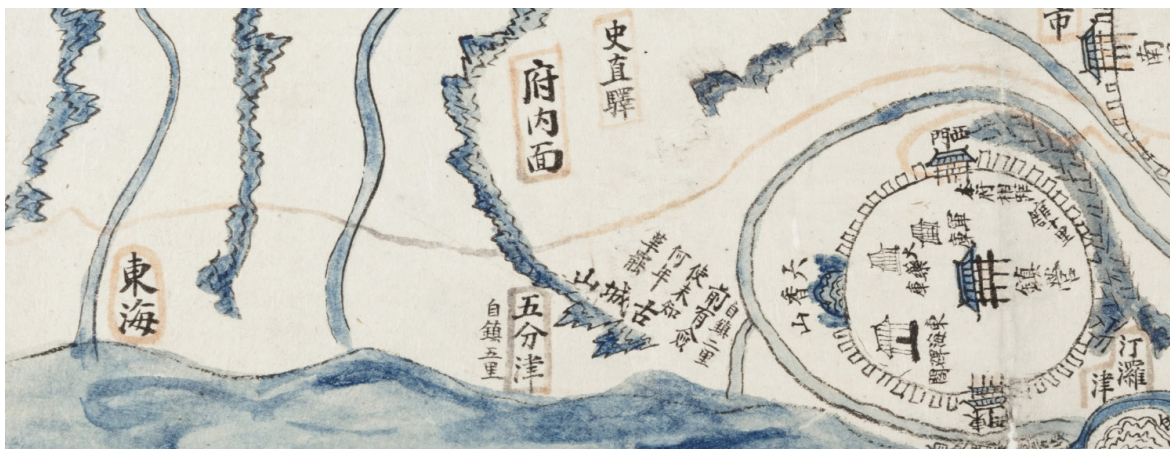


그림 58 『1872년 지방지도』 내 「삼척진지도」 속 동해 표기와 동해비각(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대한해 표기 지도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 동해에 대한해(大韓海)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여러 지도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남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대한신지지(大韓新地誌)』 내 「대한전도」(1907년)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현공렴(玄公廉)이 제작한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1908년)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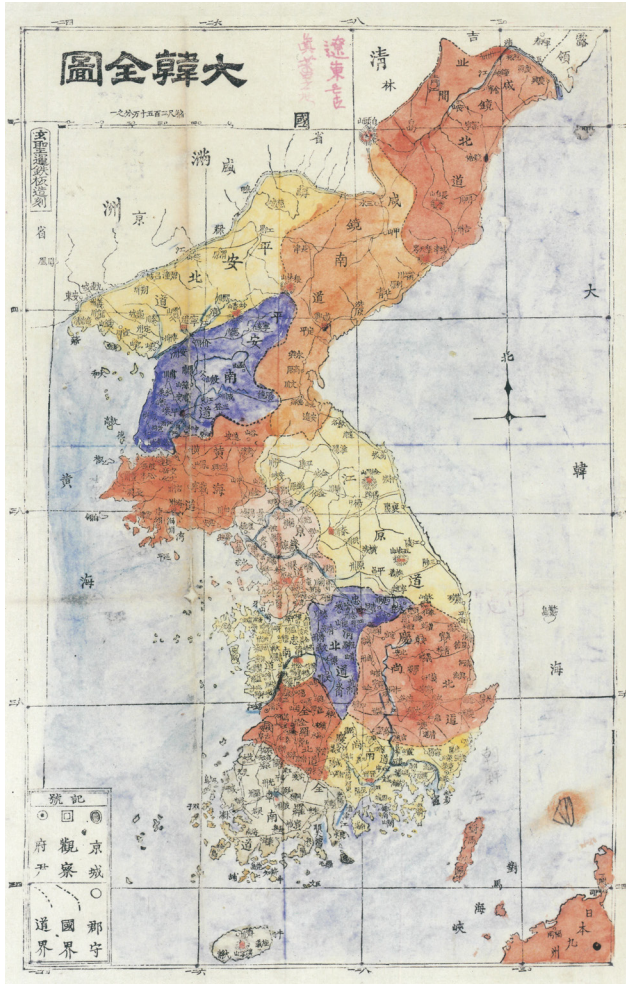


그림 59 『대한신지지』 내 「대한전도」 속 대한해 표기
(출처: 영남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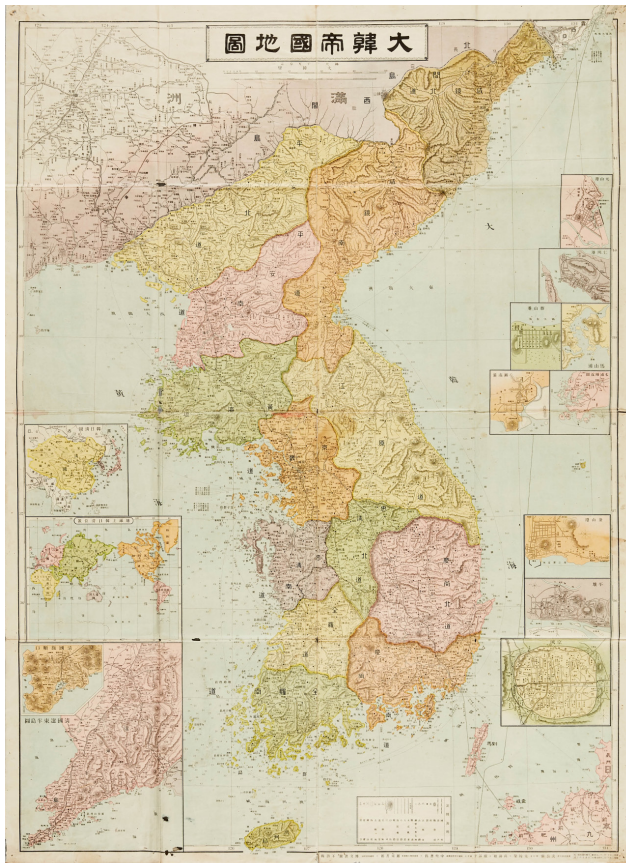


그림 60 「대한제국지도」 속 대한해 표기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4) 기타 표기

『1872년 지방지도』에 실린 「양양읍지도」에는 ‘창해(滄海)’가 표기되어 있고, 「거제부지도」에는 ‘동명대양(東溟大洋)’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림 61 『1872년 지방지도』 내 「양양읍지도」 속 창해와 동해묘(東海廟)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62 『1872년 지방지도』 내 「거제부지도」 속 동명대양 표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일본 고지도 속 독도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진 일본 고지도는 작성 시기, 작성 대상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¹⁰ 우선 작성 시기로는 서양의 지도에 영향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작성 대상으로는 일본과 주변 바다를 그린 지도, 조선과 주변 바다를 그린 지도,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일본 고지도를 분류한 후 해당 지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 방식에 따른 구분

유형	표기	시기	특징
1	우산도, 울릉도	18세기 / 19세기 중반	조선 전기의 한반도 지도 모사 / 우산도가 울릉도의 서쪽에 위치
2	울릉도: 다케시마(竹島) 독도: 마쓰시마(松島)	1870년대까지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부르던 전통적 방식
3	아르고노트: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1840년 이후 19세기 말까지	독일인 지볼트(Siebold)가 일본 지도를 작성하면서 생겨난 현상 / 19세기 후반에 발간된 지도 대부분에 해당
4	아르고노트: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독도: 리양쿠르암, 랑코도 등	1860년대 이후	서구 해도를 모사한 지도에서 주로 나타남 (사례 지도는 소수임)
5	울릉도: 마쓰시마(松島) 독도: 다케시마(竹島), 리양쿠르암	1904년 이후	러일전쟁 발발 이후 발간된 지도
6	일본 영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	1870년대 이후~1904년	

1) 우산도, 울릉도 표기 지도

이 유형의 지도는 조선 전기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가 그린 조선 전도류 지도가 일본으로 전해져 이를 모사한 지도들이다.¹¹ 조선 전기의 지도들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서쪽에 그려졌는데, 이 형태가 그대로 모사된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고시마 현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지도」(17세기),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朝鮮京都日本大阪西國海邊航路之圖)」(1748년), 「청조일통도(淸朝一統圖)」(1835년) 등을 들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세기 중반에도 일본에서 이러한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점인데, 당시 조선 침략을 준비하면서 조선의 지리 정보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필사본이 양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유형의 지도에는 「조선국도」(1863년),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1873년),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1874년) 등이 있다.

아울러 서양의 해도를 모사한 형태의 지도에도 이러한 유형이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청십팔성여지전도(淸十八省輿地全圖)」(1874년)에는 청나라와 한반도가 나타나 있는데, 한반도 형태는 1840년대에 작성된 프랑스와 영국의 해도상에 나타난 한반도 형태로 그려져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각각 완릉도(苑陵

10 일본 고지도 속의 독도를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자 이상태(2007; 2013)의 연구에서는 주로 시기별로 지도를 구분하고 있다.

11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는 조선 전기에 정척과 양성지가 작성한 지도 계열의 조선 전도가 2매 존재하며, 지도 명칭은 각각 「조선국도(朝鮮國圖)」(178-0449), 「조선도(朝鮮圖)」(史199-0004)이다(양보경, 2016).

島), 천산도(千山島) 등으로 표기되었다. 또한 이 유형의 지도 가운데에는 지명은 기재하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우산도의 형태를 그린 지도가 있다. 「개정신전조선전도(改訂新鐫朝鮮全圖)」(1875년)가 대표적이다.



그림 63 가고시마 현립도서관 소장 「조선지도」(17세기)(출처: 가고시마 현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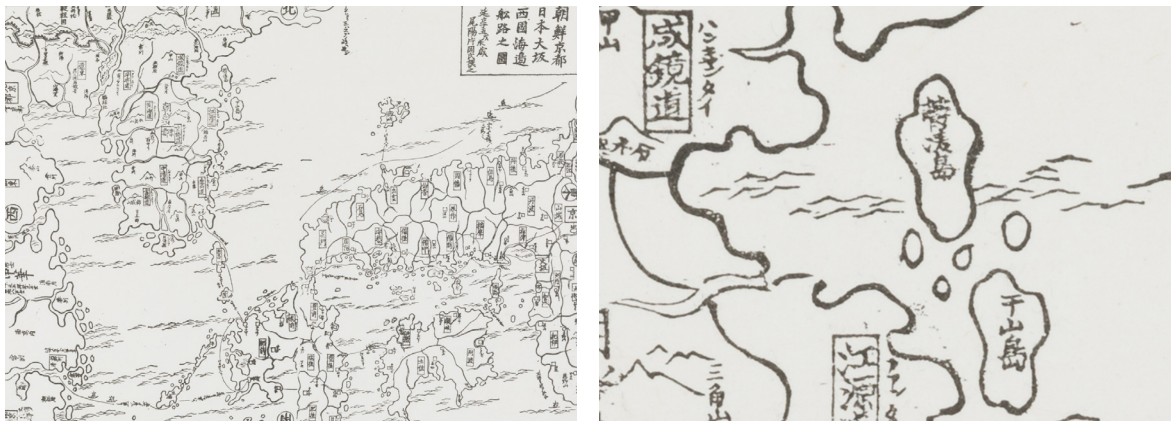


그림 64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1748년)(출처: 독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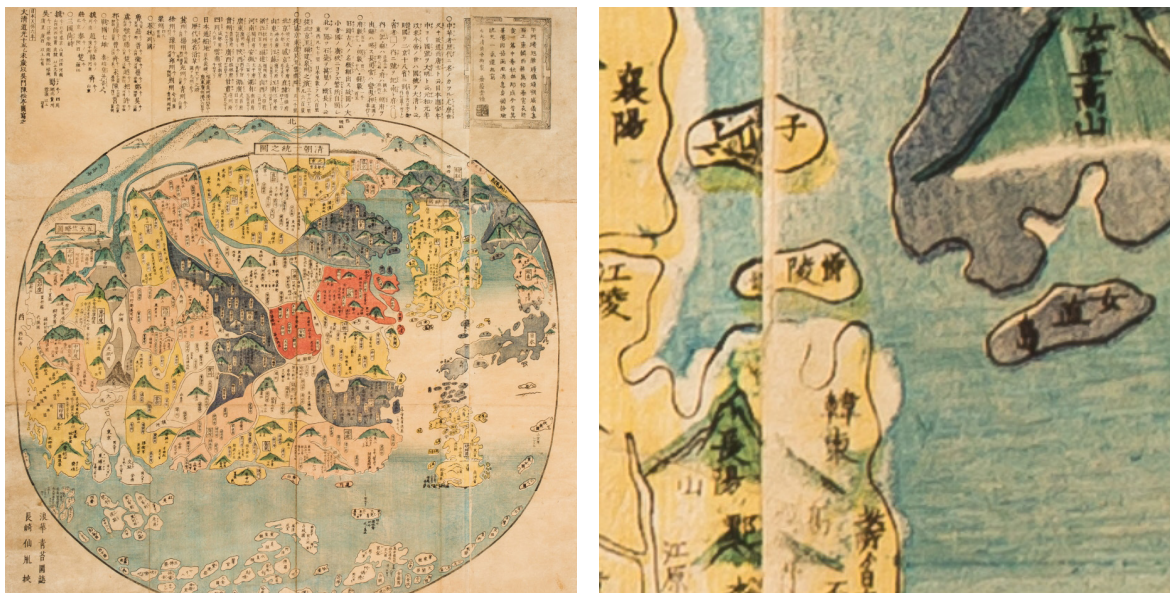


그림 65 「청조일통도」(1835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지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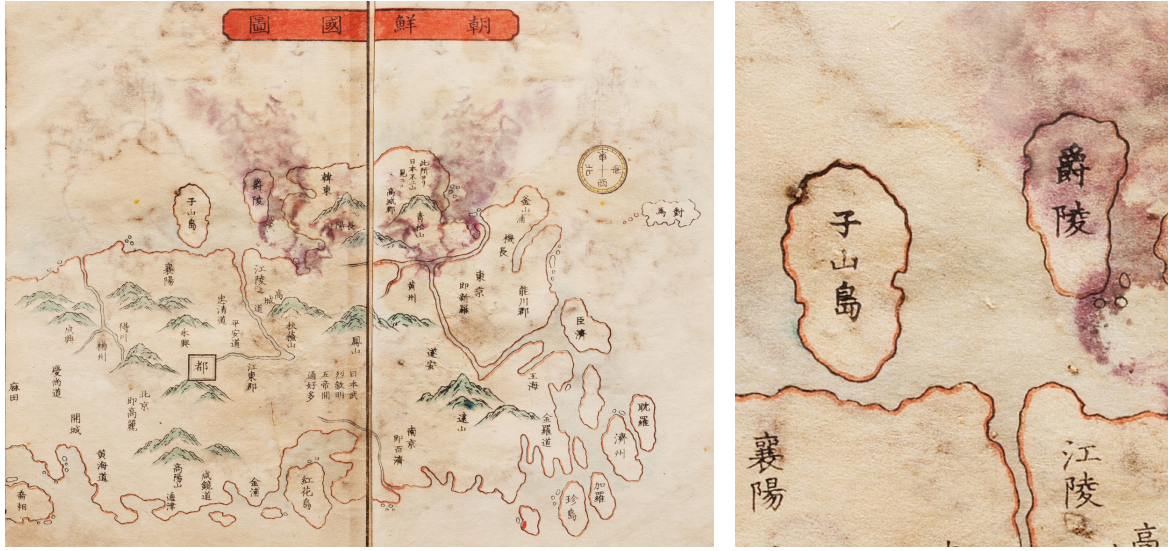


그림 66 「조선국도」(1863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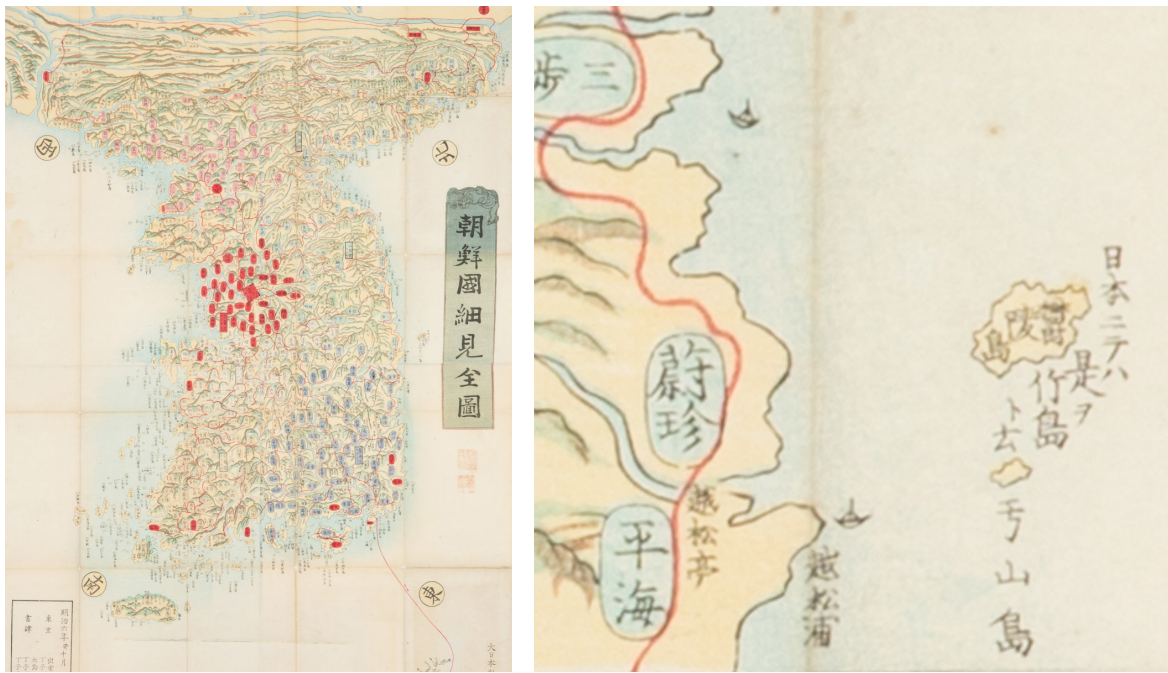


그림 67 「조선국세견전도」(1873년)(출처: 독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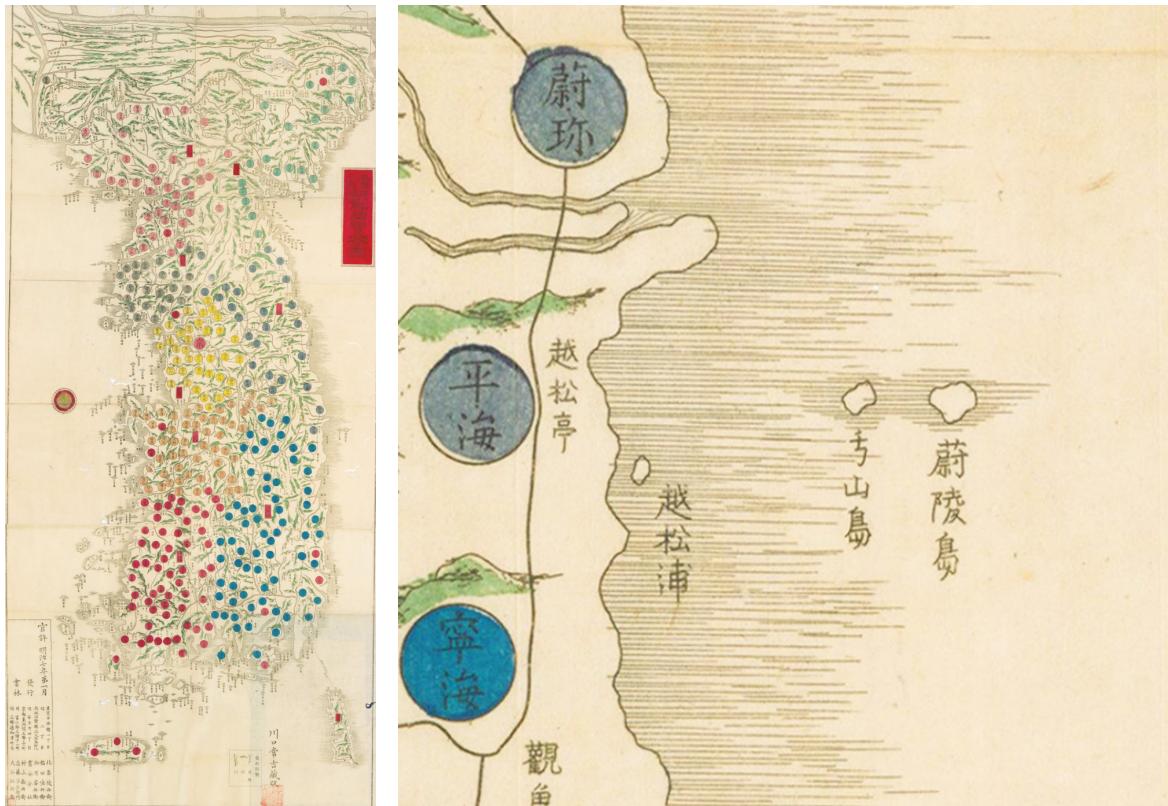


그림 68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1874년)(출처: 독도재단)



그림 69 「청십팔성여지전도」(1874년)(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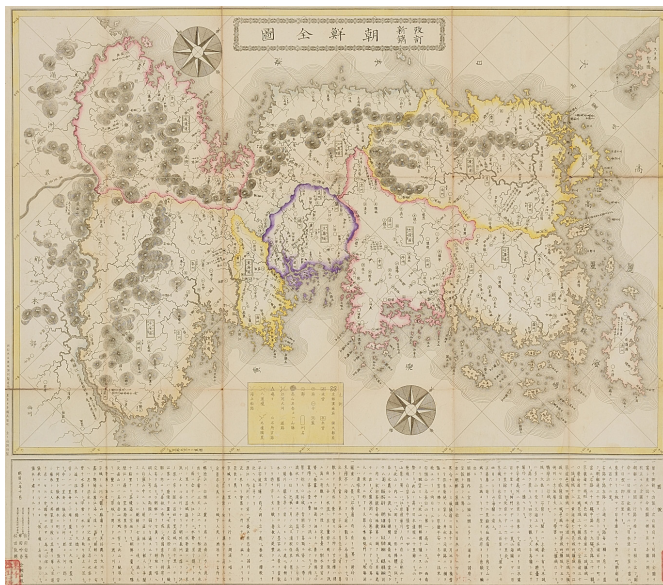


그림 70 「개정신전조선전도」(1875년)(출처: 독도재단)



2)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한 지도

메이지 유신 이전 시기 일본 전도를 그린 지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 유형의 지도는 대체로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지도로는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일본 여지로정전도(日本與地路程全圖)」(1775년)와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79년, 1791년 등)가 있다. 이 지도에 그려진 울릉도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이소다케시마(磯竹島)로,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두 섬 옆에는 “견고려유운주망은주(見高麗猶雲州望隱州)”라는 글귀가 있다. 이는 독도가 기록된 일본 최초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에 보이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고려(조선)를 보는 것은 운주(雲州,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은주(隱州, 지금의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라며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오키섬으로 하고 있어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또 다른 지도에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의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1785년)와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1802년)가 있다.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에는 울릉도에 다케시마(竹島)만 표기되어 있지만, 이 지도와 유사한 「대삼국지도」에는 독도에 마쓰시마(松島)가 표



그림 71 「일본여지로정전도」(1775년)(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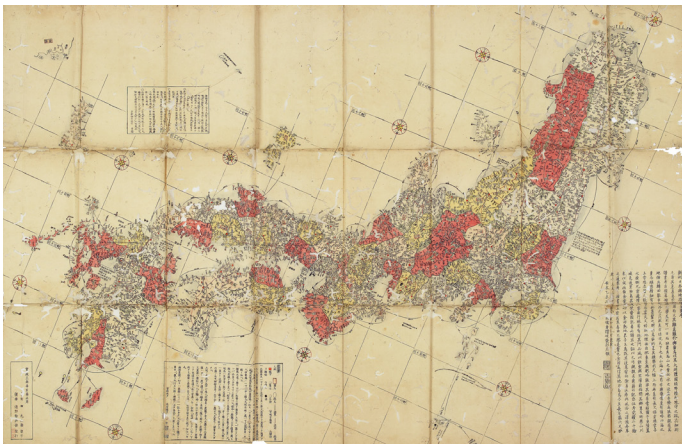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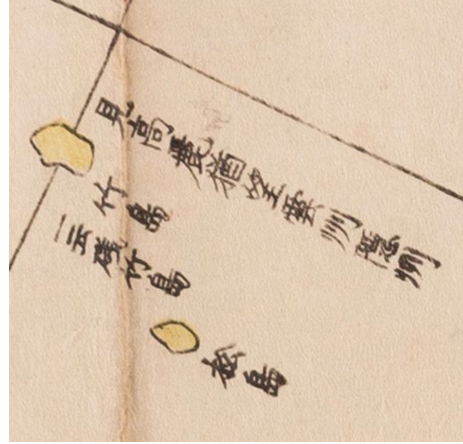


그림 72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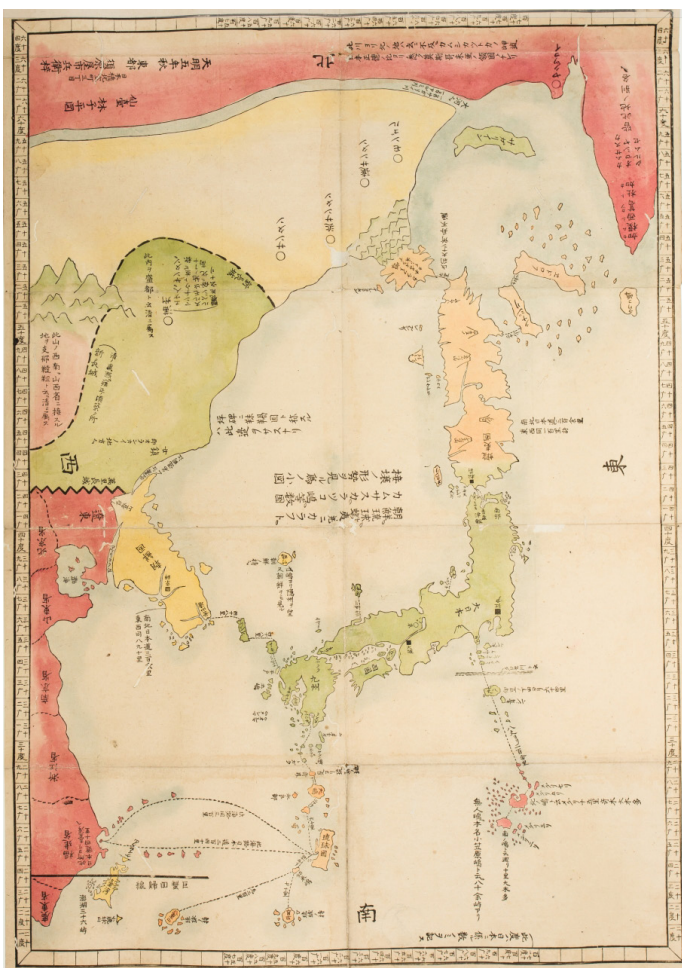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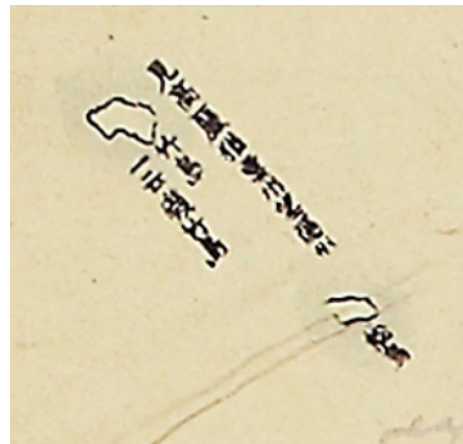


그림 73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1785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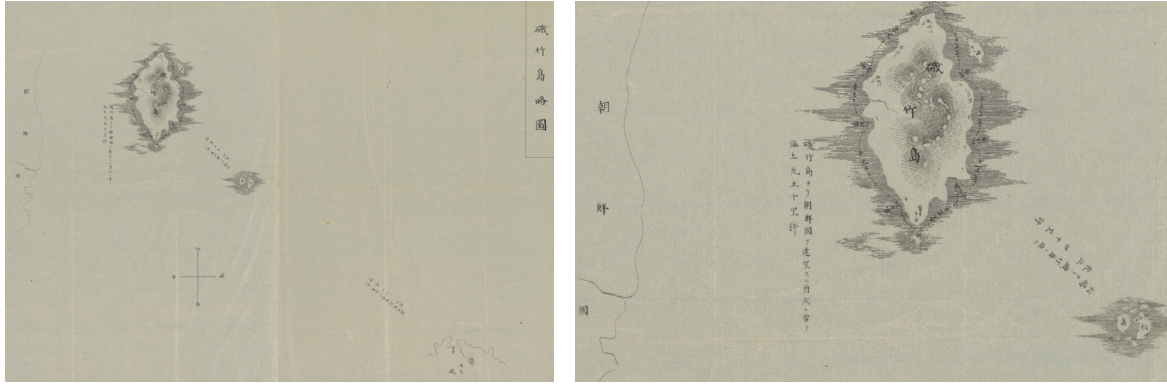


그림 74 「기죽도약도」(1877년)(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기되어 있다.

이 유형의 지도 가운데는 일본 전도류가 아닌 울릉도와 독도를 그린 지도도 있으며, 「죽도지회도(竹嶋之繪圖)」(1695년) 및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1877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기죽도약도」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인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을 기록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 부속된 지도여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지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지도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내무성(內務省)은 지적(地籍, 토지기록부) 편찬 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사항을 담은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질의(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를 작성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 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는데, 이를 『태정관지령』이라 한다. 이 질의서에 첨부된 지도인 「기죽도약도」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그려진 점 등을 통해 『태정관지령』에서 언급된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의 “일도(一島)”가 독도임을 알 수 있다.¹²

3) 아르곤노트섬을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한 지도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에서 생활하였던 독일인 의사이자 생물학자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는 본국으로 귀환한 후인 1840년에 일본 지도를 제작하였다. 지볼트는 당시 서구 해도상에 존재한 아르곤노트(Argonaute)섬을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인 다즐레(Dagelet)섬을 마쓰시마(松島)로 표기하였고, 이후 서구에서 작성된 일본 지도에서는 이러한 표기법이 표준이 되었다. 개항 이후 이들 지도가 일본에 유입되면서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 지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동판조선국전도(銅版朝鮮國全圖)」(1872년), 「조선전도」(1875년), 「조선여지전도」(1875년), 「장중일본전도(掌中日本全圖)」(1876년), 「대일본해륙전도(大日本海陸全圖)」 내 삽도(挿圖)인 「조선국전도」(1877년), 「청국여지전도(淸國輿地全圖)」(1880년), 「조선전도」(1882년), 「신찬조선여지전도(新撰朝鮮輿地全圖)」(1894년), 「실측조선전도(實測朝鮮全圖)」(1894년), 「조선여지도」(1894년) 등이 있다.

12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20,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88~91쪽.



그림 75 「동판조선국전도」(1872년)(출처: 독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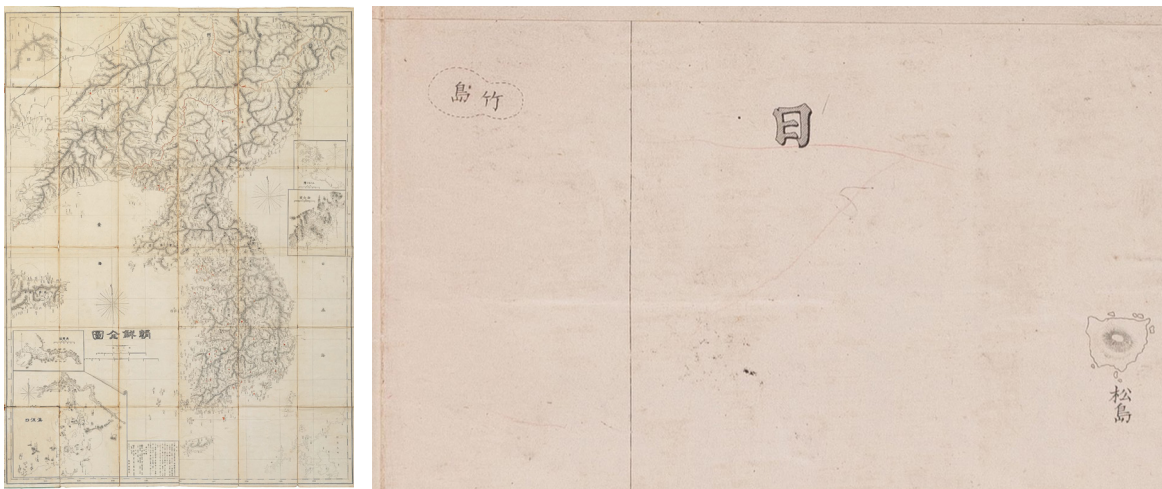


그림 76 「조선전도」(1875년)(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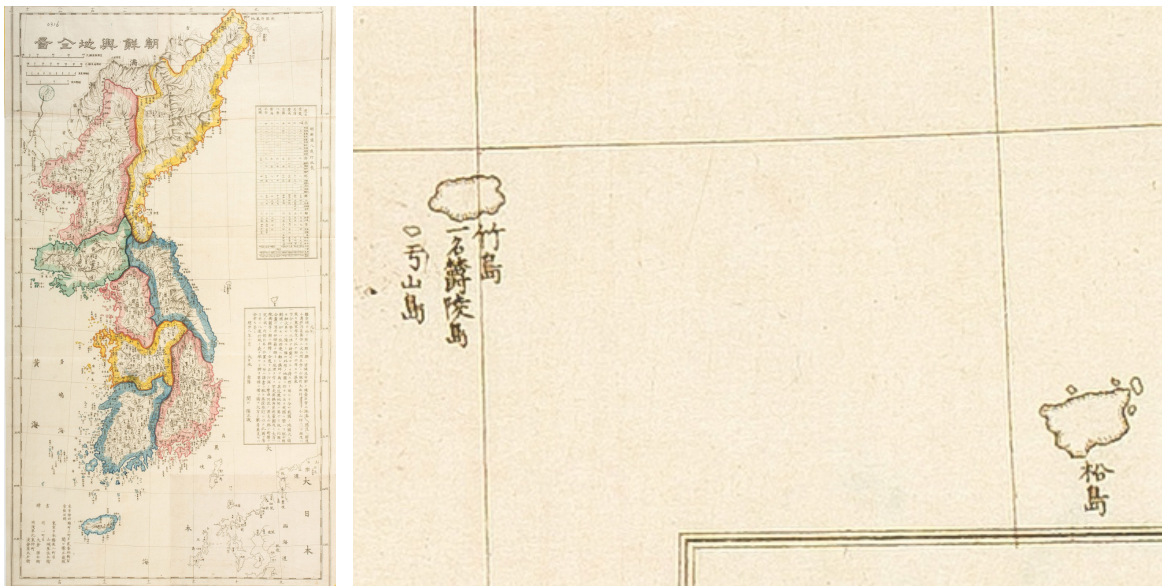


그림 77 「조선여지전도」(1875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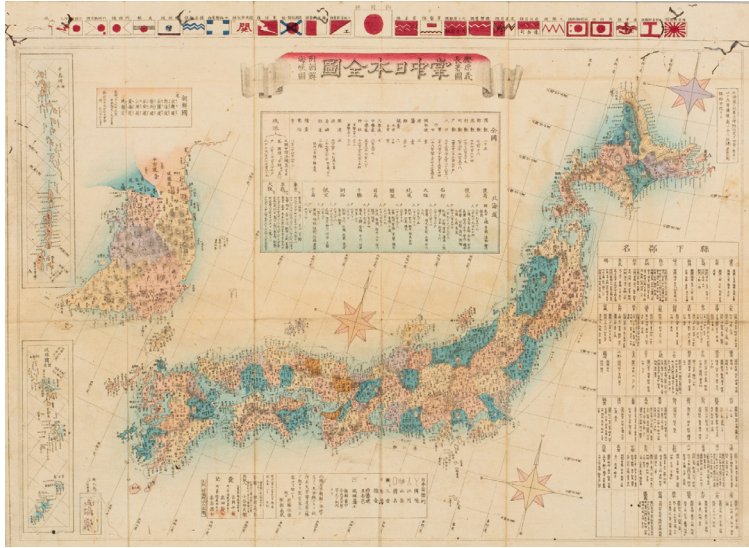


그림 78 「장중일본전도」(1876년)(출처: 국립해양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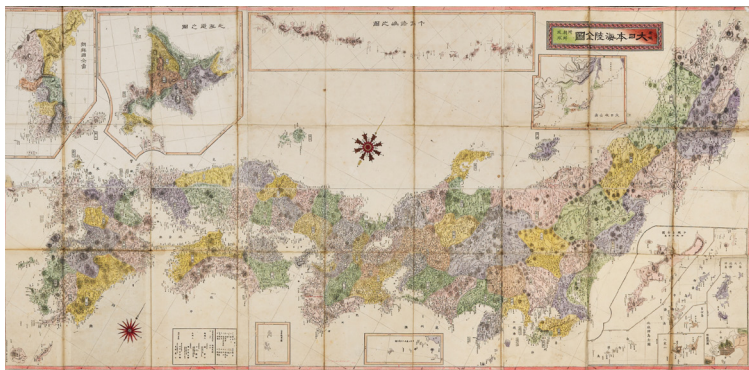


그림 79 「대일본해륙전도」 내 삽도인 「조선국전도」(1877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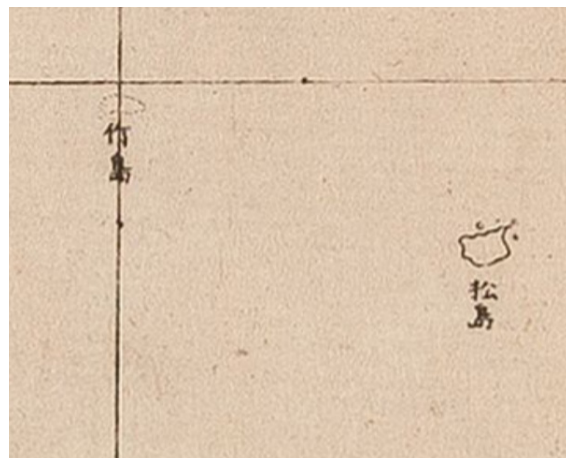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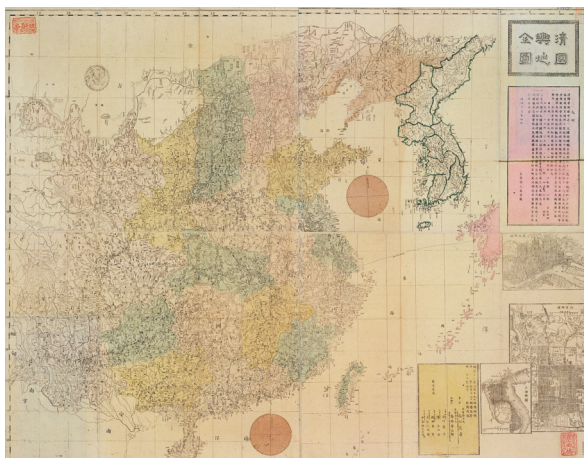


그림 80 「청국여지전도」(1880년)(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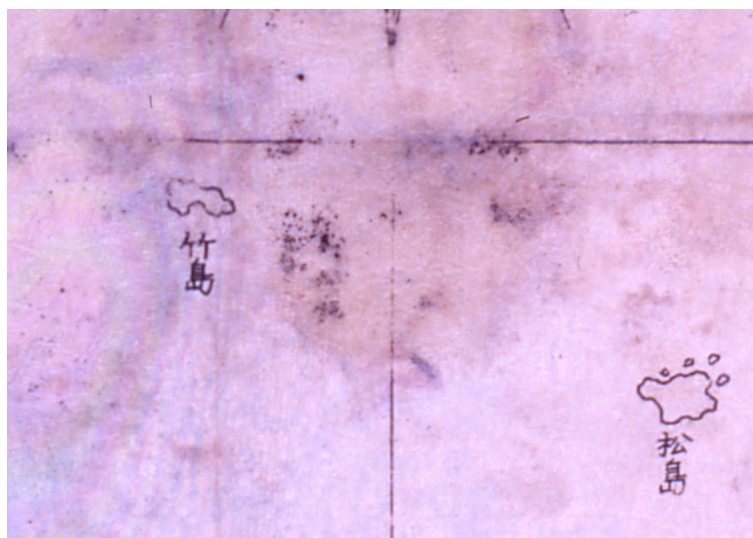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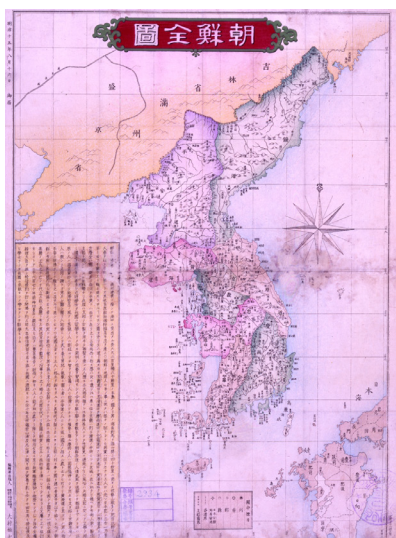


그림 81 「조선전도」(1882년)(출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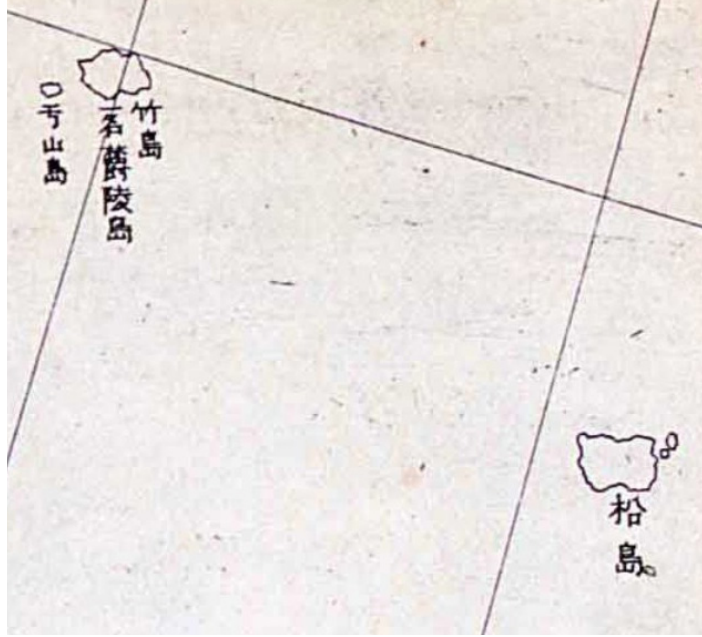


그림 82 「신찬조선여지전도」(1894년)(출처: 국립중앙도서관)



그림 83 「실측조선전도」(1894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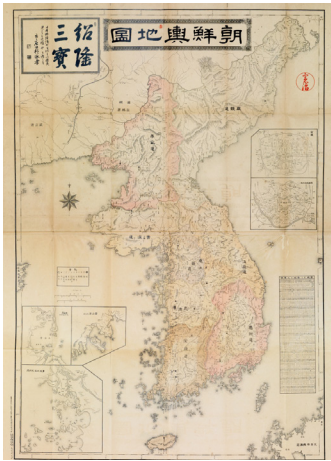


그림 84 「조선여지도」(1894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4)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한 지도

서구 제국들이 작성한 해도를 일본에서 번역하면서 아르고노트섬을 다케시마(竹島)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한 지도가 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대일본국연해약도(大日本國沿海略圖)」(1867년),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1876년) 등이 있다. 「대일본국연해약도」는 영국 해도를 참조하여 작성한 지도로 알려져 있으며, 독도에 '리엔 코우루토 록크'라 표기하였다. 1849년 프랑스 선박인 리앙쿠르(Liancourt)호가 독도를 발견하여 프랑스 해군 수로국에 보고한 이후, 서구 국가들의 공인 해도상에서 독도는 선박의 이름을 딴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되었다. 영국에서는 1855년 호넷(Hornet)호가 독도를 발견한 후, 해도상에 독도를 '호넷섬(Hornet Island)'이라고 기재하였다가 1860년대 이후 리앙쿠르 암초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러시아에서는 1854년 올리부차(Olivutsa)호가 독도를 발견한 뒤 독도의 동도를 메넬라이(Менелай, Menelai), 서도를 올리부차(Оливуца, Olivutsa)라 명명하였고, 해도상에 이같이 표기하였다. 「조선동해안도」는 러시아가 작성한 「조선동해안도」를 번역하여 제작한 지도로, 독도의 서도와 동도에 각각 올리부차(オリウツ), 메넬라이(メネラ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림 85 「대일본국연해약도」(1867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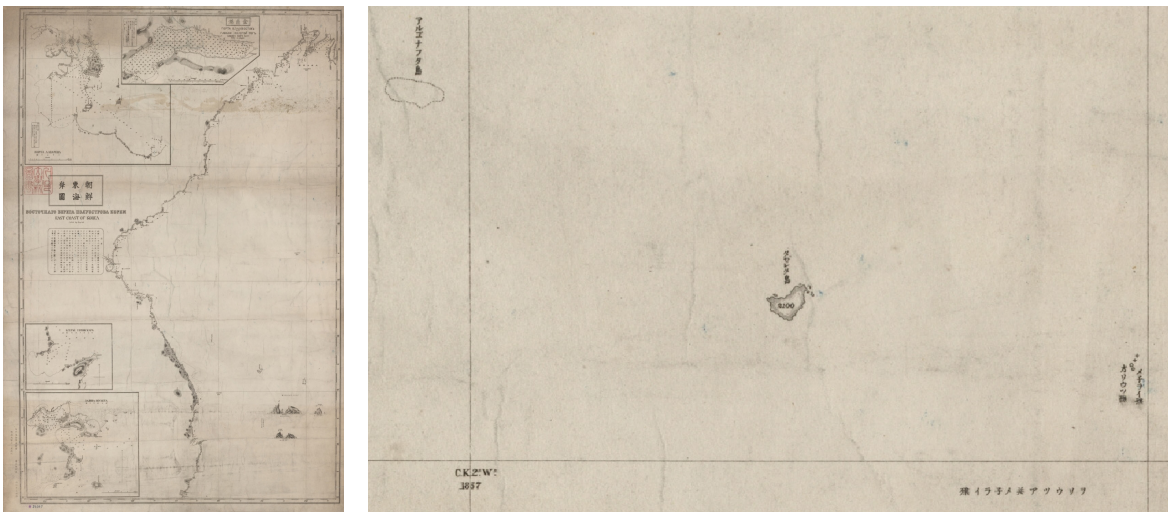


그림 86 「조선동해안도」(1876년)(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편 1876년에 작성된 「대일본해륙전도(大日本海陸全圖)」에서는 아르고노트섬이 완전히 사라지고, 울릉도에는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서도와 동도에는 각각 올리부차(オリウツ瀨)와 메넬라이(メネライ瀨)라고 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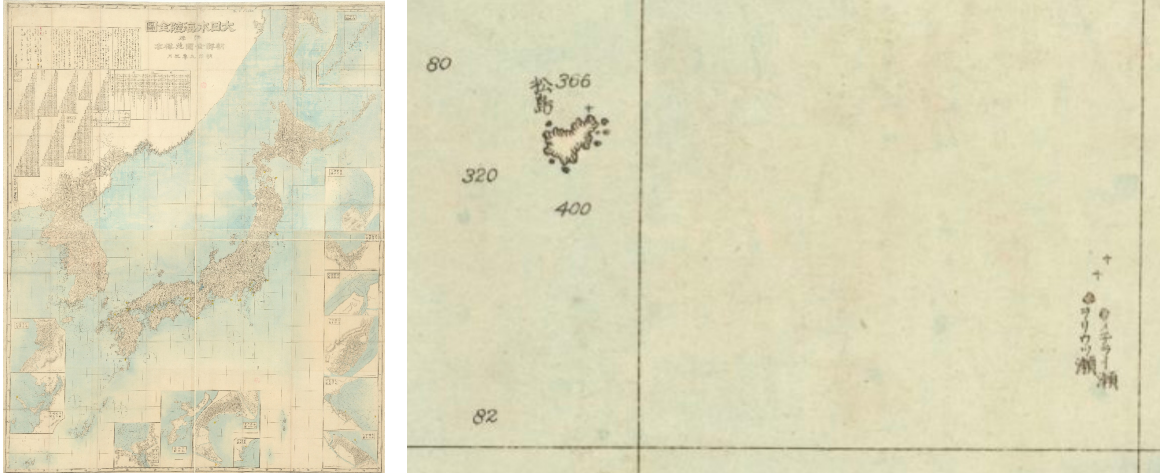


그림 87 「대일본해륙전도」(1876년)(출처: 프랑스 국립도서관)

5)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지도

일본 해군 수로국에서는 강화도조약 직후인 1876년부터 조선의 해도 작성을 위하여 남해안과 서해안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청일전쟁 직후인 1896년 일본 수로국에서는 그간 진행한 한반도 일원의 해안 측량 성과를 보여 주는 지도 「조선전안(朝鮮全岸)」(1896년)을 작성하였다. 이 해도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일본이 남해안 일부 지역과 평안북도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수로 조사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 해안과 함께 울릉도와 독도가 표현되어 있으며, 울릉도는 ‘鬱陵島(松島)’, 독도는 ‘리안코루도 암초(リアンコルド岩)’로 표기하였다. 이 지도는 10년 뒤인 1906년에 수정, 보완되어 발간되었는데, 이때는 지도에 울릉도만 남고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불법 편입하면서 공식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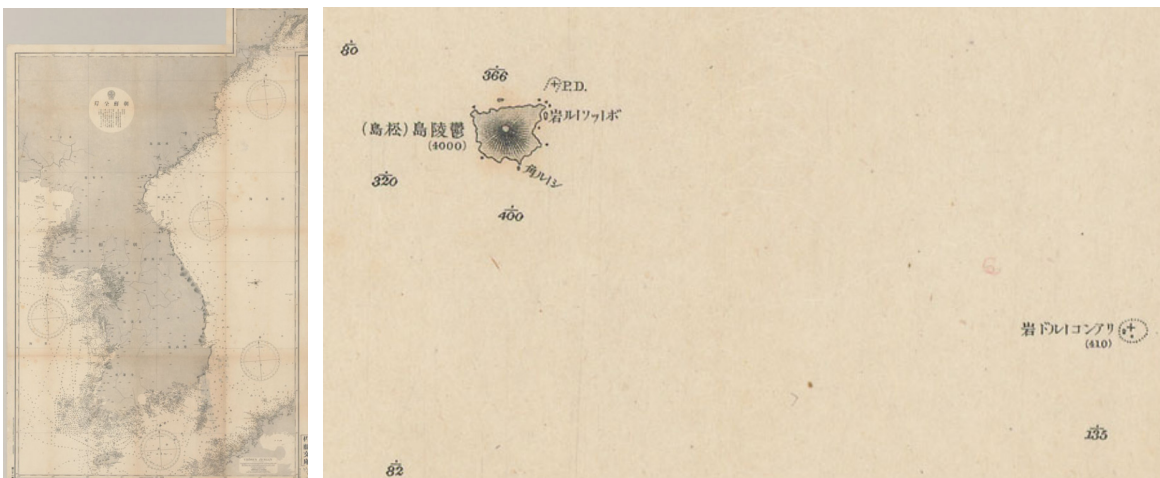


그림 88 「조선전안」(1896년)(출처: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도서관)



그림 89 「조선전안」(1906년)(출처: 일본 도호쿠대학교 도서관)

흥미로운 점은 이미 일본의 민간 지도에서는 1904년부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지칭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도로는 「극동전요지도(極東戰要地圖)」(1904년), 「일로관충전국면대지도(日露板衝全局面大地圖)」(1904년), 「한국전도」(1904년), 「한국전도」(1905년)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90 「극동전요지도」(1904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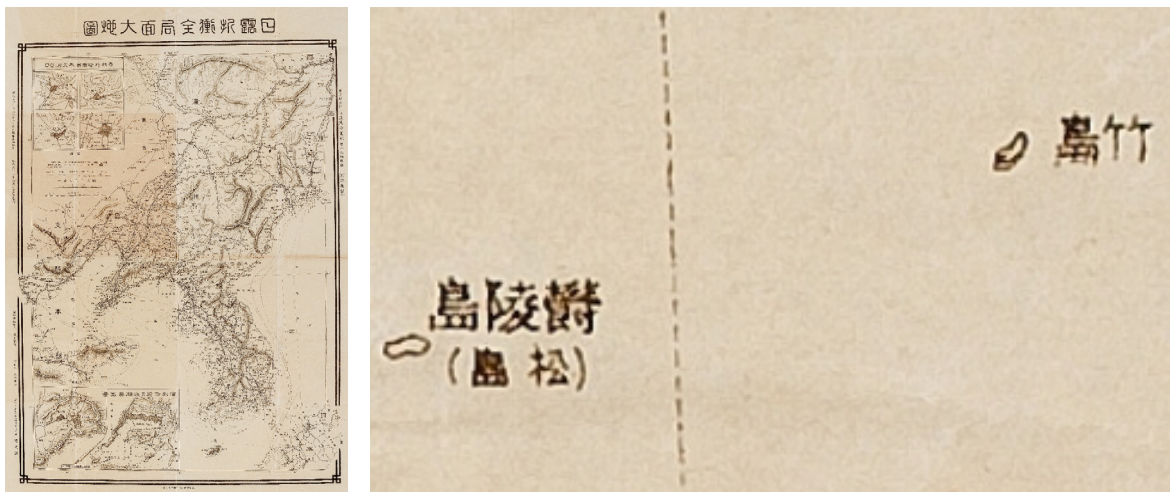


그림 91 「일로관충전국면대지도」(1904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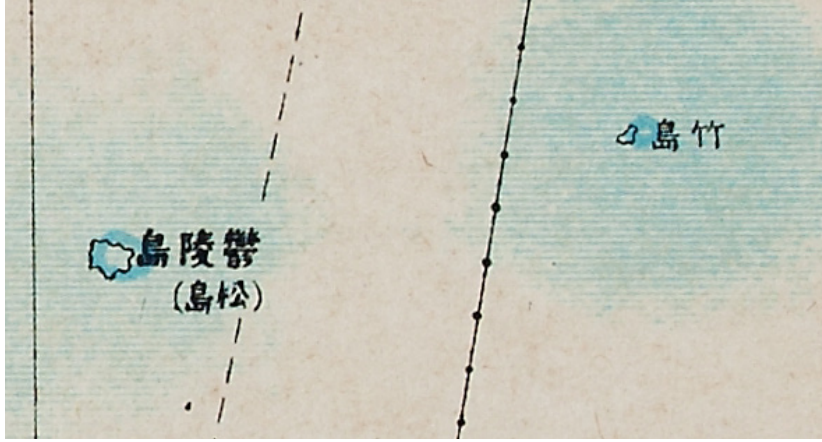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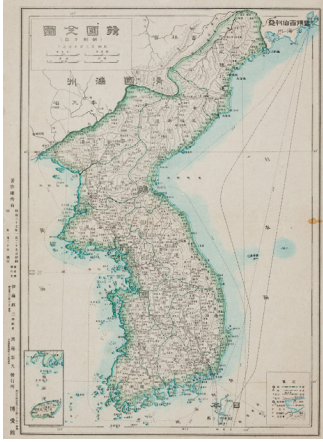


그림 92 「한국전도」(1904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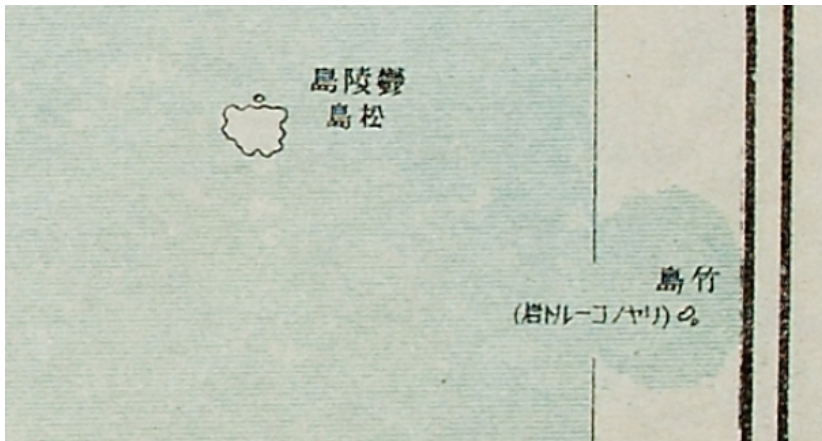


그림 93 「한국전도」(1905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6) 일본 영역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지도

19세기 말까지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그들의 영토를 표현한 지도에서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국가 공인 지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일본 내무성 지리국(地理局) 지지과(地誌課)에서 1881년에 작성한 「대일본국전도(大日本國全圖)」에는 독도가 존재하는 수역을 표현하지 않았다. 아울러 1899년에 작성된 「시마네현관내전도(島根縣管内全圖)」에도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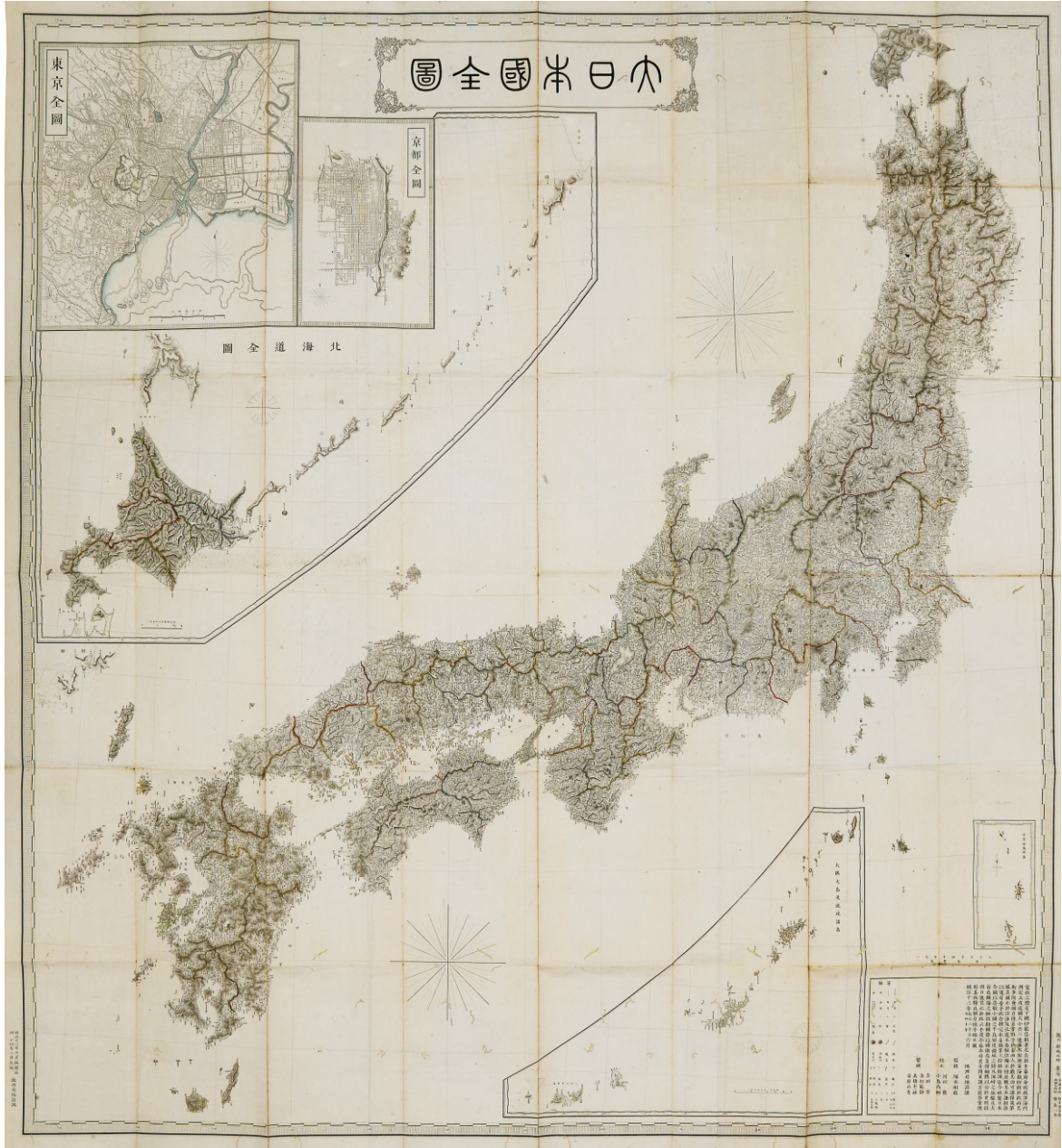


그림 94 「대일본국전도」(1881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95 「시마네현관내전도」(1899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5. 일본 고지도 속 동해

일본 고지도 속에 표기된 동해 수역 명칭에는 북해(北海), 조선해(朝鮮海), 일본해(日本海) 등이 있다. 그중 ‘북해’와 ‘조선해’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해 수역을 ‘북해’로 표기한 지도

심정보의 연구(2013)에 따르면, 1842년 이케다 토리(池田東籬)가 작성한 「월후국세견도(越後國細見圖)」, 1849년 마쓰우라 다케시로(松浦武四郎)가 작성한 「하이국연혁도(蝦夷國沿革圖)」 등 지방도에만 북해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그림 96 「월후국세견도」(1842년)(출처: 일본 쓰쿠바대학교 도서관)

2)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한 지도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의 『북사문략(北槎聞略)』에 수록된 「아세아전도(亞細亞全圖)」(1794년)는 일본 고지도에서 최초로 조선해(朝鮮海) 지명이 표기된 지도이다. 다이코쿠야 고다유(大黒屋光太夫) 등이 1782년 폭풍을 만나 감차카반도에 표착한 이래 10년간의 러시아에 머물다 일본에 귀국한 일이 있었다. 일본 막부의 의사였던 가쓰라가와 호슈는 그들의 체험과 견문을 바탕으로 1794년에 『북사문략』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는 그들의 여정, 러시아의 언어, 지명, 풍토, 지리, 역사, 산업, 교육 등이 기술되어 있으며, 그들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10장의 사본 및 번역 지도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황조여지전도(皇朝輿地全圖)」에는 러시아어로 '고려해(高麗海)'가 적혀 있고, 「아세아전도」에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조선해(朝鮮海)'가 표기되어 있다(심정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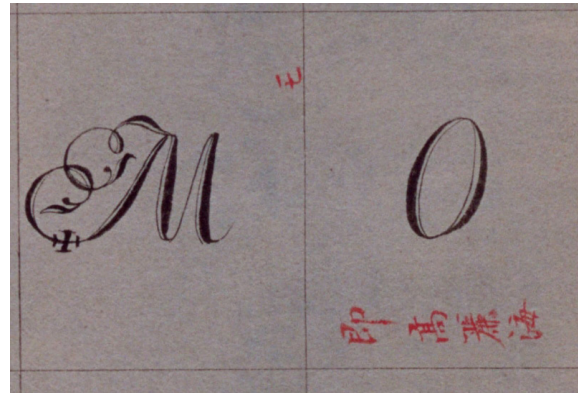


그림 97 『북사문략』 내 「황조여지전도」(1794년)(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그림 98 『북사문략』 내 「아세아전도」(1794년)(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한편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에서 제작된 지도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막부는 1807년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에게 서양 서적에 근거하여 세계 지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1809년에 「신전총계전도(新鑄總界全圖)」와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를 제작했고, 1810년에는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를 완성하였다.



그림 99 「일본변계약도」(1809년)(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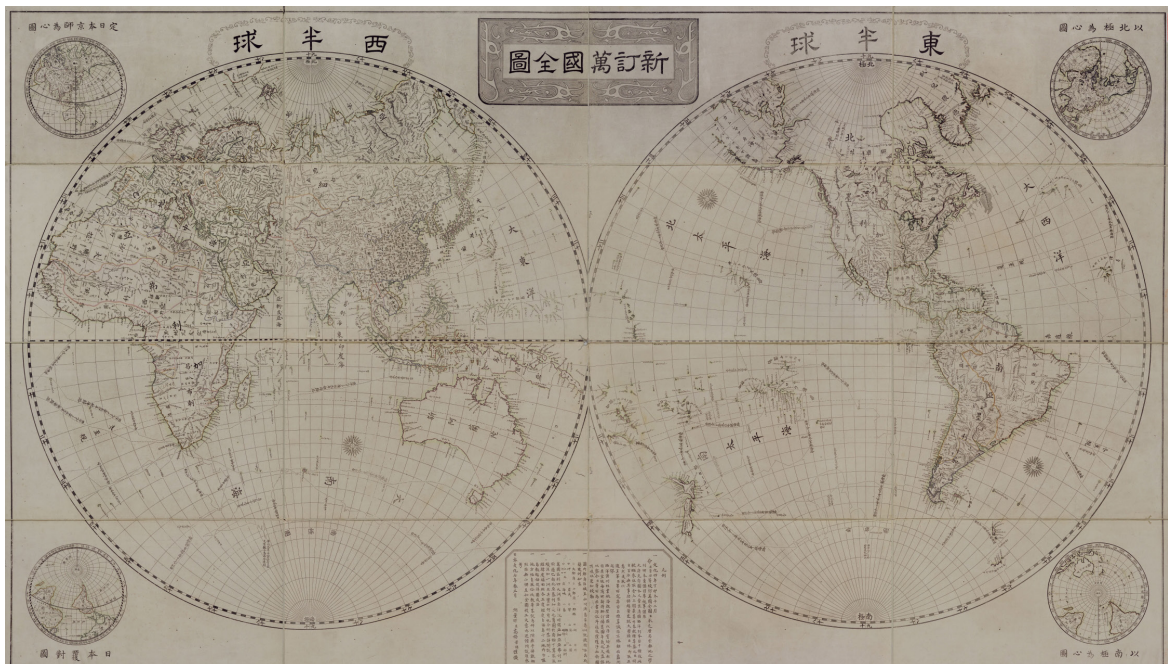


그림 100 「신정만국전도」(1810년)(출처: 일본 국립공문서관)

이 지도들의 영향을 받아 19세기 전반기에 작성된 지도 가운데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한 지도들이 다수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초지야 헤이베에(丁子屋平兵衛)의 「가영교정동서지구만국전도(嘉永校訂東西地球萬國全圖)」(1835년), 미쓰쿠리 쇼고(箕作省吾)의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1844년), 야스다 라이슈(安田雷州)의 「본방서북변경수륙약도(本邦西北邊境水陸略圖)」(1850년), 스키타 겐탄(杉田玄端)의 「양반구도(兩半球圖)」(1851년), 나카지마 스이도(中島翠堂)의 「지구만국방도(地球萬國方圖)」(1853년), 구도 도헤이(工藤東平)의 「대일본연해요강전도(大日本沿海要疆全圖)」(1854년) 등이 있다(심정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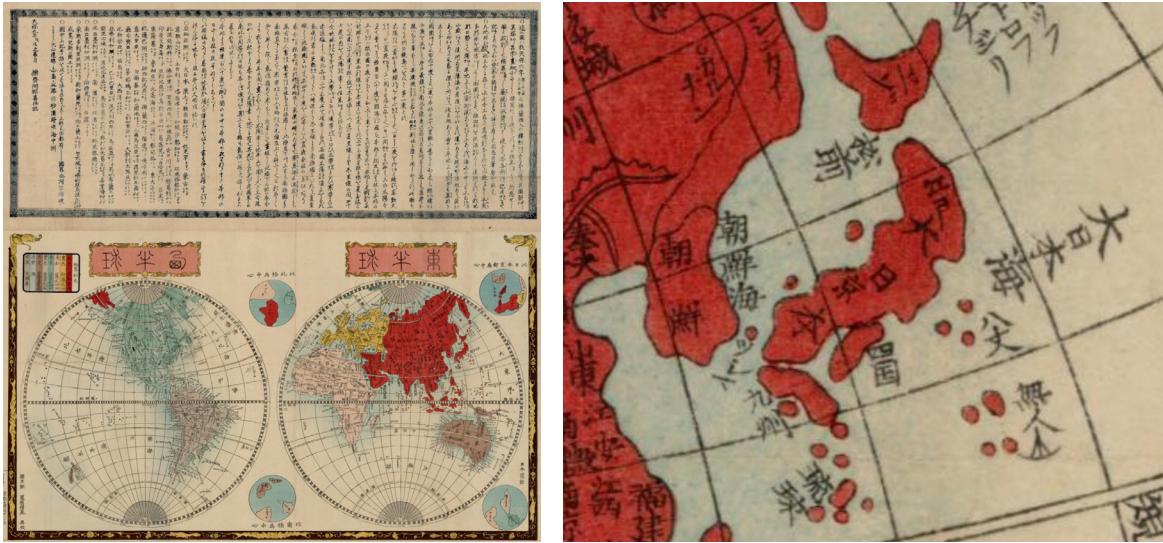


그림 101 「가영교정동서지구만국전도」(1835년)(출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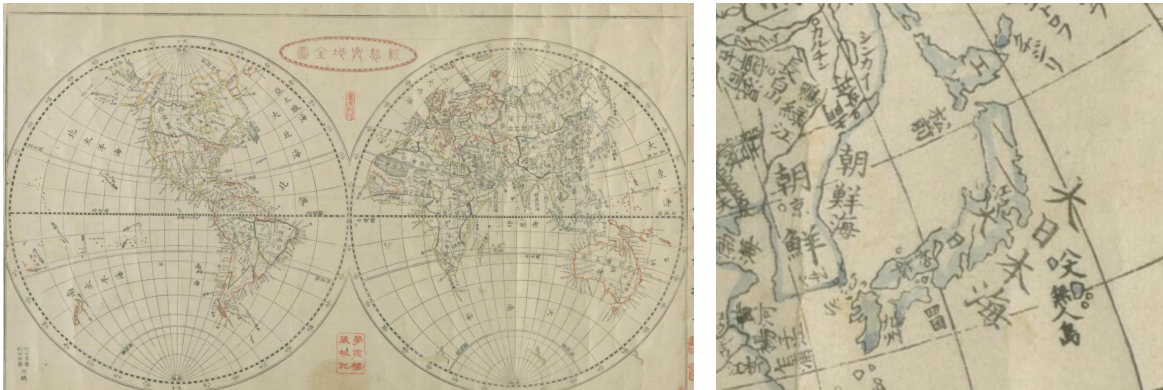


그림 102 「신제여지전도」(1844년)(출처: 일본 국회도서관)



그림 103 「본방서북변경수륙약도」(1850년)(출처: 일본 고서적상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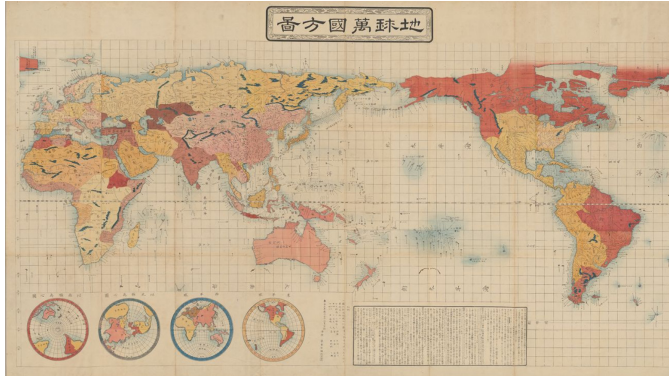


그림 104 「지구만국방도」(1853년)(출처: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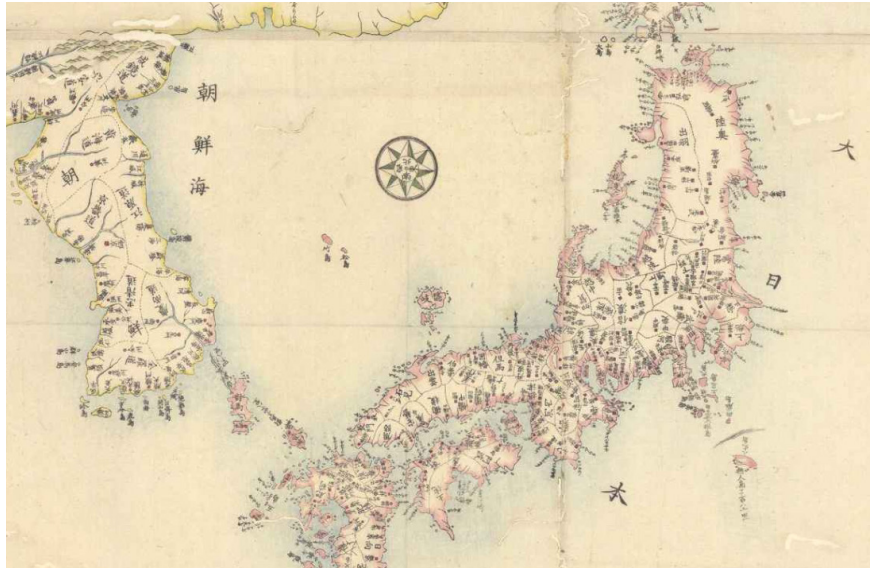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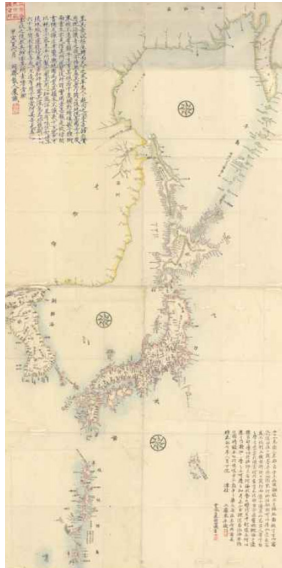


그림 105 「대일본연해요강전도」(1854년)(출처: 일본 삿포로 시립도서관)

3) 동해 수역을 병기한 지도

19세기 중반에서 19세기 말까지 일본 지도상에 동해 수역을 표기하는 방식은 ‘조선해’와 ‘일본해/북대양/일본 서해’를 병기하는 방식, ‘일본해’만 표기하는 방식 등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두 지명이 병기된 지도에는 후지와라 아사코(藤原朝呂)의 「대일본총계약도(大日本總界略圖)」(1865년), 하시모토 교큐란사이(橋本玉蘭齋)의 「관허대일본사신전도(官許大日本四神全圖)」(1868년), 미야자키 류조(宮崎柳城)의 「만국신도(萬國新圖)」(1874년), 스즈키 시게유키(鈴木茂行)의 「일청한삼국전도(日清韓三國全圖)」(1894년) 등이 있다(심정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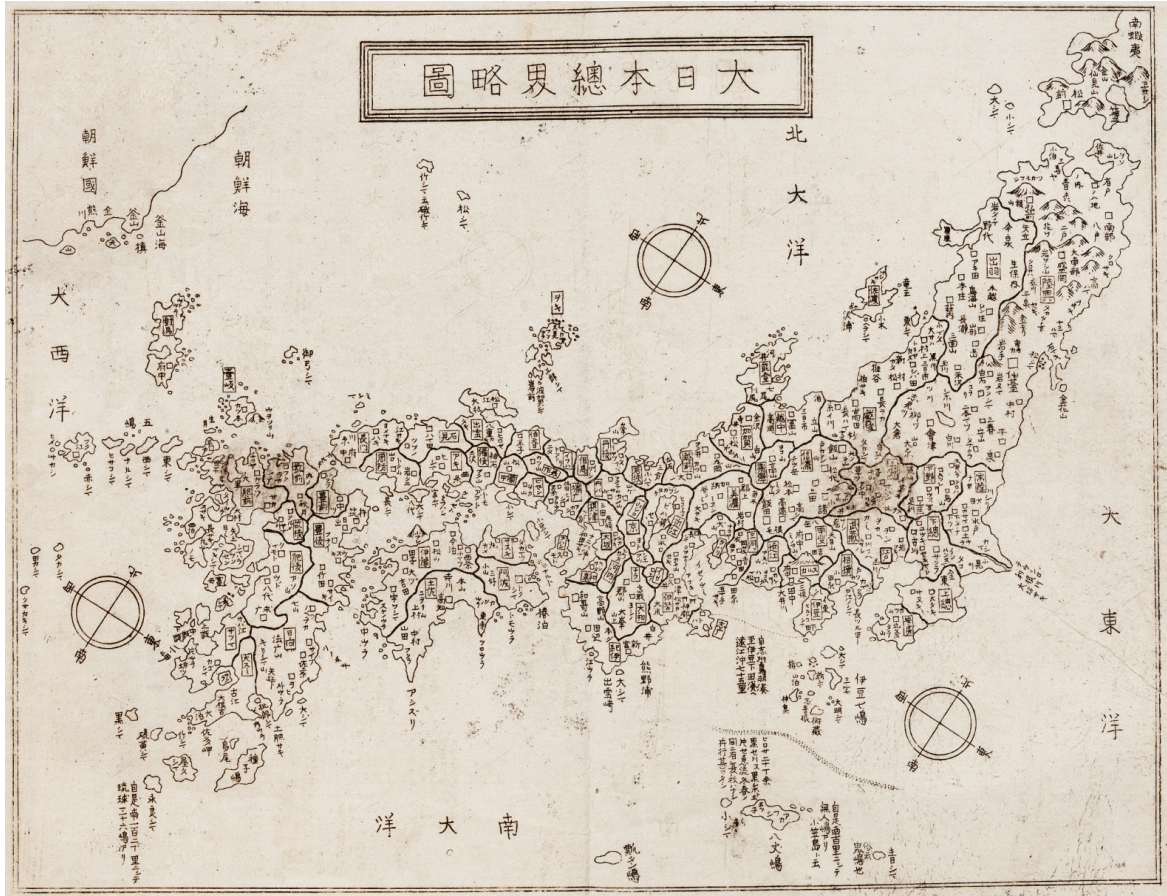


그림 106 「대일본총계약도」(1865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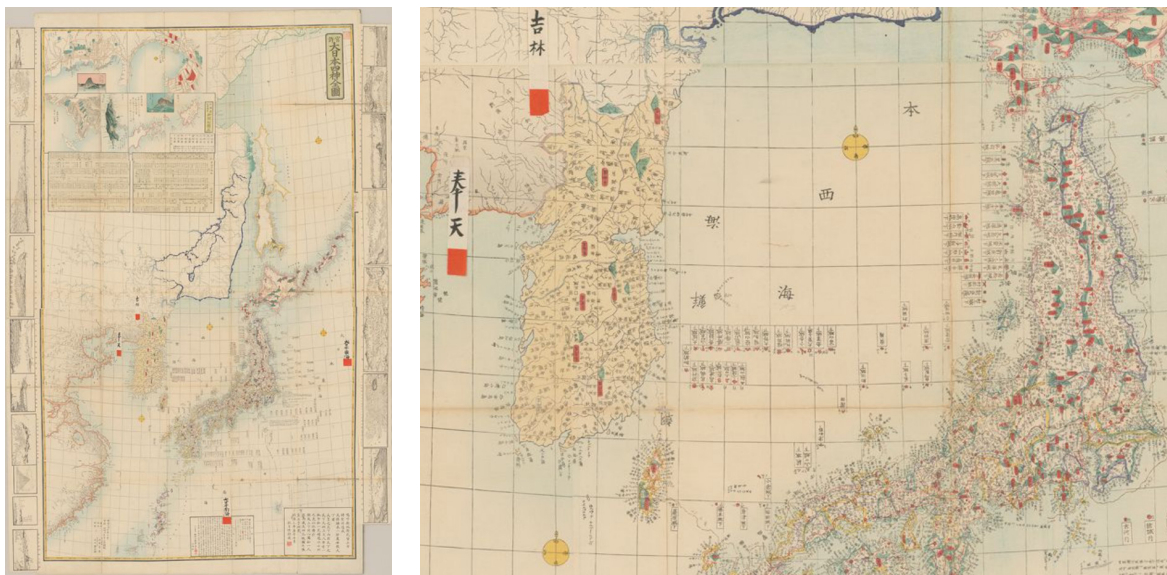


그림 107 「관해대일본사신전도」(1868년)(출처: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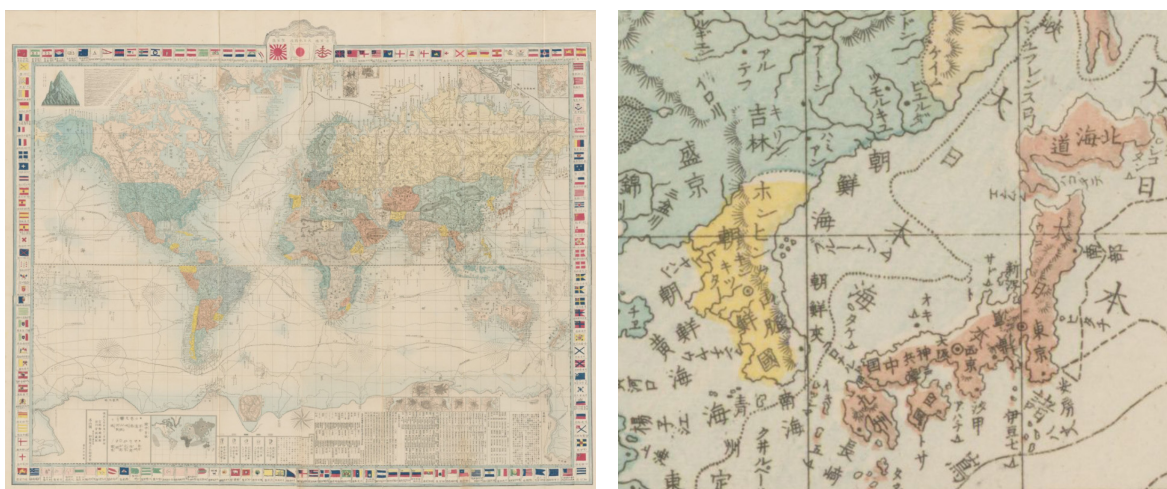


그림 108 「만국신도」(1874년)(출처: 일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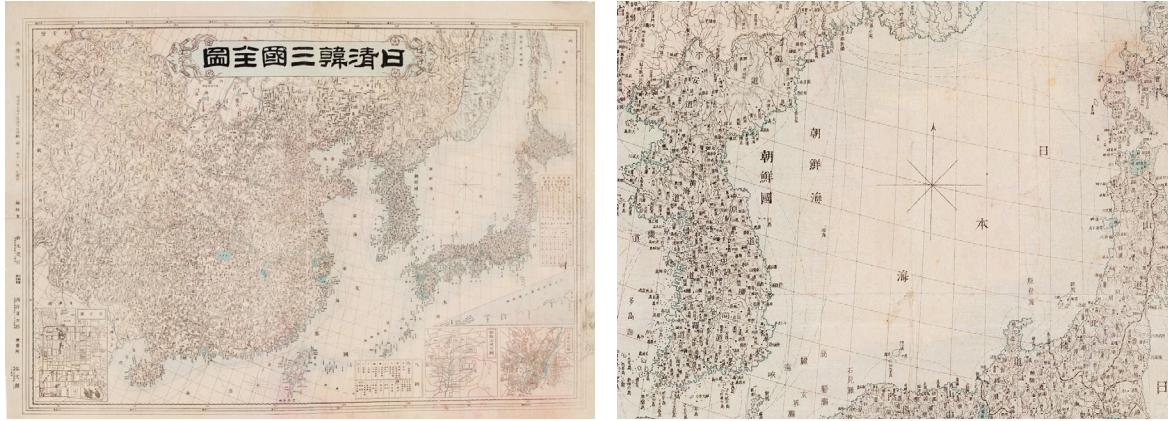


그림 109 「일청한삼국전도」(1894년)(출처: 동북아역사재단)

6. 결론

이 글에서는 독도 영유권 및 동해 표기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한국 및 일본 고지도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고지도 속 독도의 경우 ‘우산도’가 표기된 지도류를 주로 살펴보고, 동해 표기의 경우 바다와 육지에 ‘동해’가 표기된 지도들을 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본 고지도 속 독도의 경우 독도인 우산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류를 주로 살펴보고, 동해 표기의 경우 ‘조선해’ 등 일본해가 아닌 명칭이 표기된 지도류 위주로 파악하였다.

전근대 시기 및 개화기에 제작된 한국과 일본의 고지도가 상당수 존재하며,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도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지도 또한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고지도를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국내외에 소장된 한국과 일본 고지도를 파악하고 이미지를 수집할 예정이다.

1. 단행본 및 도록

고윤정·김경도·정명훈, 2015, 『독도박물관 소장 자료로 보는 한국땅 독도』, 독도박물관.

고인철·김정란·장지은·박찬홍·송지향, 2012, 『독도문헌정보총목록』, 국회도서관.

구보이 노리오 저, 이장우 역, 2017, 『지도 해설 - 독도의 진실』, 부산민족학교 독도학당(久保井規夫, 2014, 『図説 竹島 = 独島 問題の解決 竹島 = 独島は、領土問題でなく歴史問題である』, 柘植書房新社).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고문헌편』.

김기혁·오상학·이기봉, 2007, 『울릉도·독도 고지도첩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200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독도관련자료 해제집: 고문헌편』, 국립중앙도서관.

독도사전편찬위원회 편, 2019, 『독도사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20,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심정보, 2017, 『불편한 동해와 일본해』, 밥북.

우리문화가꾸기회, 2016, 『일본고지도선집(日本古地圖選集) II』, 세가.

이기봉, 2020, 『우산도는 왜 독도인가』, 소수출판사.

이돈수·심정보·한상호, 2015, 『지도박물관 옛 지도집』,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_____, 2018, 『지도박물관 옛 지도집(제2권)』,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이상균, 2016, 『19세기 일본 지도에 독도는 없다』, 북스타.

이상태, 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경세원.

이진명, 1998,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_____, 2005, 『(개정증보판)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 삼인.

정인철, 2015, 『한반도, 서양 고지도로 만나다』, 푸른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편, 2011, 『독도사전』, 푸른길.

호사카 유지, 2005,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자음과모음.

2. 논문

김기혁, 2006, 「울릉도 고지도 유형연구」, 『대한지리학회 2006년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_____, 2007,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_____, 2018, 「한국 고지도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제」, 『한국고지도연구』 제10권 제2호.

김도현, 2013, 「삼척 관련 지리지와 고지도를 통해 본 울릉도와 독도」, 『이사부와 동해』 제6권 제6호.

김문길, 2001, 「일본의 고지도로 본 독도문제」, 『일본학보』 제49권.

_____, 2010, 「고지도, 고문서를 통해 본 독도와 안용복 박어둔의 업적」, 『외국어연구』 제24권.

김종근, 2020a,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권 1호, 133~162쪽.

_____, 2020b, 「미국 해군 장교 펠란이 제작한 「조선전도(Carte de la Corée)」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12권 2호, 133~162쪽.

김호동, 2010, 「일제의 한국침략에 따른 '일본해' 명칭의 의미 변화: 일본 고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2권 2호, 35~67쪽.

_____, 2013, 「한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5호.

김화경, 2008, 「특집: 『죽도문제(竹島問題)에 관한 조사연구(調査研究) 최종보고서(最終報告書)』 비판: 한국의 고지도에 나타난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 - 후나스기 리키노부의 한국 고지도 분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55권.

_____, 2010, 「일본의 독도 인식에 관한 연구: 「일로칭한 명세신도」에 그려진 국경과 독도의 귀속을 중심으로 한 고찰」, 『한국지도학회지』 제10권 제1호.

남영우, 2016, 「하야시 시헤이의 생애와 업적: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과 부도의 독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11권.

_____, 2019, 「클라프로트(Klaproth)의 프랑스 번역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 간행에 기여한 신조[新藏]의 역할」, 『영토해양연구』 제17권 제17호.

남영우·김부성, 2009, 「독일 지도학자 Siebold의 생애와 업적」, 『한국지도학회지』 제9호 제1권.

서인원, 2017, 「일본 육지측량부 지도제작과 독도영유권 인식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제14권.

_____, 2020, 「북한의 독도와 동해 관련 고지도 자료 연구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28권 제28호.

_____, 2020, 「일본 막부 편찬 국회도(國繪圖)에 표현된 국경과 독도영유권 인식」, 『영토해양연구』 제20권 제20호.

- 심정보, 2013, 「근대 일본과 한국의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동해 해역의 지명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제25권 제2호, 37~55쪽.
- _____, 2013,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동해 해역의 지명」, 『한국고지도연구』 제5권 제2호, 19~31쪽.
- 심정보·정인철, 2011, 「세계 고지도의 동해 해역에 나타난 지명 병기의 사례 연구」, 『영토해양연구』 2권, 6~29쪽.
- 양보경, 2004, 「조선시대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지명」,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89~111쪽.
- _____, 2005, 「울릉도,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한국 고지도로 본 울릉도와 독도」, 『북방사논총』 제7호.
- 오상학, 2006,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의 변화」, 『문화역사지리』 제18권 제1호.
- 우루시자키 히데유키, 2013, 「태정관지령 부속 지도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발견 경위와 그 의의」,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4호.
- 이명희, 2013, 「중국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5호.
- 이상균, 2015, 「세계지도 제작에 반영된 19세기 일본의 울릉도·독도 인식」, 『문화역사지리』 제27권 제1호.
- _____, 2017, 「시볼트의 「한국전도」 속 독도 명칭이 독도영유권 논거에 주는 함의」, 『한국지도학회지』 제17권 제2호.
- _____, 2019, 「17~19세기 조선의 독도 인식과 지도표현의 변천사」, 『한국지도학회지』 제19권 제2호.
- 이상태, 2009,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한국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 _____, 2011,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0호.
- _____, 2011, 「고지도에 나타난 삼척과 우산국」, 『이사부와 동해』 제3권 제3호.
- _____, 2013, 「일본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 영유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5호.
- _____, 2014, 「고지도를 통해 본 독도의 영유권」, 『이사부와 동해』 제7권 제7호.
- 이혜은·이기봉, 2020, 「영국국립도서관 소장 한국 고지도 연구」, 『한국고지도연구』 제12권 제1호.
- 정태만, 2017, 「에도시대 이후 일본의 공적 지도에 나타난 독도 영유권」,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22호.
- 최선웅, 2018,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지도학적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제18권 제3호.
- 최재영·이상균, 2018, 「개정일본여지도정전도의 제작 배경과 독도영유권적 가치」, 『한국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 최장근, 2012, 「고지도상의 ‘우산도’ 명칭에 관한 연구: ‘석도=독도’ 규명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제36권.
- _____, 2014, 「일본 고지도 고문헌상의 ‘우산도=석도=독도’ 부정에 대한 비판」, 『일본문화학보』 제62권.
- 한철호, 2014, 「일본 수로부 간행의 수로지와 해도에 나타난 독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7호.
- _____, 2015, 「일본 수로부의 「조선전안」 간행·개정 및 활용과 독도 인식」, 『한국사연구』 제169호.
- _____, 2016, 「일본 농상무성의 「日本帝國全圖」 편찬과 독도 인식」, 『한국근대사연구』 제79권.
- 현대송, 2009, 「일본 고지도로 본 일본의 독도 인식」, 『2009 지해해양학술상 논문 수상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호사카 유지, 2005, 「일본·프랑스 고지도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영유」, 『영남대학교 독도연구』 제1호.
- _____, 2005, 「일본의 관인 고지도와 ‘울릉도 외도(外圖)’가 증명하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일어일문학연구』 제55권 제2호.
- _____, 2005, 「일본의 지도와 기록을 통해 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북방사논총』 제7호.
- _____, 2006, 「임자평도(林子平圖)와 독도(獨島)」, 『일어일문학연구』 제58권 제2호.
- _____, 2008, 「삼국통람여지도정전도(三國通覽輿地路程全圖)와 이노도(伊能圖) 속의 독도」, 『일본문화연구』 제28호.
- _____, 2009, 「독도 산봉우리를 표시한 우산도가 그려진 조선지도」, 『일본문화연구』 제32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I.

한국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 인식의 변천

오상학

(제주대학교)

이 글은 『한국고지도연구』 14권 제2호(2022년)에 수록된 필자의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역사는 삼국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요동성 지도, 『삼국사기』의 기록들은 일찍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가 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전통 시대 지도는 국가 통치의 기본 자료가 되기에 국가 기관에서는 지도를 제작하여 국토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지도는 군사작전의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도 제작의 전통은 고려 왕조를 거쳐 조선왕조로 이어졌는데, 조선 초기부터 지도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의 건국 초기인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세계 지도가 국가적 사업으로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당시 제작된 세계 지도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지도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중화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으면서도 유럽, 아프리카 등 미지의 세계까지 폭넓게 수용하여 당시의 개방적인 대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지도에 수록된 한반도의 형태는 고려 시대의 전도를 계승한 것으로, 남부 지방의 윤곽은 조선 시대의 전도와 큰 차이가 없다.

15세기에는 세계 지도 제작과 함께 국토 측량을 기초로 한 조선 전도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세종 때는 각 군현 사이의 거리 측정이 이루어졌고 백두산, 마니산, 한라산의 위도 측정 등을 통해 보다 과학적인 지도 제작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정척(鄭陟, 1390~1475)은 1451년 함경도와 평안도에 해당하는 양계(兩界) 지방 지도를 제작하였고, 1463년(세조 9)에는 양성지(梁誠之, 1415~1482)와 함께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완성하였다.

「동국지도」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나 사본 또는 같은 유형의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들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국보 제248호)는 그중 하나이다.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한반도 지도에 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流路)가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고 지도의 내용도 자세한 편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거의 동서로 직선에 가까워서 두 강 유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유형은 1750년대에 정상기(鄭尙驥, 1678~1752)가 제작한 지도첩 『동국지도(東國地圖)』가 출현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16세기에는 국가적 사업으로 지리지가 편찬되었는데, 중국의 지리책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의 체제를 모방하여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대표적이다. 이 책에는 지지를 보완하는 『동람도(東覽圖)』라는 부도(附圖)가 수록되어 있는데, 지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소략하다. 지지에 이미 많은 내용이 지역별로 수록되어 있기에 지도에서는 단지 지역의 개략적인 모습만 보여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동람도』의 「팔도총도(八道總圖)」에는 사전(祀典)에 등재된 악(嶽), 독(瀆), 해(海)와 명산대천(名山大川) 등을 표시하였고, 팔도의 도별 지도에는 주현의 진산(鎭山)과 사지사도(四至四到)만을 표시하였다. 국토의 산천 파악이 국방과 같은 실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한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 이념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는 조선 후기 지도사에서 분수령이 되는 정상기의 지도첩 『동국지도』가 제작되었다.¹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창적인 축척을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의 지도와 비교하면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실제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안선의 윤곽도 더 정확해졌다. 지도의 내용 면에서도 주요 교통로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봉수(烽燧)의 표시가 자세하게 나타

1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오상학, 1994,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제작배경과 사본(寫本)들의 계보(系譜)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24권, 133~155쪽.

나 있는 등 지도에 실린 정보의 양이 증가하였다. 『동국지도』는 이후 관청이나 민간에서 널리 필사되어 조선 후기 대축척 전도 제작의 흐름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전도 제작의 흐름은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에 이르러 완결되었다. 김정호는 1834년에 당시까지 축적된 전도 제작의 성과를 기초로 『청구도(靑邱圖)』를 만들었다. 이 지도책은 건(乾)·곤(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건 권은 홀수 층이고 곤 권은 짝수 층으로, 건·곤을 상하로 잇대면 두 층을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김정호는 1861년 조선 지도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대동여지도』는 『청구도』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지만 그 형식과 내용을 혁신하였다. 『청구도』가 책의 형태로 제작된 것에 비해 『대동여지도』는 전국을 22층으로 나누고 각 층을 각각 접어서 22개의 지도첩으로 만들었다. 각 첩은 자유롭게 펼쳐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몇 첩을 연결하여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표현 기법 측면에서는 산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산천분합의 원리가 반영되었고, 인문 요소의 표현에는 각종 기호를 사용하였다. 특히 도로망에는 10리마다 표시를 하여 지역 간의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아울러 『대동여지도』의 모습과 내용이 축소된 목판본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가 만들어져 대중적으로 이용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조선 시대 전도 제작의 흐름을 바탕으로 조선 전도에 표현된 국토 인식²의 변천을 고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³ 현존하는 조선 시대 전도를 시기에 따라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뒤에 각 유형의 지도에서 표현된 국토 인식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한반도의 윤곽과 이미지의 변화, 산지와 하천의 인식, 도서 지역을 포함한 해역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2. 조선 전기 전도의 국토 인식

1)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 유형

우리나라 국토를 그린 지도는 삼국 시대 이래로 활발하게 제작되었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전체 한반도의 윤곽을 사실에 가깝게 그려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첨(李瞻, 1345~1405)의 「삼국도후서(三國圖後序)」에 수록된 한반도의 산천과 군현 경계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고려도(高麗圖)」의 존재가 이를 입증한다.⁵

2 여기서 사용한 '국토 인식'이라는 용어는 국토에 대한 포괄적인 사고로 이미지, 즉 상(像)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국토에 대한 관점과 상(像)을 지칭하는 '국토관'이라는 용어와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 국토 인식은 개인의 독창적 사고에서 창조되지 않고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이것이 곧 지도에 표현된다. 따라서 지도에 표현된 다양한 사상(事象)을 검토하고 해석하면 당대의 국토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3 전통적인 국토관, 국토 인식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우선, 2022, 「18세기 실학적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親緣性: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4권 1호, 5~30쪽; 김의원, 1983, 「선인(先人)들의 국토관(國土觀)」, 『행정문제논집』 4권, 73~109쪽; 도도로키 히로시, 2020, 「조선시대 국토관(國土觀)과 통신사(通信使)의 일본 심상지리(心象地理)」, 『조선통신사연구』 제29호, 101~124쪽;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배우성, 2000, 「조선후기(朝鮮後期) 실학자(實學者)들의 국토관(國土觀)과 지역인식(地域認識)」, 『한국사연구』 108호, 79~114쪽.

4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조선 전도는 아니지만 조선 초기의 국토 인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도이기에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개화기의 「조선산도(朝鮮山圖)」나 「조선수도(朝鮮水圖)」, 원영의(元泳義)의 『조선산수도경(朝鮮山水圖經)』은 엄밀하게 말해 전도 유형은 아니지만 산천에 대한 인식이 잘 표현되어 있어서 주요 분석 자료로 선택했다.

5 『동문선(東文選)』 권92, 서(序), 「삼국도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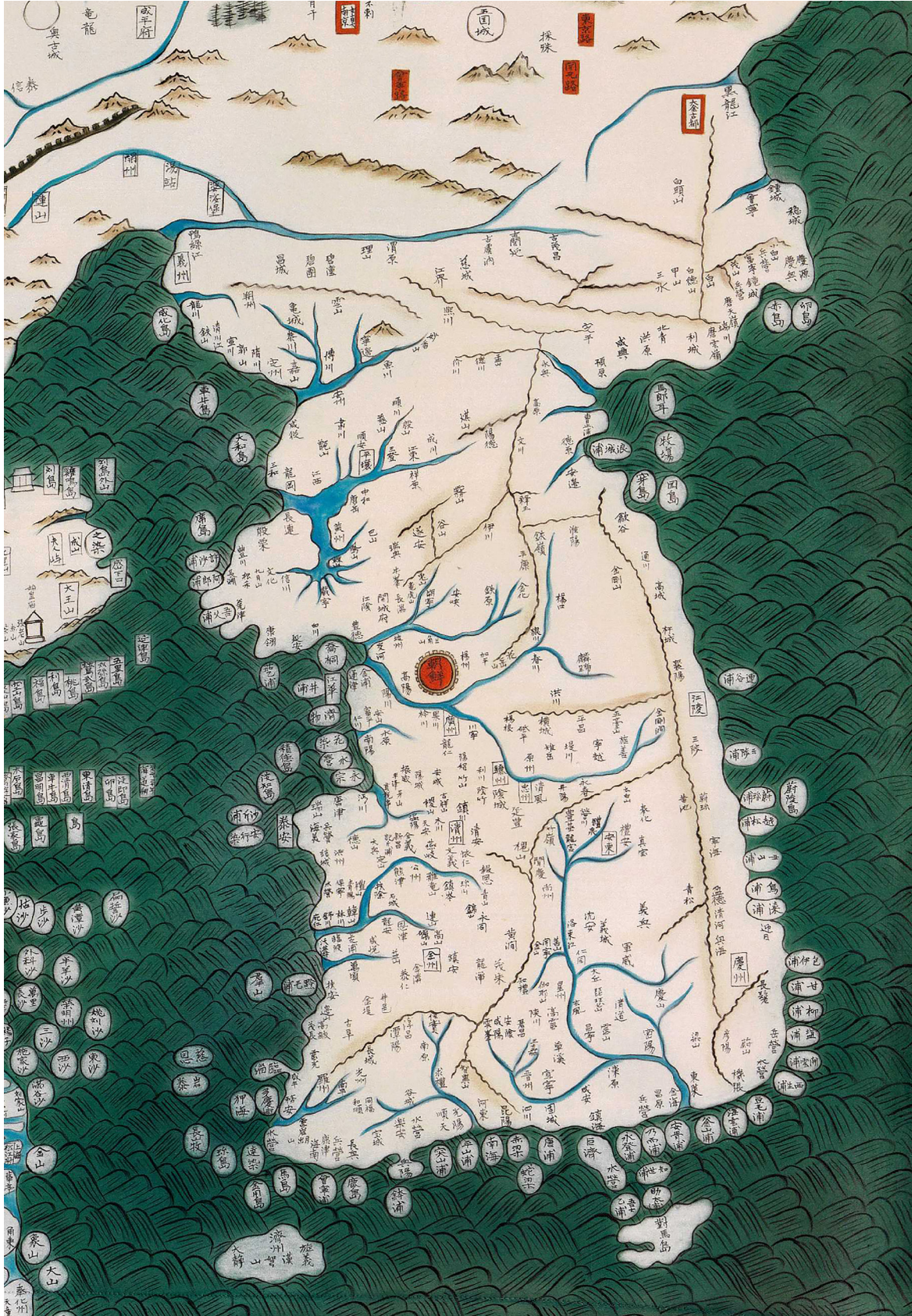


그림 1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한반도 부분(원본 1402년, 일본 류코쿠대본의 모사본)(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표현된 조선 부분은 고려 시대의 지도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인 모습은 실제 한반도 모습에 근접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지도 가운데 조선 초기 이회(李薈)가 제작한 「팔도지도(八道地圖)」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⁶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제작 실무를 이회가 담당했기에 여기 그려진 조선 지도는 이회의 「팔도지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1402년(태종 2) 5월에는 의정부에서 본국지도(本國地圖) 즉, 조선의 전도를 바

6 『성종실록』 권138, 성종 13년 2월 13일(임자).

쳤다는 기록이 있다.⁷ 이 시기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 무렵임을 고려하면, 이때 진상된 조선 지도를 이회의 「팔도지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당시 이회의 관직이 의정부의 낭관(郎官)인 검상(檢詳)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서 편집된 조선 지도는 중국, 일본 지도에 비해 가장 최신의 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한반도는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크게 과장되어 그려졌는데, 조선은 역대로부터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적으로 중국과 동등하다는 자존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세조 때 양성지는 조선이 명과는 대소(大小)에 따른 국력의 차이가 있고 따라서 사대는 하고 있지만, 문화적인 면에서는 조선도 기자(箕子) 이후 문물이 발달하여 군자지국(君子之國), 예의지방(禮義之邦), 소중화(小中華)라 칭해지는 바 하등 열등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동(大東)으로서 단군(檀君)이 요(堯)와 같은 시기에 나라를 세웠고, 기자조선과 신라, 고려를 거치면서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해 온 사실을 강조했다.⁸ 조선 부분을 확대, 과장해서 그린 이면에는 이러한 문화적 자존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중부와 남부 지역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나 함경도, 평안도의 북부 지방은 왜곡이 심해 남북으로 압축되어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도 부정확하다.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산지는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를 구불구불한 파선(波線)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산줄기 표현은 조선 지도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된다. 이는 산이 많은 조선의 지리적 특성과도 연관되며 당시 지형 인식의 도구였던 풍수지리의 영향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⁹

이 지도에는 팔도의 군현을 비롯하여 해안의 섬뿐만 아니라 포구도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수도인 한양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성첩(城堞)을 그리고 붉은색으로 부각하였다. 남쪽의 대마도는 흡사 조선의 영토인 것처럼 일본보다는 조선에 훨씬 더 가깝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조선 전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당시 대마도가 조선과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조선의 문물을 수입해 갔으며 이로 인해 문화적으로 일본보다는 조선과 더 가까웠던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기에는 새로운 왕조 개창과 국토 확장에 따라 행정, 군사적으로 최신의 지도 제작이 요구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는 압록강 상류에 사군(四郡)을 설치하고, 두만강 하류의 육진(六鎭)을 개척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파악이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1424년(세종 16) 지도 제작에 착수하였고, 그 시작은 국경이 확대된 현재의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의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정척은 1451년에 양계 지방의 지도를 제작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살려 1463년(세조 9)에는 양성지와 함께 「동국지도」를 완성하였다.

「동국지도」 제작은 1453년(단종 1)에 시작하여 10년 후인 1463년에 완성되었는데, 양성지가 정척과 함께 화공, 상지관을 대동하여 직접 하삼도의 산천 형세를 조사한 후 제작한 지도이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이미 세종 때 정척이 만든 「양계도(兩界圖)」가 있어서 이를 이용했고, 여기에 하삼도의 지도를 합쳐서 만든 것이 「동국지도」이다.¹⁰

「동국지도」의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나 사본 또는 같은 유형의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 하나인 「조선방역지도」는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하던 제용감(濟用監)에서 1557년에 제작한 지도로, 임진왜란 때 쓰시마섬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930년대에 쓰시마섬 소케(宗家) 문서 중 조선 관계 사료가 조선사편수회에 인계되면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서 현재 국사편찬

7 『태종실록』 권3, 태종 2년 5월 16일(무술).

8 하우봉, 1997, 「실학과(實學派)의 대외인식(對外認識)」, 『국사관논총』 76, 국사편찬위원회, 256쪽.

9 윤노 가즈타카(海野一隆), 이찬 역, 1983, 「한국(韓國) 지도학(地圖學)의 특색(特色)」, 『한국과학사학회지』 5권 1호.

10 한영우,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32쪽.

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¹¹

「조선방역지도」의 상단에는 제목, 중간 부분에는 지도, 하단에는 제작에 참여한 제용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한 좌목(座目)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형식은 문인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기록한 계회도(契會圖)에서 볼 수 있는 구도로 지도와 회화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다. 이회의 「팔도지도」에 비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비교적 잘 표현되어 있고 지도의 내용도 자세한 편이다. 한반도의 지형 표현은 중부와 남부 지방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북부 지방은 부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면 하계망이 비교적 정확하고 산줄기는 풍수적 지리 인식에 기초하여 연맥식(連脈式)으로 표현하였다.

무엇보다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만주 지역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영토 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에 “우리 해동(海東)은 삼면이 바다에 막혀 있고, 한 모퉁이가 육지에 이어져 있는데, 그 폭원(幅員)의 넓이는 거의 만 리(萬里)나 된다. 고려 태조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나 신라를 항복시키고 백제를 멸망시켜 개경에 도읍을 정하니, 삼한의 땅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¹² 기술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만



그림 2 「조선방역지도」(1557년)(출처: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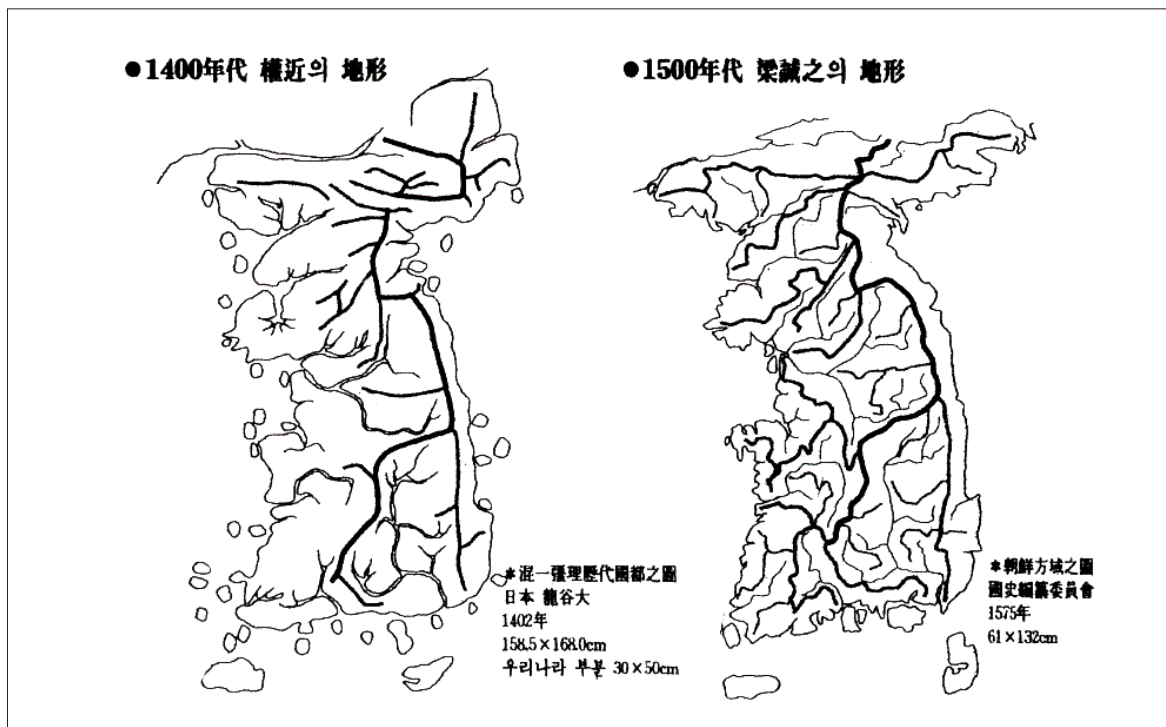


그림 3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조선방역지도」의 산수계 비교 (출처: 이우형·오상학, 20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朝鮮地圖)』의 지도사적(地圖史的) 의의(意義)」, 『문화역사지리』 16권 1호, 173쪽)

11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47쪽.

12 『고려사』 권56, 지(志) 10, 지리(地理) 1. 여기서 폭원(幅員)의 폭(幅)은 너비, 원(員)은 둘레를 뜻한다. 따라서 폭원의 의미는 국토의 둘레로 본 크기라 할 수 있다.

리의 나라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 의식을 반영하여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만주 영역까지 지도에 그려 넣은 것이다. 정착과 양성지의 「동국지도」 유형은 1750년대에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나올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소축척 지도로서 다시 제작되어 이용되었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동람도』 유형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지도뿐만 아니라 지리지 편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고 유교 문화가 정착되어 가던 16세기에는 지리지의 편찬 의도가 조선 초기 때와는 달라져 갔다. 초기의 실용성을 강조한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예속(禮俗)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국가적 사업으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16세기의 대표적인 문 지리서이다. 처음 성종의 뜻에 따라 양성지의 『팔도지리지』에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인 동국시문(東國詩文)을 첨가하여 1481년(성종 12)에 『동국여지승람』을 완성하였다. 이후 성종 대와 연산군 대에 수정 작업을 거치고 중종 대에 새로 증보하여 1530년(중종 25) 55권의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새롭게 간행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총 9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지도는 판심(版心)에 ‘동람도(東覽圖)’라 표기되어 있어서 통상 『동람도』라 불린다. 『동람도』에는 「팔도총도」라는 전국 지도 1장과 팔도의 도별 지도 8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전 시기에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속 조선 지도와는 형태나 내용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먼저 「팔도총도」를 보면 전체적인 한반도 형상이 일그러져 있다. 남북으로 압축된 모습으로, 실제의 국토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북부 지방 압록강의 유로가 두만강의 유로보다 더 북쪽에 그려져 있다. 지도에는 서울이 ‘경도(京都)’라는 명칭으로 크게 표기되어 있고, 팔도의 이름이 해당 위치에 기재되어 있다. 수록된 내용은 주요 산과 강, 섬들로 매우 소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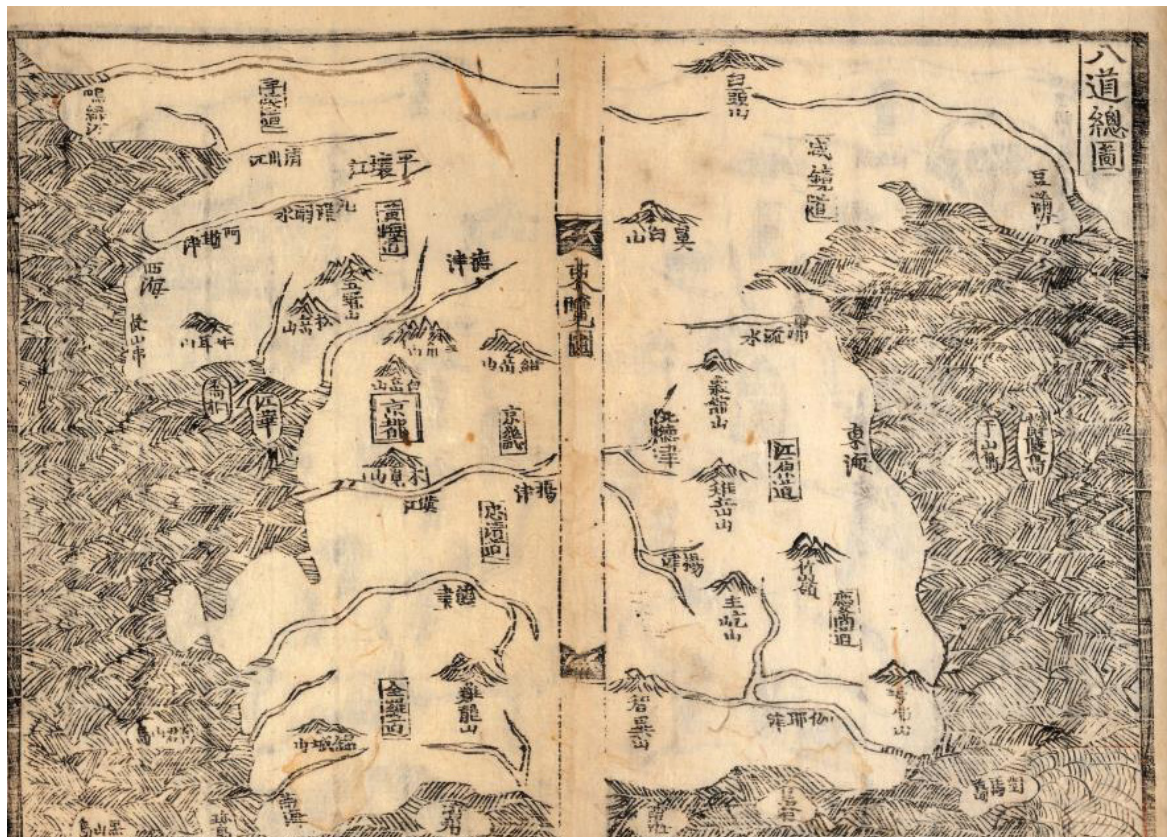


그림 4 『동람도』의 「팔도총도」(16세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지도에 그려진 산을 보면,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맨 위에 그려져 있고 서울의 삼각산(북한산), 백악산(지금의 북악), 목격산(지금의 남산), 남부 지방의 계룡산, 지리산 등이 보인다. 그러나 명산으로 알려진 금강산, 설악산, 한라산 등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낯선 경상도의 우불산, 주흘산, 전라도의 금성산, 함경도의 비백산 등이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예로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금강산, 한라산 등이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자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까?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수십 년 동안의 교정을 거쳐 간행된 점을 고려한다면 제작자의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지도의 제작 목적과 관련된다. 「팔도총도」는 자세한 국토 정보를 제공할 실용적 목적으로 간행된 지도가 아니라 유교적 이념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지도에 수록된 내용은 유교적 의례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한정되어 있다. 조선 초기에 확립된 산천사전제(山川祀典制)에 따르면, 해(海), 약(嶽), 독(瀆)의 신에게는 중간 규모의 제사인 중사(中祀)를, 명산과 대천의 신에게는 작은 규모의 제사인 소사(小祀)를 드리게 되어 있다.¹³ 그러나 예로부터 명산으로 알려진 금강산이나 한라산 등은 사전(祀典)에 등재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에도 그려져 있지 않다.

아울러 바다 명칭인 동해, 서해, 남해가 바다가 아닌 육지에 표기되어 있다. 이 역시 산천제와 관련된다. 당시 바다의 신은 중사(中祀)로 중시되었는데, 강원도의 양양, 전라도의 영암, 황해도의 풍천에 사당이 설치되어 있었다. 지도의 해당 위치에 동해, 서해, 남해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바다 명칭으로 동해, 서해, 남해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는 곳에 각각 동해, 서해, 남해라고 써 넣은 것이다.

무엇보다 해안의 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그려져 있다. 제주도, 강화도, 거제도 등의 큰 섬뿐만 아니라 군산도, 흑산도, 울릉도, 우산도(지금의 독도) 등도 그려져 있다. 이는 우리 강역의 대략적인 영역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그려진 것이다. 비록 절대적인 위치나 방향 등의 오류가 있지만 육지뿐만 아니라 도서 지방까지 강역으로 분명하게 인식했던 상황을 보여 준다. 특히 대마도가 그려진 점은 대마도의 양속성(兩屬性)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마도는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조선에 속하지만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일본에 속한 양속성을 지녀 지도에 그려질 수 있었다.

동해에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개의 섬이 있다. 동쪽 편에 울릉도, 그 서쪽에 울릉도보다 약간 작게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울릉도 서쪽의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에 해당한다. 실제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 지도에서는 서쪽에 그려져 있을까?

이와 같은 울릉도, 우산도의 표현은 근대 지도학적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전근대에 제작된 지도의 성격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팔도총도」는 경위도 측량에 따른 근대적 지도처럼 실제의 지리적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지도가 아니다. 지리적 실재를 정확하게 표현하려 했다면 제주도의 크기가 흑산도만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주도의 위도가 진도와 비슷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제주도가 진도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고 흑산도보다 훨씬 큰 섬이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팔도총도」는 당시 인지하고 있던 지리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선 강역의 대략적인 범위를 보여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동해상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는 곳이 조선의 강역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려 했던 것이다. 독도인 우산도의 면적이나 방향 등을 지도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그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해에 울릉도 이외에 또 다른 한 섬인 우산도(독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팔도총도」에 그려진 조선의 모습은 행정이나 국방 등의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지도에

13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8월 21일(신유).



그림5 『동람도』의 「경기도」 지도(16세기)(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지도를 통한 국토의 산천 파악 의도가 국방과 같은 실용적 차원이 아니라 제사를 통한 왕권의 위엄과 유교적 지배 이념을 확립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동람도』의 도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다.

『동람도』의 도별 지도도 실용성을 강조한 군사, 행정용 지도와는 거리가 멀다. 지도에는 조선 시대 지방의 고을인 군현이 배치되어 있고 각 고을을 진호하는 진산(鎭山)이 그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지도 외곽에 사방에서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 전부이다. 고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나 산성과 같은 군사 시설은 전혀 볼 수 없다. 『동람도』의 「경기도」 지도를 보면 경기도 소속의 군현이 배치되어 있고 고을의 진산이 옆에 그려져 있다. 대개 조선 시대 지도들은 풍수지리적 산천 인식에 따라 산을 연결하여 산줄기 형식으로 표현하지만, 이 지도에서는 진산을 독립된 형태로 표현하였다. 진산은 풍수지리의 주산(主山)이나 조종산(祖宗山)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전통적인 한국의 산악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고을에서 내려오던 산악신앙을 국가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리하려던 의도가 담겨 있다. 통진과 김포 같은 일부 고을에는 진산이 아예 그려져 있지 않아서 이러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3. 조선 후기 전도의 국토 인식

1) 조선 전기 유형의 계승과 인간적 국토관 확립

두 차례의 전란을 경험한 조선은 안으로는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대



그림 6 「팔도총도」(17세기 후반)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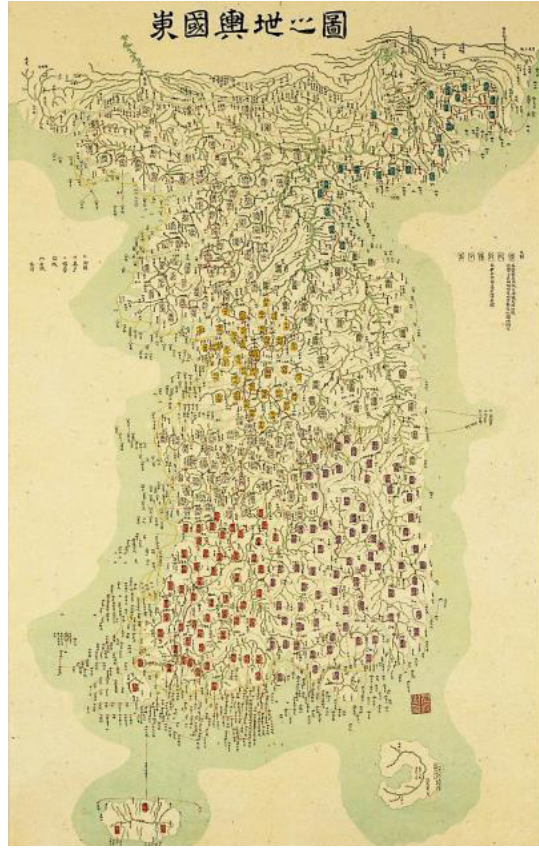


그림 7 윤두서의「동국여지지도」(18세기 초반)
(출처: 해남 녹우당)

비해야 했다. 사회, 경제적으로도 전쟁 후의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양안(量案)의 정리와 호적(戶籍)의 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고, 농업생산력 회복을 위해 농지 개간과 농법 개량이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농업생산력 증대는 수공업, 광업으로까지 확대되어 상품 교환 경제의 발달을 자극했고 이로써 지역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실학이 태동하여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 연구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은 당시 지도 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의 지도 소유를 금지했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사대부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 지도 소유가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의 지도 제작이 비교적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도 양식도 전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데, 지도가 낱장으로 제작되지 않고 첩 또는 책의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이전 시기의 지도들은 주로 단독의 족자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17세기 이후로는 서양의 아틀라스(atlas)처럼 여러 장의 지도가 수록된 책이나 첩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이전 시기에도 지도첩 형태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대개 팔도의 도별 지도를 모아 수록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도첩과 지도책에는 조선 전도와 도별도뿐만 아니라 외국 지도, 도성도 그리고 천하도를 포함하여 여러 장르의 지도를 수록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도 양식의 변화는 지도가 더 이상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점차 대중화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제작된 지도들은 대부분 조선 전기 지도의 유형을 계승하고 있다. 조선 전기 정책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를 약간 변형한 지도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도인 『동람도』 형식의 지도가 민간에서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 「동국지도」의 맥을 잇는 지도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팔도총도」가 대표적이다. 이 지도에는 1681년에 복구된 경상도의 영양현(英陽縣)이 표시되어 있고, 1684년에 처음 설치된 함경도의 무산부(茂山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681년에서 168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지도로, 조선 전기에서 18세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의 지도이다.

「팔도총도」의 전체적인 윤곽은 「동국지도」의 것과 유사하다. 「동국지도」처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만주 지역도 그려져 있다. 백두산의 모습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은 이 시기 북방 영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맥은 연맥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회화적인 성격이 좀 더 가미되어 있다. 해안가의 섬들은 산의 형태로 회화성을 강조한 것이 조선 전기의 「동국지도」와 다른 점이다. 교통로가 그려져 있지 않고 지명도 조선 전기의 「동국지도」 유형에 비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소 소략한 느낌을 준다.

조선 전기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일신한 지도는 윤두서(尹斗緒, 1668~1715)의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이다. 지도의 전체적인 윤곽이나 내용은 「동국지도」와 유사하지만 「동국지도」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도로와 해로를 각각 적색 선과 황색 선으로 구분하고 도로는 그 크기에 따라 굵기를 달리하여 대, 중, 소로 표시하였다. 아울러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보다 훨씬 많은 섬을 수록했고, 이를 삼각형으로 기호화하고 적색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섬들의 소속 군현을 나타냈다.

북방 지역을 보면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처럼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지역도 그려졌는데, 만주 지역이 다소 축소되었고 그 대신 오라, 영고탑 같은 청나라의 발상지가 새롭게 수록되었다. 1712년에 설치된 백두산정계비가 '계비(界碑)'라고 표기되어 있다.

산지의 표현은 맥으로 연결된 태백산맥, 소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지도의 윤곽은 여전히 압록강이 일직선으로 그려져 있어 조선 전기 유형의 지도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백두산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리 정보가 아직 사대부 계층까지 확산되지 못했던 것 같다. 서해, 동해, 남해와 인접한 해수면을 연푸른색으로 선명한 점이나 백두산을 크게 강조하고 천지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윤두서의 화가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다.¹⁴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동총도(大東總圖)」는 「동국지도」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변형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지도는 영조 연간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수록된 전도로, 1712년에 세워진 백두산정계비가 뚜렷하게 그려져 있다. 조선 전기에 그려졌던 만주 지방은 지역이 축소되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만 한정되어 있다.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한 분계강(分界江)과 토문강(土門江)이 합쳐져 흐르는 강으로 표현되어 있다. 산지는 연결성을 부각시켜 연맥식으로 표현하였고 도로는 위계에 따라 대로와 소로로 구분하여 그렸다. 해안의 섬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서해에는 해로도 그려져 있다. 무엇보다 지도 하단의 오른쪽에는 국토 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주목을 끈다. 다음은 이를 번역한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 지형은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다. 가운데는 작고 아래는 크다.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대관령이 등척이 된다. 영남의 대마도와 호남의 탐라가 양발이 된다. 해방(亥方)에서 앉아 사방(巳方)을 보고 있다. 서울에서 사방의 위치를 정한다면 온성(穩城)이 정북(正北)이 되고 해남(海南)이 정남(正南)이 되며 풍천(豐川)이 정서(正西)가 되고 강릉(江陵)이 정동(正東)이 된다.

이와 유사한 기록이 이익(李瀾)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도 보이는데, 「서북피아양계만리일람지도(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에도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익이 이러한 지도를 열람하고 자신

14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8 『해동지도』 내 「대동충도」(18세기)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의 책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토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지형은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으며 중간은 마르고 아래쪽은 뚱뚱하다. 백두산은 머리가 되고, 대관령은 등성마루가 되어 마치 사람이 머리를 기울이고 등을 굽히고 선 것 같다. 그리고 대마도와 제주도는 양쪽 발 모양으로 되었는데, 해방(亥方)에 앉아서 사방(巳方)을 향하였다 하니 곧 감여가(堪輿家)의 정론이다.¹⁵

위의 기록은 조선 시대의 국토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먼저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산지가 많고 남쪽에는 평야가 많아서 국토의 형상을 북고남저의 지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토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데, 중국 쪽을 향해서 등을 굽히고 머리를 숙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주도와 대마도는 사람의 양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 국토관을 감여가들의 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의 좌향을 해좌사향(亥坐巳向, 해방을 등지고 사방을 바라보고 앉은 자리. 북북서에서 남남동으로 바라본 방위)이라 하고 있는데, 풍수의 좌향론의 의거하여 국토의 방위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서도 “옛사람들은 우리나라 지형이 노인 형상이고 해좌사향이라 서쪽을 향해 얼굴을 들어 중국에 읍하는 모양이어서 옛날부터 중국에 충직하고 순종하였으며

15 이익, 『성호사설』 제1권 천지문, 동국지도. “蓋我國地形 北高而南低 中殺而下贏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若人之側腦偻背而立者 嶺南之對馬島 湖南之耽羅島 又如兩趾之支焉 坐亥面巳則堪輿家之正論 而以京都而定四方之位 則鏡城爲子 海南爲午 其西豐川 其卯江陵”



그림 9 『躒域지도』 내 「조선전도」(18세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10 『지도』 내 「조선국팔도통합도」(19세기)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11 목판본 「조선팔도」(18세기 후반)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1,000리를 흐르는 물과 100리에 펼쳐진 들판이 없어서 큰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⁶라고 했다. 이처럼 『택리지』에서도 우리나라 국토를 인간에 비유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풍수를 바탕으로 하는 국토 인식은 조선 후기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조선 시대 이전부터 지녔던 관념으로, 조선 후기에 와서 정설로서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간적 국토관은 현존하는 고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躒域지도(躒域地圖)』에 수록된

16 이충환, 『택리지』, 산수. “古人謂我國爲老人形 而坐亥向巳 向西開面 有拱揖中國之狀 故自昔忠順於中國 而且無千里之水 百里之野 故不生巨人”



그림 12 「동국팔도대총도」(18세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전도」의 상단에는 국토를 ‘노인좌좌형(老人蹲坐形)’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크기를 남북 3,202리, 동서 1,230리라 했고 서울을 기준으로 한 동서남북의 위치를 해당 방위에 표시하였다.

17세기 이후 확립된 인간적 국토관은 여러 지도에서 볼 수 있다.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에서는 ‘지형여인립(地形如人立)’이라 하여 국토의 형상이 사람이 서 있는 것과 같다는 인간적 국토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범해좌사향(地凡亥坐巳向)’이라 하여 국토의 좌향도 명시하고 있다. 국토의 크기를 동서 1,230리, 남북 3,202리로 보고 있고, 한양 기준 동서남북까지의 거리를 기재하였다. 특히 이 지도에서는 기자조선(箕子朝鮮)을 시조로 내세우고 조선과 조선의 도읍을 찬양하고 있다.

목판본 「조선팔도(朝鮮八道)」도 조선 전기 지도의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다. 지도의 윤곽은 「조선국팔도통합도」와 거의 비슷하다. 여기서도 ‘지형해좌사향(地形亥坐巳向)’이라 하여 국토의 좌향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국팔도통합도」에는 없는 ‘미기분야석목지차(尾箕分野析木之次)’라는 하늘의 별자리를 배치하고 있다. 이것은 국토를 하늘의 별자리에 배치하는 천지상관적(天地相關的) 사고의 반영으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28수 가운데 기(箕)와 미(尾) 자리에 배치시켰다. 이러한 천지상관적 사고는 『동람도』 유형의 일부 지도에 반영되어 팔도의 각 고을을 28수에 배치시키기도 했다.

인간적 국토관과 국토의 좌향은 『동람도』 유형의 지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동람도』는 유교적 산천제를 지내는 산천과 바다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어서 연맥식의 산지가 아닌 독립된 산을 그려 넣은 것이 일반적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동람도』 유형의 지도도 조선 전기의 지도처럼 독립된 형태의 산을 그렸고 산천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했다.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동람도』의 것과 유사하다. 다만 여백에 ‘아국지형해좌사향(我國地形亥坐巳向)’이라 하여 좌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의 크기를 남북 3,202리, 동서 1,230리로 나타내고 있는데, 앞서 「조선국팔도통합도」와 동일한 수치다.

2) 국토 인식의 획기: 정상기의 『동국지도』 유형

우리나라 국토 인식의 혁신적인 변화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농포자(農圃子) 정상기는 이전 시대의 지도들에 많은 결함이 있어서 지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는 더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는 의도에서 백리척(百里尺)이라는 독특한 축척을 사용하여 국토의 모습을 거의 실제에 가깝게 그려 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전의 지도들은 대부분 북부 지방의 윤곽이 왜곡되어 있었다. 조선 전기에 정척, 양성지 등의 학자들이 제작한 지도에서 남부 지방은 비교적 원형에 가깝게 그려졌으나 북부 지방은 두만강과 압록강의 유로가 거의 수평으로 그려졌고 면적도 실제보다 작게 그려져 왜곡이 심한 편이었다. 이는 함경도와 평안도가 변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국방 강화, 청나라와의 국경 분쟁, 평안도 및 함경도 지역의 개발과 같은 요인으로 북부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과 지도 제작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상기의 지도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이전의 지리지와 지도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간행된 읍지, 관방 지도 등을 수합하여 왜곡되었던 북부 지방의 윤곽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조선 시대 지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1861년)보다 무려 100년 이상 앞서서 우리 국토의 형태를 실제에 가깝게 그려 냈던 것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표현상에서도 이전 지도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산맥과 물줄기는 지표면의 근골(筋骨)과 혈맥(血脈)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 제작자들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산천 표현에 관심을 두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산천의 표현과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산계(山系)와 수계(水系)가 이전의 지도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상세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지도들은 소축척 지도이기 때문에 산계와 수계를 자세히 표현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천으로 대표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후대에 비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대축척 지도로 제작되어 산계와 수계가 더 자세히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고, 이전까지 축척된 공간 인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김정호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산천 체계를 잘 표현해 냈다.

이와 더불어 산줄기 체계에 입각한 지형 표현이 더욱 구체화되었다. 산줄기 체계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를 하나의 커다란 산줄기로 하고, 이 산줄기에서 크게 가지를 친 이차적인 산줄기는 대하천의 유역 능선으로, 다시 여기서 뻗어나간 지맥(支脈) 순으로 지형을 표현했다. 이러한 산줄기들은 하천을 가르는 분수령 역할도 한다. 따라서 산줄기는 각각의 유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줄기 체계는 우리의 오랜 전통적 지리 인식 체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동아시아 내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조선의 독특한 산지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1757년 조정에 알려지게 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후 관청에서 적극 활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770년 신경준(申景濬)의 『여지고(輿地考)』 제작 사업이다. 그는 영조의 명을 받아 『동국문헌비고』와 짝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때 기본도로 사용한 것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였다. 신경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별도, 군현 지도 등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이후에도 계속 관에서 전사되어 이용되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민간에서도 지도 제작에 널리 이용되었다. 특히 해주 정씨 가문의 정철조(鄭喆祚), 정후조(鄭厚祚) 형제는 정상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 편집하여 더 뛰어난 해주본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익, 정약용 같은 대학자들도 정상기의 지도 사본을 소장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지리 지식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이처럼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18세기 이후 조선의 주류적 지도로 자리 잡게



그림 13 『동국대전도』(18세기)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4 『동국지도』의 팔도분도 사본 『팔도지도』 가운데 함경북도
부분(18세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되면서 『동국지도』 유형의 지도가 널리 유포되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대전도를 축소한 소전도 형태로 필사되었는데, 현재에도 이러한 유형의 지도가 다수 남아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아국총도(我國總圖)」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도는 정조 대에 제작된 지도첩인 『여지도(輿地圖)』에 수록된 전국 지도로, 전체적인 윤곽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따르고 있다. 이 지도는 무엇보다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데, 산줄기를 녹색으로, 하천을 청색으로 표시하였고, 팔도의 군현을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또한 해안의 섬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시기 도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북부 지방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도 상세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지금의 독도가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于山島)로 표시되어 있고 대마도도 그려져 있다. 지도 여백에는 국토의 좌향(坐向), 동서와 남북의 길이, 사방(四方)의 끝에서 서울까지의 거리, 그리고 각 도의 군현 수가 기재되어 있다. 좌향은 해좌사향으로 표기되었고 남북은 3,250리, 동서는 1,230리로 표기했다. 무엇보다 다른 지도에서 잘 볼 수 없는 바다 명칭이 동해, 서해, 남해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중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목판본 「해좌전도(海左全圖)」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에 속한다. 지도의 윤곽과 내용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유사하며 산계와 수계, 자세한 교통로 등이 같은 수법으로 그려져 있다. 지도 여백에는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등 10여 개 명산의 위치와 산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섬, 정계비, 초량왜관(草梁倭館) 등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리고 고조선(古朝鮮), 한사군(漢四郡), 신라 구주(新羅九州), 고려 팔도(高麗八道)의 고을 수를 각각 좌측 상부 여백에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지도로, 목판 인쇄술 면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그림 15 『여지도』 내 「아국총도」(18세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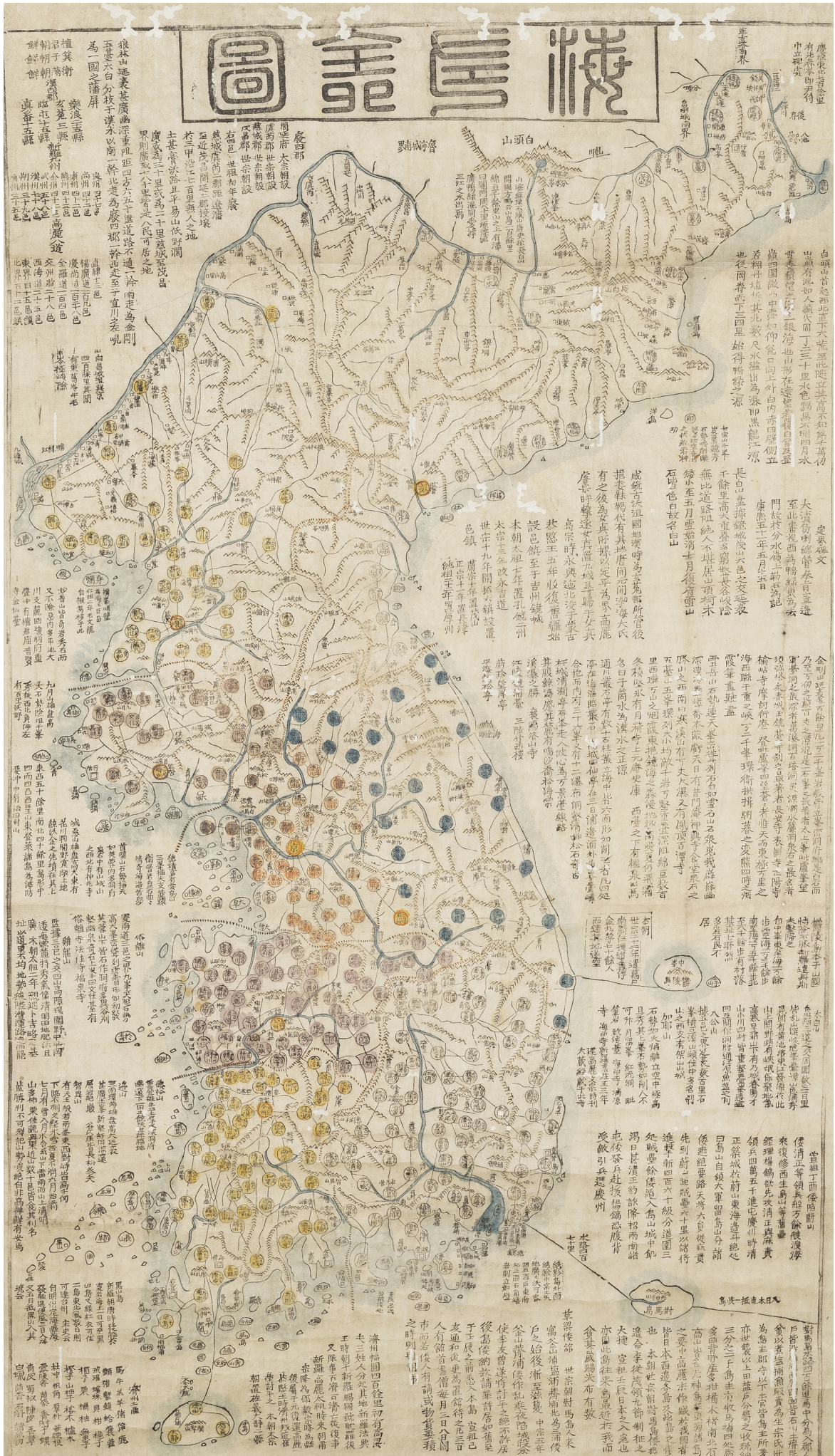


그림 16 「해국전도」(19세기)(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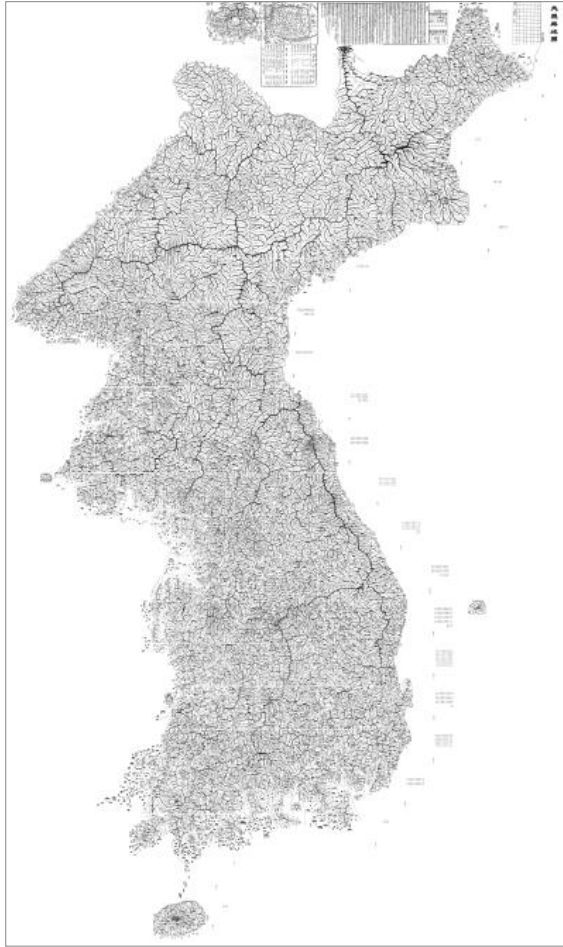


그림 17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전체 모습



그림 18 「대동여지전도」(19세기)(출처: 국립중앙박물관)

보여 주고 있다. 백두산에는 정계비를 표시했고 정계비문도 수록되어 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확립된 국토의 이미지는 이후 제작되는 대축척 조선 지도에서도 이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 『동여(東輿)』,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대동여지도』, 김정호의 『청구도』 등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완결된다. 『대동여지도』에는 산천이 그 어느 지도보다도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산지 표현은 조선의 전통적 산천 인식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이어진 산줄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점은 다른 대축척 조선 전도와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는 산지의 험준과 산줄기의 폭과 높이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른 지도에서는 산줄기의 험준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표현하여 동부의 험준한 산지나 서해 연안의 낮은 구릉성 산지가 같은 굵기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는 산지의 형세에 따라 표현된 산줄기의 굵기가 다르고, 산줄기가 모이고 갈라지는 지점과 높은 산이 있는 곳은 크게 그려서 강조했다. 특히 유명한 산들의 봉우리는 흑색이 아닌 백색으로 표현한 것이 눈길을 끈다. 실제로 그는 『대동여지도』의 서문에 해당하는 「지도유설(地圖類說)」에서 산지를 특치(特峙), 병치(并峙), 연치(連峙), 첩치(疊峙) 등으로 유형을 분류했는데 실제 지도상에서도 산지를 일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실제 형세를 반영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천은 쌍선과 단선을 혼합하여 그렸다. 넓은 하구에서 차츰 좁아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단선으로 바뀌어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강폭을 기준으로 삼는 현대 지도의 수계 표현 방식과도 유사하다. 이 또한 『동여도』와는 다른 표현 방식이다. 쌍선에서 단선으로 바뀌는 기준은 몇 가지 근거를 통해 볼 때 당시 하구로부터 배가 올라와 운항할 수 있는 가항(可航)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선으로 그려진 하천에서는 주요 간선 도로상에 나루터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고, 국가에서 세운 조창(漕

倉), 수참(水站)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쌍선으로 그려진 유역까지가 당시에 배나 뗏목의 운항이 가능했던 하천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대동여지전도』는 『대동여지도』를 축소한 지도로, 지도에 반영된 국토 인식은 『대동여지도』와 유사하다. 『대동여지도』와 마찬가지로 연맥식 표현 방식으로 산지를 표현하였고, 백두산, 장백산, 금강산, 낭림산, 오대산 등의 명산들은 압괴 모양의 봉우리를 그려 강조하였다. 산줄기는 대부분 톱니 모양으로 그려졌는데, 산줄기의 고저와 험이(險夷)에 따라 『대동여지도』에서처럼 굽기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소축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대동여지도』에서 보이는 완만한 산지를 나타내는 곡선 모양의 산줄기는 보이지 않는다. 산지 표현에서는 산의 명칭뿐만 아니라 길이 나 있는 고개의 이름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

하천은 『대동여지도』에서와 달리 모두 쌍선으로 그려 넣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가항(可航) 유역까지는 쌍선, 그 위로는 단선으로 구분하였는데 『대동여지전도』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앴 것이다. 이는 단선으로 그려진 도로망과의 혼란을 피하려는 동시에, 소축적 지도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오히려 번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동여지전도』의 하계 표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조수(潮水)의 영향권을 그려 넣은 점이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석 간만의 차가 커서 조수의 영향이 하천을 따라 내륙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조수의 영향권을 바다와 동일한 물결무늬를 그려 표현하였다. 조수가 어느 지역까지 미치느냐 하는 점은 강을 따라 배를 운항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주요 물자의 운반이 수로와 해로로 이뤄지던 당시로서는 비중 있게 취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지도상에서도 조석 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대동강, 한강, 임진강, 금강 등은 조수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지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으로 『대동여지전도』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자연 지형 표현과 관련하여 『대동여지도』와 다른 점은 대마도를 조선의 판도에 그려 넣은 점이다. 『대동여지도』에는 대마도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대동여지전도』에서는 대마도를 동남쪽 해안에 그려 마치 조선의 영토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대마도는 조선 전도에 통상적으로 그려졌던 섬인데, 이렇게 표현된 것은 조선의 독특한 국토 인식과 대마도가 지니는 문화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전통적으로 조선에서는 국토를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였는데 제주도와 대마도는 인간의 양발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한 대마도는 일본의 부속 도서라기보다는 조선과의 문화적 유대가 강한 곳으로 인식되어 일본과 별개로 그려졌던 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대마도를 제주도와 더불어 조선의 판도에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대마도의 추가 수록은 다른 전도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동여지전도』가 단순히 『대동여지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했음을 시사한다.

3) 개항기 이후 전도의 국토 인식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근대적인 지도 제작 기법을 접하게 된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근대적 토지 측량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했다. 아울러 교육용 교과서에 지도를 수록하여 국토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려 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전도(大韓全圖)」이다. 이 지도는 1899년(광무 3)에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조선 전도로, 현채(玄采)가 편집한 『대한지지(大韓地誌)』에 실려 있다. 1896년에 지방 제도가 13도로 개편됨에 따른 13도의 도별 지도와 전도

17 이우형, 1990,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독도(讀圖)』, 광우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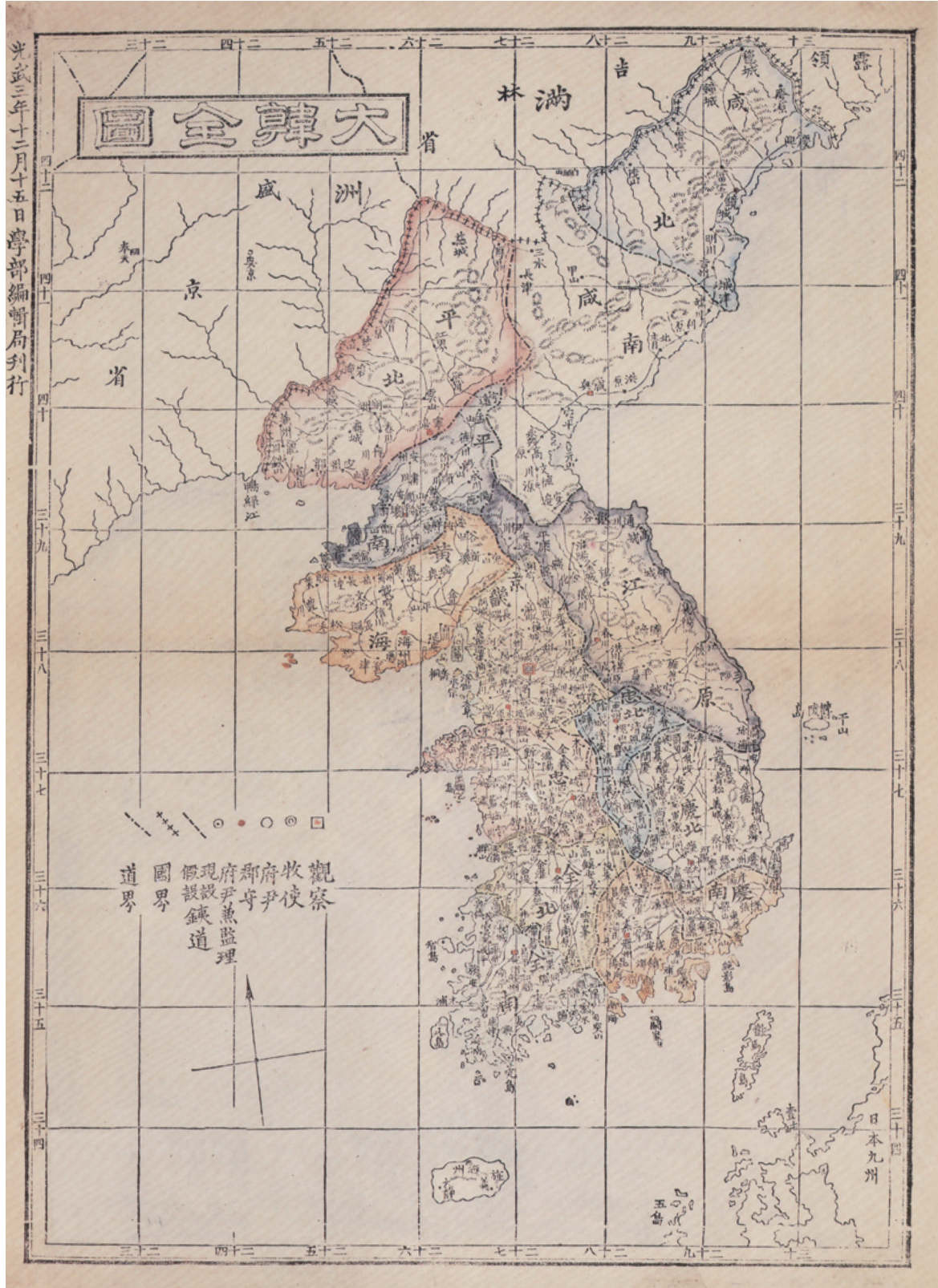


그림 19 『대한지지』내「대한전도」

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도 제작 기법과 서양의 근대적 기법이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지도이다.

이 「대한전도」는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한 소책자 형식을 갖추고 있기에 축척이 작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는 전통적인 조선 전도의 것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일본을 거쳐 들어온 근대적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산지는 우모식(羽毛式)으로 표현했고, 범례를 지도 여백에 '기호'로 표시했으며, 방위 표시를 글자가 아닌 기호로 표시했다.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일본의 일부가 동남 쪽 모서리에 그려져 있고 대마도의 윤곽도 이전과 달리 사실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점도 특이하다.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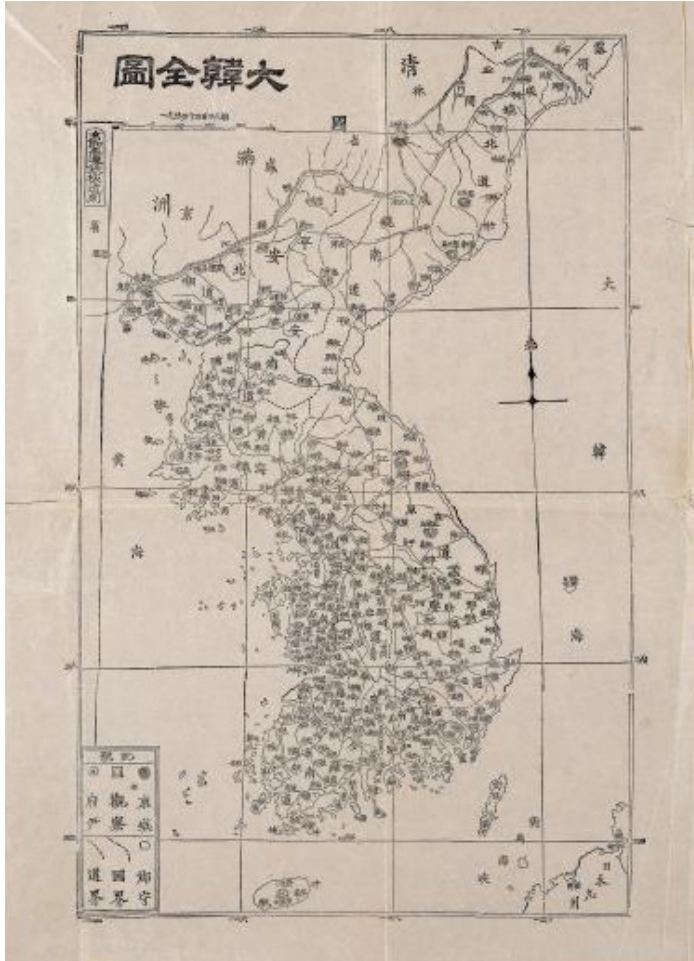


그림 20 『대한신지지』 내 「대한전도」(1907년)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한 인식도 일본 지도에서 참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같은 전통적인 지도에 그려진 것과 유사하다. 울릉도 동쪽에 독도인 우산도를 그려 넣었다.

1907년(광무 11) 6월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해 저술한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에 수록된 「대한전도」에도 개화기 국토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대한전도」는 축척 1:250만의 지도로, 근대적 경위선망(經緯線網)을 사용하였고 방위, 범례 등이 기호로 표현되었다. 한반도의 윤곽은 『대한지지』의 「대한전도」와 유사하다. 다만 『대한신지지』의 「대한전도」에서는 두만강 이북 토문강 이남의 북간도를 우리 영토로 표시했고, 동해를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여 독립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을사조약을 거치면서 대한제국이 위기적 상황으로 치달을 즈음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작된 계몽적 성격이 강한 지도이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지도 외에도 단독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와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가 대표적이다. 「대한여지도」는 대한제국의 학부편집국에서 학교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 지도다. 지도의 윤곽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수정본 계열인 규장각 소장의 「조선팔도지도」와 동일하여 이를 기초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여지도」는 조선의 전통적인 지도 제작 방식에 일본을 통해 도입된 서양 지도학의 기법을 가미했다. 지형 표시를 우모식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이전 시기의 국토 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이고, 일부 대마도나 일본 부분에서 외래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대한전도」, 「대한여지도」보다 훨씬 더 현실적 인식에 바탕을 둔 지도로 「대한제국지도」를 들 수 있다. 이 지도는 1908년 현공렴(玄公廉)이 제작한 지도로, 1899년 학부편집국에서 작성한 「대한전도」보다 개선된 지도다. 색판 인쇄를 했고, 지형 표현에 음영을 이용했다. 아울러 각 도시의 위치와 해안선이 정확해졌다. 그러나 이 지도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영향 아래



그림 21 「대한여지도」(1900년경)(출처: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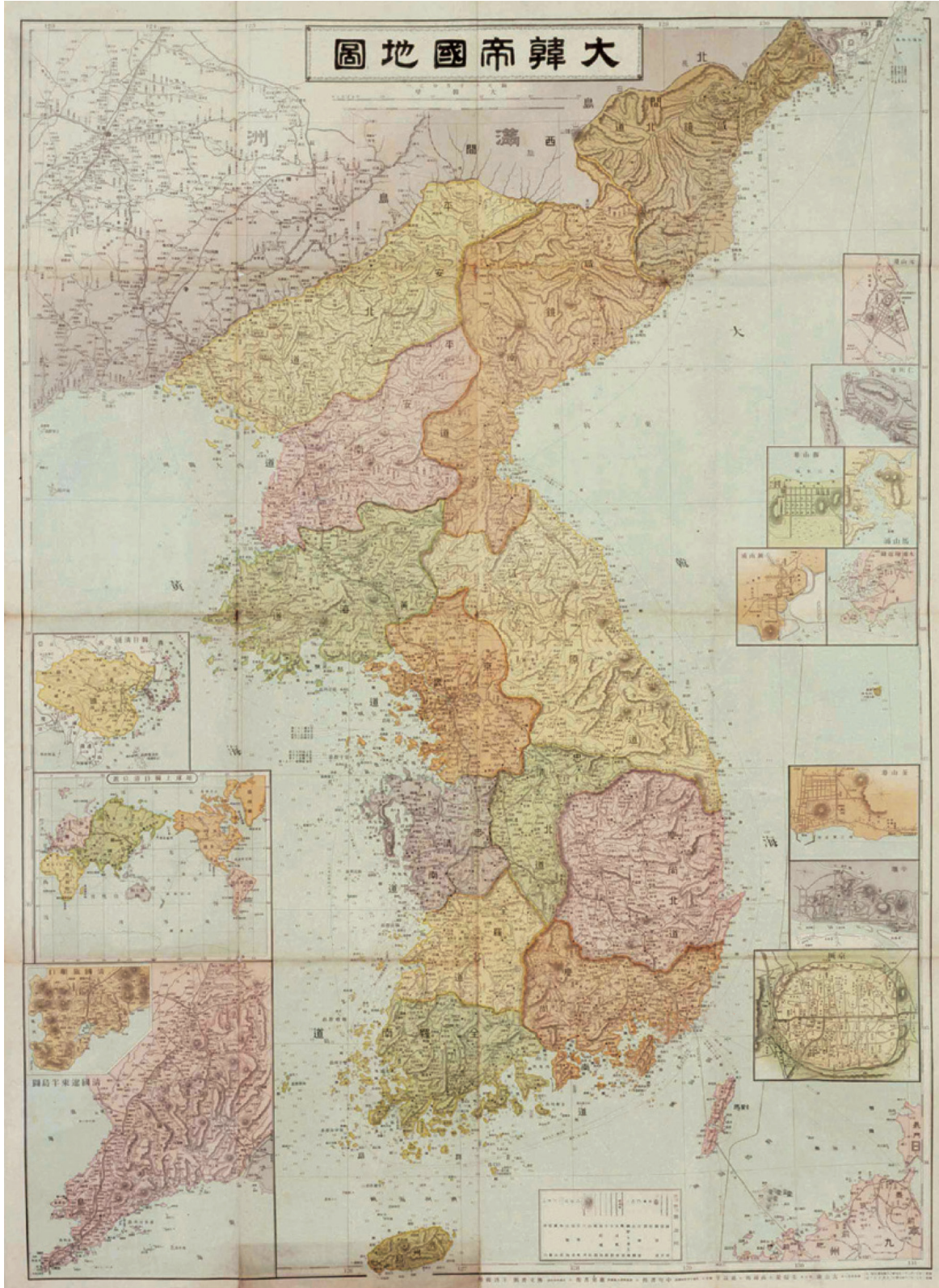


그림 22 「대한제국지도」(1908년)(출처: 개인 소장)

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로 만주의 이권을 획득한 이후여서 남만주 지방을 상세히 다루고 있고, 러일전쟁으로 조차(租借)한 요동반도(遼東半島)가 삽도로 수록되어 있다.¹⁸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해는 ‘일본해’가 아닌 ‘대한해’로 표기되어 있다. 산지 표현은 우모식을 사용하여 음영을 표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산줄기 체계를 표현하려 했다. 한반도의 북부와 동부에 있는 산지들을 산줄기 형태로 표현하여 여전히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제국지도」에는 대마도의 모습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데, 당시 일본에서 근대적 측량을 통해 제

18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398쪽.



그림 23 「조선산도」(1903년)(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24 「조선수도」(1903년)(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작된 대마도 지도를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해협을 명칭도 표기되어 있는데, 대마도와 우리나라 남해안 사이를 ‘대한해협’, 대마도와 일본 본 섬 사이를 ‘대마해협’으로 표기했다. 앞서 언급한 「대한전도」나 「대한여지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한 지도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전체를 그린 전도는 아니지만 국토의 산줄기와 하계망만을 그린 지도가 있어 이를 통해 산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조선산도(朝鮮山圖)」에는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백두대간과 거기에서 서쪽으로 갈라져 나간 정맥의 모습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다. 광주 무등산으로 연결되는 맥이 바다 건너 제주의 한라산과 연결되는 모습은 다른 지도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지도 상단에는 ‘조종백두(祖宗白頭) 손지자엽(孫枝子葉)’이라 하여 조종산으로서 백두산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줄기 인식 체계가 20세기에 도 지속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 준다.

「조선수도(朝鮮水圖)」에서도 산천을 통일적으로 인식했던 산수분합(山水分合)의 원리를 볼 수 있다. 「조선수도」는 조선의 하천만을 모식적으로 그린 간단한 지도로, 지도 상단에 ‘산진동북(山鎮東北) 수류서남(水流西南)’이라 하여 한국 국토의 지형적 특징을 제시했다. 산줄기와 강줄기를 대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지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습은 정교함이 떨어진다.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백두대간의 모습을 철령, 금강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조령, 속리산까지 그렸는데, 지리산은 빠져 있다. 이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강줄기를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산줄기는 강의 발원처만을 간단하게 표시하려고 그린 것이다. 아울러 주요 하천의 발원처에 있는 주요 고을만을 표시했다. 남한의 대하천 가운데 전라도의 영산강은 그려져 있지 않다.

1911년 원영의(元泳義)가 저술한 『조선산수도경(朝鮮山水圖經)』에 수록된 지도 「산도경(山圖經)」과 「수도경(水圖經)」도 근대에 제작된 것이지만 전통적 국토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로 전통적 산줄기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산계와 수계를 나누어 그렸는데, 산계의 위계에 따라 산계의 주축을 대간(大幹), 주축의 분간(分幹)을 정간(正幹), 간(幹)의 분선을 지(支), 지(支)의 분선을 기(岐), 기(岐)의 분선을 녹(麓)이라 하여 산줄기의 위계를 더욱 세분화했다. 산줄기 체계는 북부고지백두대간(北部高地白頭大幹), 동부고지백두대간(東部高地白頭大幹), 남부고지백두대간(南部高地白頭大幹), 관북고지장백간지(關北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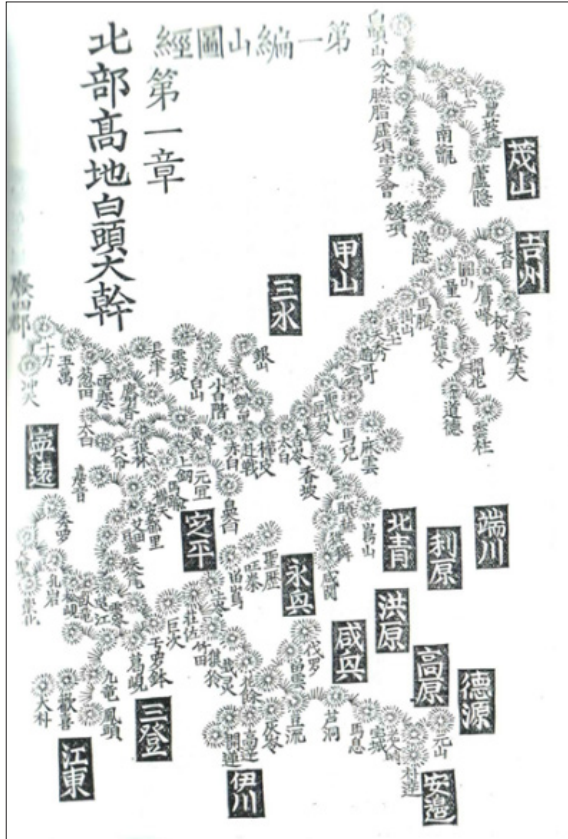


그림 25 『조선산수도경』 내 「산도경」



그림 26 『조선산수도경』 내 「수도경」

地長白幹支), 낙동고지대백간지(洛東高地太白幹支), 낙남고지봉황간지(洛南高地鳳凰幹支), 호남고지장안간지(湖南高地長安幹支), 금남고지마이간지(錦南高地馬耳幹支), 금북고지속리간지(錦北高地俗離幹支), 한남고지칠현간지(漢南高地七賢幹支), 한북고지분수간지(漢北高地分水幹支), 임북고지개련간지(臨北高地開蓮幹支), 예서고지개련간지(禮西高地開蓮幹支), 청남고지낭림간지(淸南高地狼林幹支), 청북고지낭림간지(淸北高地狼林幹支) 등의 15개로 구분했다. 주요 산줄기 체계를 새롭게 분류했으나 주요 산줄기에서 발원하는 대하천을 고려하여 명명한 것으로 전통적인 산수분합의 원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줄기 체계는 동해사면두만원류(東海斜面豆滿源流), 동해사면용흥원류(東海斜面龍興源流), 남해사면낙동원류(南海斜面洛東源流), 남해사면십진원류(南海斜面蟾津源流), 서해사면사호원류(西海斜面沙湖源流), 서해사면대진원류(西海斜面大津源流), 서해사면한강원류(西海斜面漢江源流), 서해사면예성원류(西海斜面禮成源流), 서해사면대동원류(西海斜面大同源流), 서해사면청천원류(西海斜面淸川源流), 서해사면압록원류(西海斜面鴨綠源流) 등의 12개로 분류했다. 물줄기 체계는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 서, 남쪽의 사면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으로 전통적인 산수분합의 원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현존하는 한국의 고지도 가운데 전도(全圖)를 대상으로 국토 인식의 변천을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조선 전기에는 '만리강산'이라는 강토 인식에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 한정하지 않고 만주 지역까지 조선 전도에 포함시켜 그렸다. 정척과 양성지가 제작한 『동국지도』는 조선 전기 측량의 성과가 반영된 대표적인 지도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선방역지도』나 『팔도지도』와 같은 사본이 현전한다. 이들 지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영역이 그려져 있고 대마도, 울릉도, 독도 등도 포괄하고 있다. 산지는 전통적인 연맥식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하천이나 도서 지방도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둘째, 조선 전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도 『동람도』는 조선 사회의 지배 이념인 유교에 토대를 둔 이념적 성격이 강한 지도로, 산천체가 행해지는 산이나 강, 바다 등이 표현되어 있다. 성리학적 이념을 국토 공간에 반영한 지도로서 산천이나 도서의 표현은 사실성보다는 이념성을 강조했다.

셋째,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 인간적 국토관이 확립되었고 국토의 좌향, 크기, 사방 거리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지도에 반영되었다. 국토의 모습을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노인에 비유했고,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국토의 좌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아울러 기미(箕尾)의 별자리와 석목(析木)의 차위에 배치하는 천지상관적 사고도 국토에 반영시켰다.

넷째,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제작되면서 국토 인식의 사실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 조선 전기 왜곡이 심했던 북부 지방의 모습이 실체를 반영하게 되었다. 산천의 체계가 더욱 세밀하게 인식되었고 육로와 해로의 교통망이 지도에 자세히 표현되었다. 도서 지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독도의 위치가 제자리를 잡았다.

다섯째,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근대적 지도학의 영향 아래 지도들이 제작되어 경위선 사용, 우모식의 산지 표현, 각종 범례의 활용 등 근대 지도의 성격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산천 체계가 이어졌는데, 산줄기 중심의 산지 인식과 산맥 및 하천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는 산수분합의 원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1. 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동문선(東文選)』
- 이익(李瀾), 『성호사설(星湖僿說)』
- 이중환(李重煥), 『택리지(擇里志)』
- 현채(玄采), 『대한지지(大韓地誌)』
- 장지연(張志淵), 『대한신지지(大韓新地志)』
- 원영의(元泳義), 『조선산수도경(朝鮮山水圖經)』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동람도(東覽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팔도총도(八道總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之圖)」(해남 녹우당 소장)
- 『해동지도(海東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접역지도(鰈域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지도(地圖)』,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조선팔도(朝鮮八道)」(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동국팔도대총도(東國八道大總圖)」(『지도(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팔도지도(八道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아국총도(我國總圖)」(『여지도(輿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해좌전도(海左全圖)」(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개인 소장)
- 「조선산도(朝鮮山圖)」, 「조선수도(朝鮮水圖)」(서울역사박물관 소장)

2. 논문 및 단행본

- 김우선, 2022, 「18세기 실학적 지리학자들의 학문적 친연성(親緣性):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4권 1호, 5~30쪽.
- 김의원, 1983, 「선인(先人)들의 국토관(國土觀)」, 『행정문제논집』 4권, 73~109쪽.
- 도도로키 히로시, 2020, 「조선시대 국토관과 통신사의 일본 심상지리」, 『조선통신사연구』 제29호, 101~124쪽.
-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친하관의 변화』, 일지사.
- _____, 2000, 「조선후기(朝鮮後期) 실학자(實學者)들의 국토관(國土觀)과 지역인식(地域認識)」, 『한국사연구』 108호, 79~114쪽.
- 영남대학교박물관, 1998, 『한국의 옛 지도』.
- 오상학, 1994, 「정상기(鄭尙驥)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 관한 연구: 제작배경과 사본(寫本)들의 계보(系譜)를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24권, 133~155쪽.
- _____, 2001, 「조선시대의 세계지도와 세계 인식」, 『지리학논총』 43권, 1~305쪽.
- _____, 2005, 『옛 삶의 모습, 고지도』,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5, 『한국 전통 지리학사』, 들녘.
- 운노 가즈타카(海野一隆), 이찬 역, 1983, 「한국(韓國) 지도학(地圖學)의 특색(特色)」, 『한국과학사학회지』 5권 1호.
-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의 연구』, 성지문화사.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이우형, 1990,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독도(讀圖)』, 광우당.

- 이우형·오상학, 200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朝鮮地圖)』의 지도사적(地圖史的) 의미(意義)」, 『문화역사지리』 16권 1호, 165~182쪽.
- 이찬, 1971, 『한국고지도』, 한국도서관학연구회.
- _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이찬·양보경, 1995, 『서울의 옛 지도』, 서울학연구소.
- 전상운, 1988, 『한국과학기술사』 제2판, 정음사.
- 최길성 역, 1990, 『조선의 풍수』, 민음사.
-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 하우봉, 1997, 「실학파의 대외인식」, 『국사관논총』 76권, 국사편찬위원회.
- 한상복, 1988,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
- 한영우·안휘준·배우성, 1999, 『우리 옛지도와 그 아름다움』, 효형출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일본 고지도에 등장하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

심정보
(서원대학교)

1. 서론

한국에서는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라는 세계 지도가 최초로 간행된 이래 국가와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유형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조선 전기의 지도는 그림 수준으로, 한반도 형상은 왜곡이 심하고 지도에 담긴 내용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간단한 지리적 정보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형상은 실제와 가까워지고 지도에 담긴 지리적 내용도 다양해졌다.

20세기 이전까지 조선 이외에도 중국, 서양, 일본 등에서 한반도 관련 지도가 다수 간행되었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인 1136년에 간행된 「화이도(華夷圖)」를 비롯하여 명나라 때인 1555년에 나홍선(羅洪先)이 발행한 『광여도(廣輿圖)』 등에 한반도가 나타나거나 조선 지도가 별도로 수록되었다. 18세기 전반에는 청나라 강희제(康熙帝)의 명령으로 완성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가 프랑스에 전해져 서양인의 동아시아 및 조선 전도 제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지도집에 수록된 「조선도」가 서양에 전해지기 전까지, 16세기 말부터 서양에서 제작된 아시아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는 막대기 형상 또는 조잡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일본은 1592년 임진왜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사전 조사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전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일본에서 완성된 조선 전도는 에도 시대(1603~1868)와 메이지 시대(1868~1912)를 거치면서 점차 정확해졌다. 그 바탕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자료, 일본이 서양과의 교류에서 획득한 조선 관련 자료, 일본의 한반도 조사 및 실측을 통한 자료 등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주목하여 일본이 조선 전도 간행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부터 1910년 한일병합 이전까지 그들이 만든 조선 전도에 나타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특성을 종단적으로 고찰하고, 나아가 20세기 초반 일본의 조선 전도 제작 성과가 한국에 미친 영향 등을 거시적으로 살펴본다.

2. 에도 시대 최초의 조선 전도 등장

일본이 조선에 관심을 두고 한반도를 지도로 나타내기 시작한 계기는 임진왜란이라 할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자 구키 요시타카(九鬼喜隆)에게 명령을 내려 만든 지도가 『조선국지리도(朝鮮國地理圖)』이다. 이는 조선 전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와 지방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기에 형식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후 유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이 1647년 그의 사위 최수익에 의해 간행되었고, 이것이 일본에 전해져 1698년 교토에서 일본어로 번각되었다(한상복, 1991). 이 책에는 독자들의 조선에 대한 이해를 도울 목적으로 「조선도」가 수록되었지만, 이 지도는 서적에 첨부된 것에 불과하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조선 전도가 단독 지도로 제작된 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1785년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1738~1793)가 만든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가 사실상 일본에서 간행된 최초의 조선 전도일 것이다(秋岡武次郎, 1971; 남영우, 1995).

하야시 시헤이는 에도 시대 후기의 경세가, 난학자, 지리학자로 센다이(仙台)와 에도(江戸)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과 관련된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 그는 여러 지역의 풍토, 생업, 풍속 등을 조사하기

도 했으며, 나가사키(長崎)에 체류하는 동안 네덜란드의 지리지와 세계 지도 등을 접하면서 세계의 지리와 정치사상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주요 저서로는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해국병담(海國兵談)』, 『홍모선도(紅毛船圖)』 등이 있다.

하야시 시헤이의 역작은 1786년에 간행된 『삼국통람도설』이라는 경세서 및 지리서이다. 이 책에서 ‘삼국’이란 일본과 인접한 조선(朝鮮)·유구(琉球)·하이(蝦夷)를 가리키며, 여기에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더한 지역의 지리·역사·풍습·산물 등을 기술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동진과 남하의 형세가 엿보이는 가운데, 일본 주변에 대한 명확한 지리 인식을 요구한 것이다(岡田俊裕, 2011). 이 책은 1785년 「하이국전도(蝦夷國全圖)」, 「유구삼성병삼십육도지도(琉球三省并三十六嶋之圖)」,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之圖)」, 「무인도지도(無人島之圖)」, 「수국접양일람지도(數國接壤一覽之圖)」가 간행되고 1년 후에 이를



그림1 「조선팔도지도」(출처: 요코하마시립대학교)

해설한 것이다.

이들 도서와 지도는 쇄국 시대에 러시아의 남하 등에서 비롯된 위기의식 아래 저술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이 담겨 있다. 그러나 당시 막부의 밖에서 국정에 참견하는 것은 금제(禁制)였기에 하야시 시헤이는 1791년 처벌되었으며, 그의 저작도 몰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은 계속 모사되어 후대까지 전해졌다. 그중 「조선팔도지도」는 1793년 하야시 시헤이가 별세한 직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여러 사람에 의해 재차 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이 지도는 현재 일본과 한국의 주요 도서관과 박물관 등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하야시 시헤이의 「조선팔도지도」는 실측도가 아니라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조선 전도를 바탕으로 완성된 것이다. 최초의 「조선팔도지도」의 출처는 조선대상서(朝鮮大象胥)이며, 나라바야시(樞林)가 비장(秘藏)하고 있던 진도(珍圖)라고 『삼국통람도설』에 기재되어 있다. 즉, 역관에 의해 조선에서 일본 쓰시마(對馬島)로 전해진 조선 전도를 나라바야시가 소장하고 있었고, 당시 나가사키에서 유학했던 하야시 시헤이는 2종의 조선 관련 지도를 접할 기회가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선팔도지도」를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지도가 어떤 지도이며, 어떤 경로를 거쳐 전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야시 시헤이가 완성한 「조선팔도지도」는 그가 별세한 이후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 모사되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거나 교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사 및 판각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 따라서 18~19세기에 여러 차례 모사된 하야시 시헤이의 지도는 원래 16세기에 제작되어 일본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원도와 그 내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남영우, 1995). 하야시 시헤이의 「조선팔도지도」 원도와 후대에 그것을 모사한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형상은 대체로 유사하지만, 지명 표기는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추가 또는 제외된 지명도 있다.

1785년 하야시 시헤이의 「조선팔도지도」에 그려진 한반도 형상은 실제 모습과 비교하면 부정확하고 조잡한 수준이지만, 당시에는 일본에서 완성된 최고의 조선 전도였다. 전체적으로 조선의 형상은 1530년 이항(李尙) 등이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에서와 유사하지만, 윤곽이나 담긴 내용은 조금 진전된 모습이다. 「팔도총도」에는 국가의 기밀을 고려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외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자연은 백두산을 비롯한 17개의 산과 주요 강, 섬, 바다 명칭 등을 나타내었고, 인문은 수도를 경도(京都)로 표기하고, 팔도는 경계를 나타내지 않고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표기하였다.

「팔도총도」에 그려진 한반도 형상은 실제에 비해 동서가 길고, 남북은 짧게 그려져 사각형에 가깝다. 특히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남북이 아닌 동서로 흐르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왜곡이 심하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은 단순하게 그려졌으며, 표현된 섬도 몇 개에 불과하다.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나타나 있지만, 독도는 울릉도 서쪽에 그려져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고, 부산 동남쪽에는 쓰시마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하야시 시헤이의 「조선팔도지도」에 그려진 한반도 형상과 내용은 더 진전된 모습이다. 백두산을 비롯하여 주요 산이 40개 이상 표현되었고, 주요 강과 물줄기도 상세하며 유역 면적이 넓게 표시되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 한반도 주변에 바다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으며, 주요 섬은 20개 이상으로 「팔도총도」에서보다 많이 표시했다. 서울은 경사(京師)로 표기되었고, 전국의 팔도는 경계를 표시하고 네모 칸에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표기하였다. 또한 이 지도에는 「팔도총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조선의 도시 명칭이 다수 표기되었다.

「조선팔도지도」의 한반도 형상은 「팔도총도」에 비해 동서가 짧아졌고, 남북은 길게 표현되었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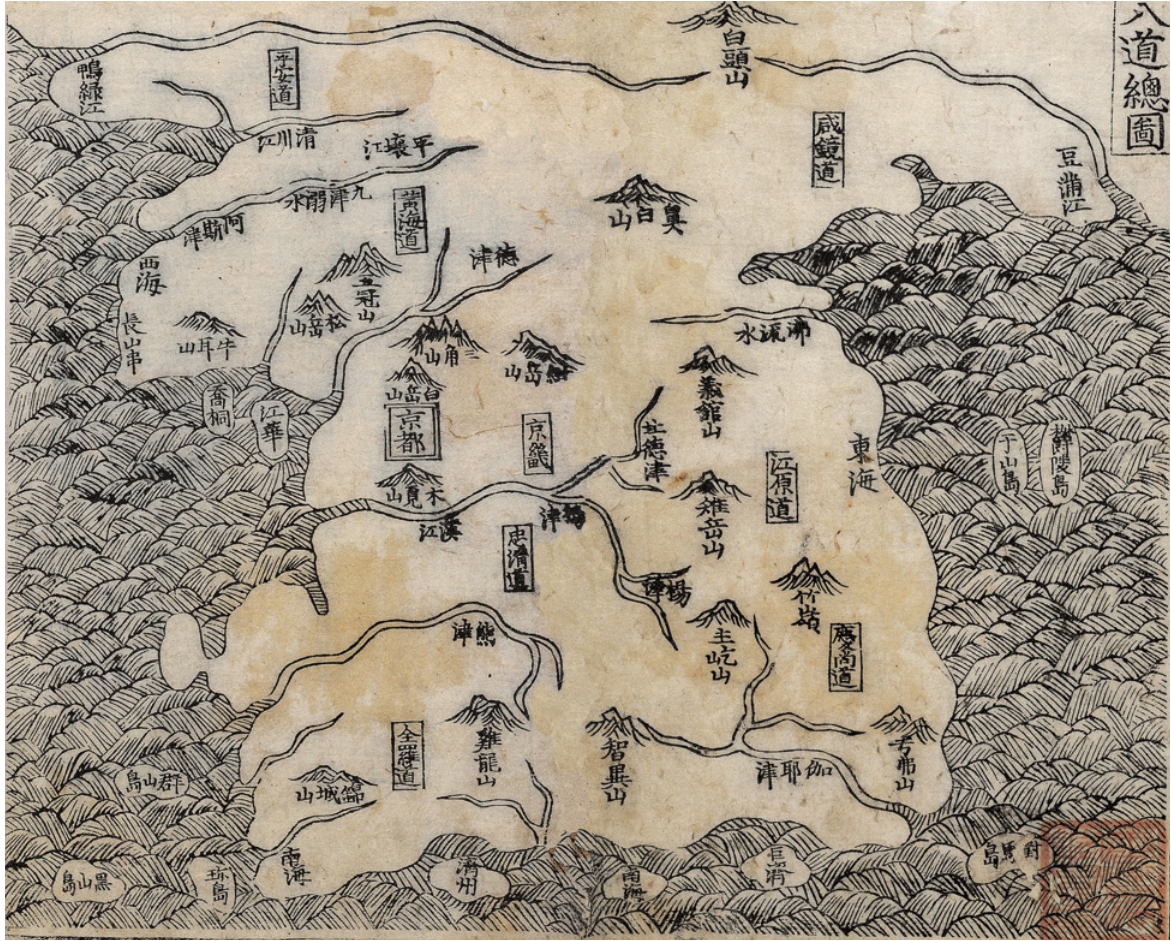


그림 2 「팔도총도」(출처: 서울역사박물관)

과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팔도총도」에서와 같이 여전히 동서로 거의 평행하게 흐르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왜곡이 심하다. 황해안과 남해안의 해안선 표현은 다소 복잡해졌고, 섬도 좀 더 많이 표시되었다. 동해에는 울릉도가 가장 큰 섬으로 나타나 있지만, 독도는 제외되었다. 울릉도에는 섬의 명칭이 울릉도 천산도(鬱陵嶋千山島)로 표기되었다. 천산도는 우산도(于山島)의 ‘우(于)’ 자를 ‘천(千)’으로 잘못 읽은 것이다. 부산 동남쪽에는 「팔도총도」에서와 같이 쓰시마가 포함되었다.

그 밖에도 「조선팔도지도」에는 「팔도총도」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방위 개념으로 울릉도 부근에 동(東), 황해도 앞바다에 서(西), 제주도 앞바다에 남(南), 백두산 옆에 북(北)을 한자·가타카나·한글로 기재하였다. 그리고 위도 개념으로 조선의 위도가 35도부터 43도에 걸쳐 표시되었는데, 동서와 남북 간 정확성은 떨어진다. 또한 지역별로 서울까지의 상경 소요 일수를 표시하였다.

한편 에도 시대 중후기에 걸쳐 제작된 모리 후사이(森楓素)의 「조선국도(朝鮮國圖)」는 1704년에 초판이 간행되었으며 1863년에 보각된 『강호대절용해내장(江戶大節用海內藏)』이라는 백과사전에 수록되었다. 이 지도는 조선 전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 계통 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졌다. 조선의 형상은 매우 부정확하며, 황해도 이남의 중부 및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주요 산지와 하천, 섬, 도읍의 명칭 등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팔도의 명칭은 황해도 북쪽에 경상도, 그 남쪽에 함경도, 그리고 강원도에 충청도와 평안도를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당시 수도는 네모 안에 도(都)로 표기되었고, 옛 수도로서 고려 즉 북경(北京), 백제 즉 남경(南京), 신라 즉 동경(東京)이 표시되었다. 강화도는 홍화도(紅花島), 제주도는 제주(濟州)와 탐라(耽羅) 두 섬으로 나타내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및 형상도 부정확하다. 강원도 양양의 동쪽 바다에 독도를 나타냈는데 우산도(于山島)의 ‘우(于)’ 자를 ‘자(子)’로 잘못 읽어 자산도(子山島)로 표기하였고, 그 남쪽에 그려진 울릉도는 작릉(爵陵)으로 표기하였다.



그림 3 「조선국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3. 메이지 시대 다양한 조선 전도 등장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주변 국가의 지리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많은 지도가 제작되었다. 지도 제작자들은 일본의 이웃 나라인 조선, 청국,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등의 지도 제작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민간에서 다수의 지도가 발행되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 전도는 조선과 서양에서 편찬된 지도의 영향을 받았다. 메이지 후기로 가면서 일본의 한반도 조사와 실측 등을 바탕으로 그들이 간행한 조선 전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형상은 점차 정확해졌다. 나아가 이들 조선 전도는 20세기 초반 한국의 지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1) 조선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도

19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정한론 대두, 조선과의 관계 회복, 청일전쟁 등 국가의 정치적 영향으로 조선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에 따라 조선의 지리지와 지도 간행이 크게 늘었다. 일본 정부와 민간에서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각종 문헌과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 유형의 조선 전도를 완성했다.

에킨대 조선에서 간행된 지도를 바탕으로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의 「개정신전조선전도(改訂新鑄朝鮮全圖)」(1875년), 히라다 게이(平田繁)의 「조선국지전도(朝鮮國之全圖)」(1876년), 후쿠조 고마타로(福城駒多郎)의 「조선국세도(朝鮮國細圖)」(1882년), 가바이 다쓰노스케(榑井達之輔)의 「조선국지명세표(朝鮮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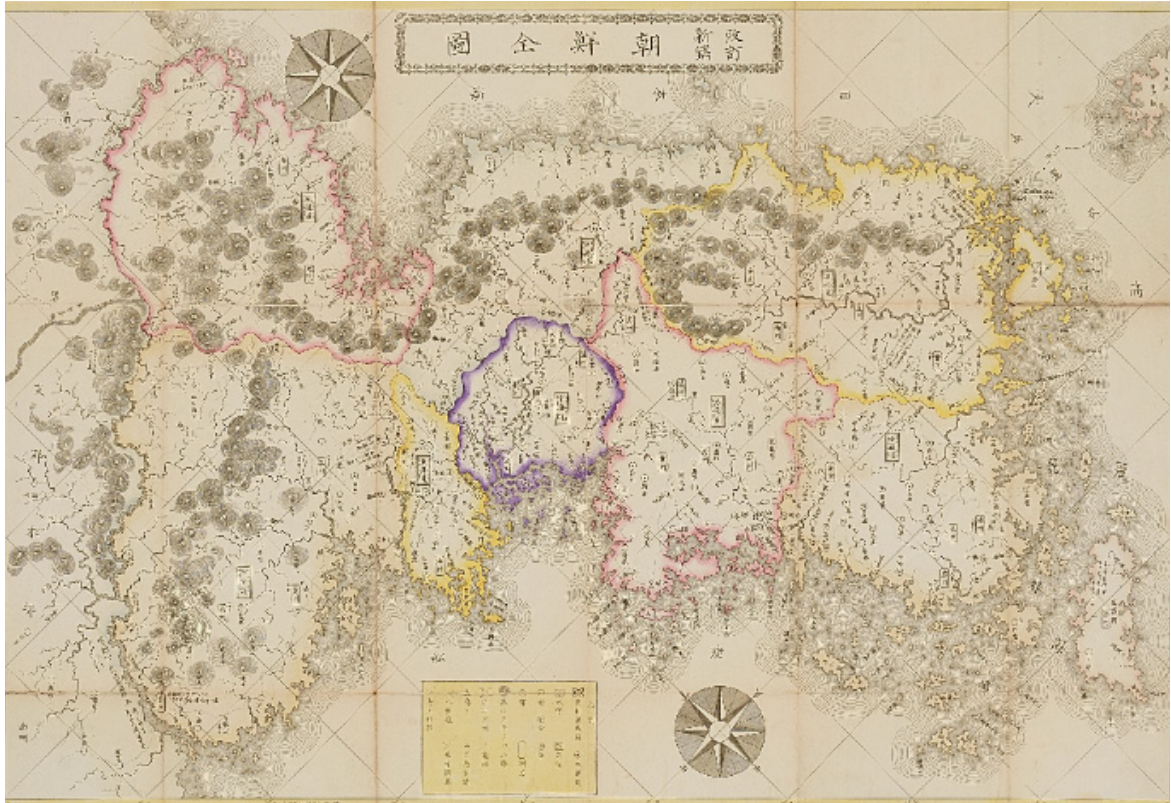


그림 4 「개정신전조선전도」(출처: 독도재단)

之明細表)』(1887년), 미야모토 오키아키(宮本興晃)의 「조선전도(朝鮮全圖)」(1894년), 소메자키 노부후사(染崎延房)의 「조선국세견전도(朝鮮國細見全圖)」(1873년), 가와구치 쓰네요시(川口常吉)·이시다 교쿠진(石田旭山)의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1874년) 등이 제작되었다. 이들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의 형상과 지명 표기 등은 조선에서 간행된 지도에서와 유사하며, 일본식 지명을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외무성 관리였던 사다 하쿠보 등은 조선의 사정을 염탐하기 위해 1869년 12월 쓰시마, 1870년 2월 부산의 초량 왜관에서 조선 관련 자료를 조사 및 수집했다. 1870년 4월 사다 하쿠보 등은 귀국 후에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태정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13개의 조사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시말을 담고 있다. 1875년 사다 하쿠보 등이 완성한 「개정신전조선전도」는 그들이 쓰시마와 부산에서 수집한 각종 조선 관련 문헌과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개정신전조선전도」에 나타난 한반도 형상은 조선 전기의 지도에서와 유사하게 남북의 길이는 짧고, 동서의 폭은 넓다. 중국과 경계를 이루는 압록강과 두만강은 동서로 흐르는 양상으로 표현되어 왜곡이 심하다. 주요 산지는 원 모양으로 한반도 북동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하천과 도시가 비교적 상세하게 표시되었다. 주변의 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이 다수 위치하며, 삼면에 바다 명칭을 표기하였다. 강원도 울진 동쪽 바다에는 울릉도를, 그 남쪽에는 독도를 나타냈지만, 섬의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다.

1876년에 간행된 히라다 게이의 「조선국지전도」는 하나의 지면에 일본과 조선을 함께 나타냈다. 우측에 수록된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에는 홋카이도 이북의 사할린과 치시마(千島)제도(插圖)로 제시되었지만, 최남단 오키나와는 제외되었다. 지역은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했으며, 여백에는 부현표, 도쿄에서 각 지역까지의 해상 이수(里數)를 도표에 기입하였다. 좌측에 그려진 「조선국지전도」는 조선 전기에 완성된 「팔도총도」 계통 지도를 참고한 흔적이 보인다. 한반도 형상은 「팔도총도」에서와 유사하게 부정확하며, 특히 북방의 평안도와 함경도의 왜곡이 심하다. 수도는 경성(京城)으로 표기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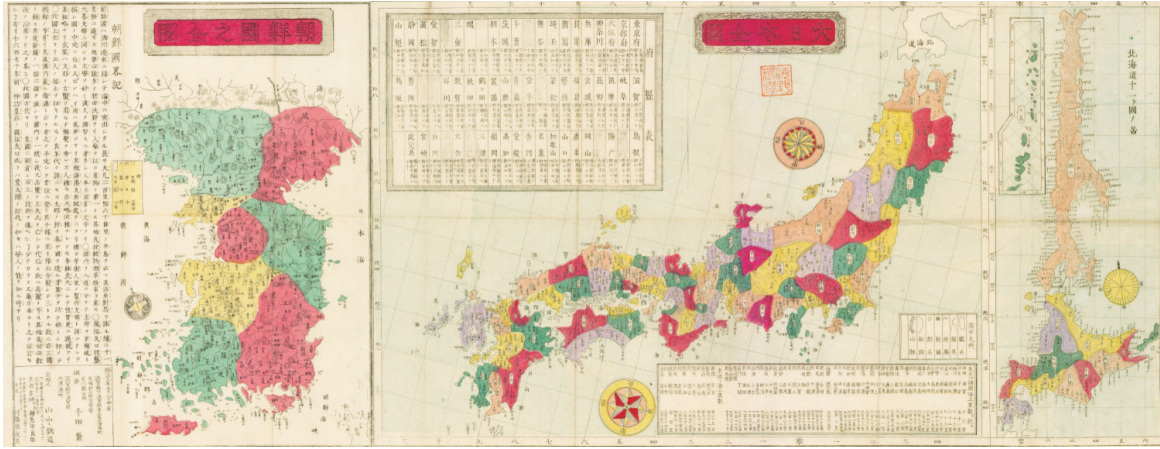


그림 5 「조선국지전도」(출처: 독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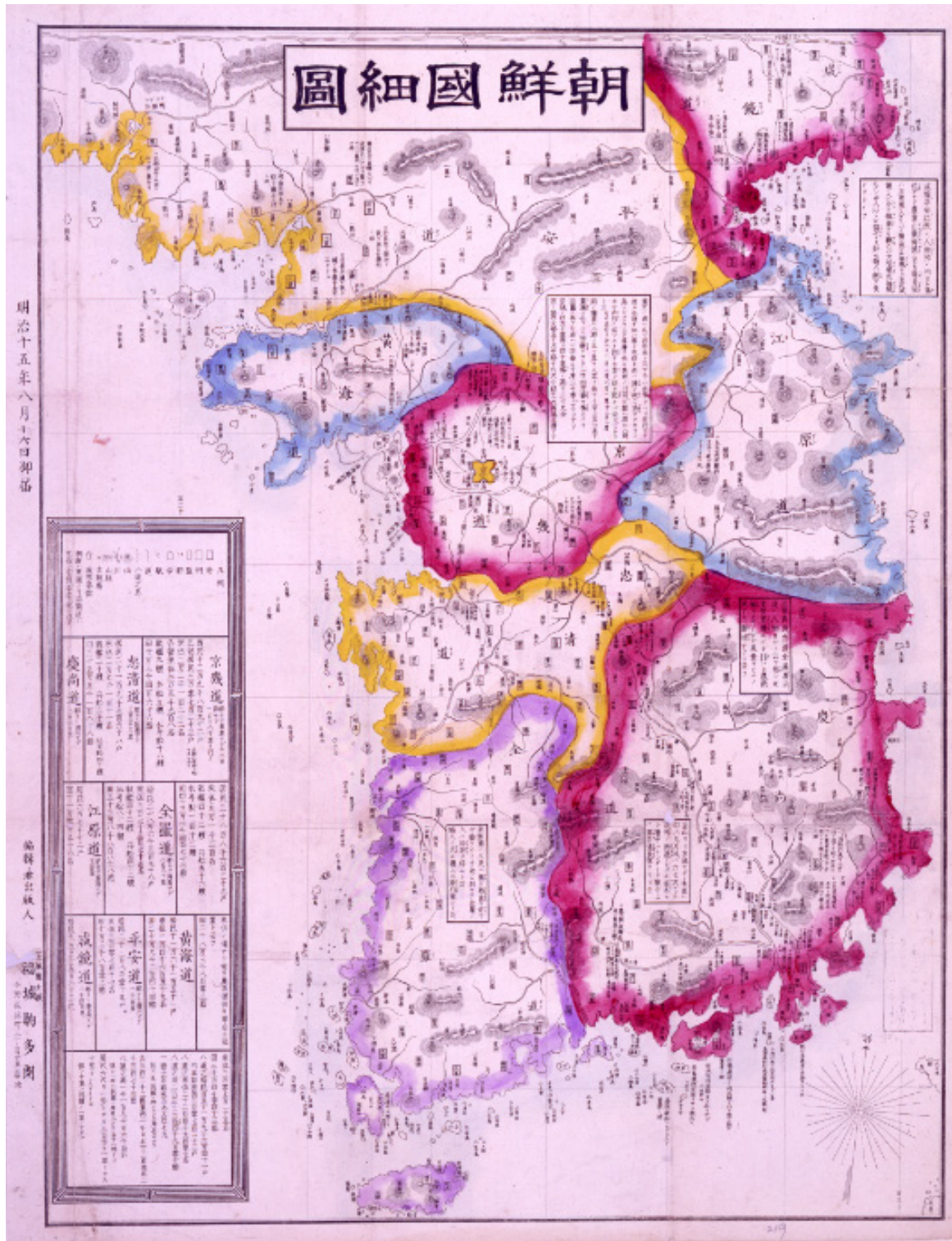


그림 6 「조선국세도」(출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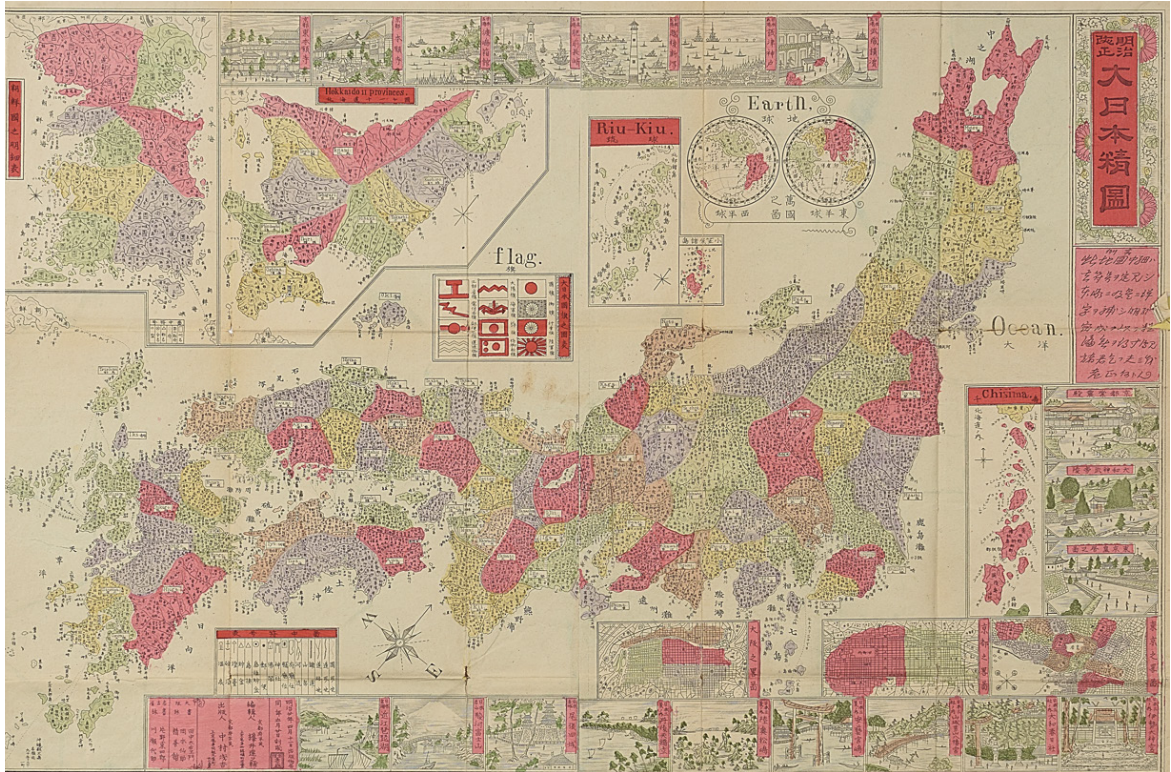


그림 7 「조선국지명세표」(출처: 독도재단)

전국 팔도는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했다. 지도에는 주요 산지와 하천, 도시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강원도 울진 동쪽 바다에 울릉도는 강원도와 동일하게 초록색으로 나타냈지만, 섬의 명칭은 일본식 죽도(竹島)로 표기되었다. 독도는 울릉도 남쪽에 작은 섬으로 나타냈지만, 명칭은 표기하지 않았다.

1882년에 간행된 후쿠조 고마타로의 「조선국세도」는 왜곡이 심해 한반도의 북부 지방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도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지도를 참고한 흔적이 보인다. 조선 전기에는 한반도의 형상이 남북은 길이가 짧고, 동서의 폭은 넓게 표현되었다. 특히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하여 중국과의 국경선은 거의 동서로 수평을 이루었다. 수도는 경(京)으로 기재되었고, 팔도의 경계는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산지와 산맥 및 물줄기 등의 표현이 비교적 상세하며, 인문 지리로 부, 주, 감, 군 등의 행정지명, 역과 전쟁터 등을 제시하였다. 각 도에는 네모 안에 주민의 기질이 적혀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팔도에 대한 정보가 있다. 조선 후기의 지도를 참고한 흔적은 울릉도 동쪽에 독도가 작은 섬으로 그려진 것이다. 두 섬의 명칭은 조선의 방식으로 울릉도를 가리키는 울도(蔚島)와 독도를 의미하는 우산도(于山島)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두 섬의 크기로 볼 때 지명이 반대로 표기되었다. 「조선국세도」와 매우 유사한 지도로 1894년 미야모토 오키아키가 제작한 「조선전도」가 있다.

1887년에 간행된 가바이 다쓰노스케의 「조선국지명세표」는 『명치개정대일본정도(明治改正大日本精圖)』에 수록된 것이다. 『명치개정대일본정도』에 나타난 일본의 형상은 비교적 양호하다. 지도에는 일본의 주요 섬을 비롯하여 변방의 치시마제도, 류큐, 오가사와라 등이 지명 중심으로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지도 여백에는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시가지 약도와 요코하마와 고베, 나가사키 등의 항구, 주요 성과 호수, 온천, 국명과 군명 명세표, 유명산표, 각부현청 위치 관할 및 이정표 등 백과사전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쓰시마와 부산 간에는 항로 및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의 좌측 상단에는 「조선국지명세표」라는 제목으로 조선 팔도가 간략하게 제시되었다. 한반도 형상은 심하게 왜곡되어 조선 전기에 간행된 「팔도총도」 계통 지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는 경(京)으로 나타내었고, 전국 팔도는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했다. 강원도 삼척 동쪽 바다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와 동일하게 분홍색으로 채색하였다. 그러나 섬의 명칭은 일본식으로 표기하여 울



그림 8 「조선국세견전도」(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릉도는 죽도(竹島)로, 독도는 저성도(柞城シマ)로 기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간행된 조선 전도 가운데 한반도 남부의 형태가 다소 길어진 것도 있다. 1873년에 간행된 소메자키 노부후사의 「조선국세견전도」는 조선 전기의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계통을 저본으로 하여 아홉 가지 색을 사용했다. 지도에는 수도가 경성(京城)으로 표기되었고, 전국 팔도와 각 도시가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산지와 하천, 도로망, 취락, 병영, 수영, 진보 등의 표현이 비교적 상세하며,

부산과 쓰시마 사이에 붉은색의 항로가 표시되었다. 방위 표시로 남동에 동(東), 서북에 서(西), 남서에 남(南), 동북에 북(北)을 각각 바다에 기재하였다.

제주도의 형상은 비교적 실제에 가깝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부정확하다. 강원도 울진 동쪽 바다에 울릉도를 나타냈고, 그 남쪽에 독도가 있다. 조선의 지도에서 독도는 대체로 울릉도 동쪽에 표시되어 있지만, 이 지도에서는 일본의 시각이 반영되어 독도가 울릉도 남쪽에 그려졌다. 두 섬의 명칭을 보면, 울릉도(蔚陵島)와 함께 그 옆에 '일본에서는 이것을 죽도(竹島)라고 한다'라는 글귀가 있다. 독도는 한국식으로 우산도(于山島)로 표기되었다. 「조선국세견전도」와 유사한 지도로 1874년 가와구치 쓰네요시·이시다 교쿠진이 제작한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가 있다.

2) 서양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도

일본은 1850년대에 미국, 러시아 등과 화친조약을 맺기 전까지 오랫동안 서구 세계에 대해 쇄국 정책을 유지했으며, 유일하게 1600년대 전반부터 네덜란드와는 교류를 지속해 왔다. 16세기 중반부터 서양의 선교사, 탐험가, 항해자, 연구자 등이 동아시아에 진출함에 따라 유럽에서 동아시아는 미지의 세계라는 인식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동양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지리 정보를 계속해서 유럽으로 보냈으며, 서양에서 생산된 새로운 지리 지식이 네덜란드 상관(商館)이 있던 규슈의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에 도입되어 일본인의 지리적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전반 중국에서 「조선도」가 수록된 『황여전람도』가 프랑스에 전해졌으며, 당빌(Jean-Baptiste Bourguignon d'Anville)은 「조선도」와 여러 조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1720년대 전반 「조선왕국도(ROYAUME DE CORÉE)」를 완성했다. 이 지도는 당시 서양에서 만들어진 획기적인 조선 지도로, 이후 서양 각국의 정부 및 민간 지도 제작자들이 「조선왕국도」를 참고하여 조선 관련 지도를 완성했다. 나아가 서구에서 제작된 각종 지도는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인의 조선 전도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 제작된 한반도 및 주변 해역 지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부정확한 지리 정보가 담긴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의 「일본전도(KARTE von JAPANISHEN REICHEN)」(1840년)와 1862년 영국 해군에서 간행한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나타나 있는 「일본(JAPAN)」이라는 해도이다. 1823~1829년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에서 의사로 근무했던 독일인 지볼트는 귀국한 뒤 1840년에 완성한 「일본전도」에서 아르고노트, 울릉도, 독도의 위치와 명칭을 잘못 표시하여 유럽과 일본 사회에서의 조선 지리 인식에 혼동을 가중시켰다.

영국 해군에서 간행한 「일본」이라는 해도는 크루젠슈테른(Krusenstern)과 지볼트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일본열도의 형상은 비교적 양호하며 산지와 하천, 주요 지역의 명칭, 바다의 수심 등이 표시되었다. 반면 조선 부분은 일본처럼 지리적 내용이 풍부하지 않으며, 호남 서해안의 형상은 왜곡이 심하다. 동해상에는 울릉도 위치에 섬의 명칭을 Matu sima, Dagelet I., Rus. Dajette로 표기하였고, 울릉도 동남쪽에는 독도를 두 섬으로 표시하고, 섬의 명칭을 Liancorut R., Hornet I., Menelai & Olivutsa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울릉도 북서쪽에는 가상의 섬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Tako sima or Argonaut로 표기하였다.

지볼트와 영국 해군이 제작한 부정확한 조선 및 일본 지도는 19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동해상의 울릉도 및 독도의 위치와 명칭 표기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한반도 형상의 왜곡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정부가 이러한 부정확한 서양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대표적인 지도는 1855년 막부에서 간행한 「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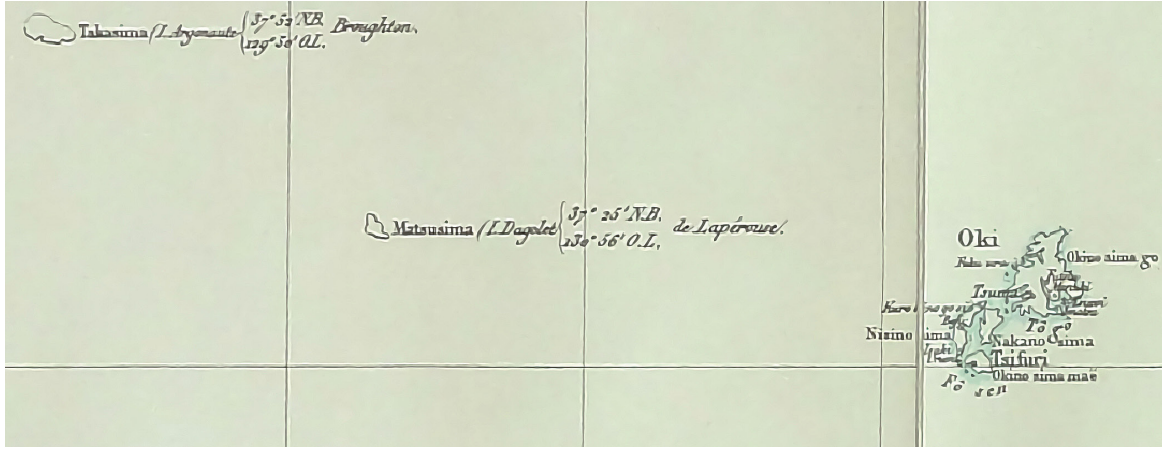


그림 9 지볼트의 「일본전도」(출처: 독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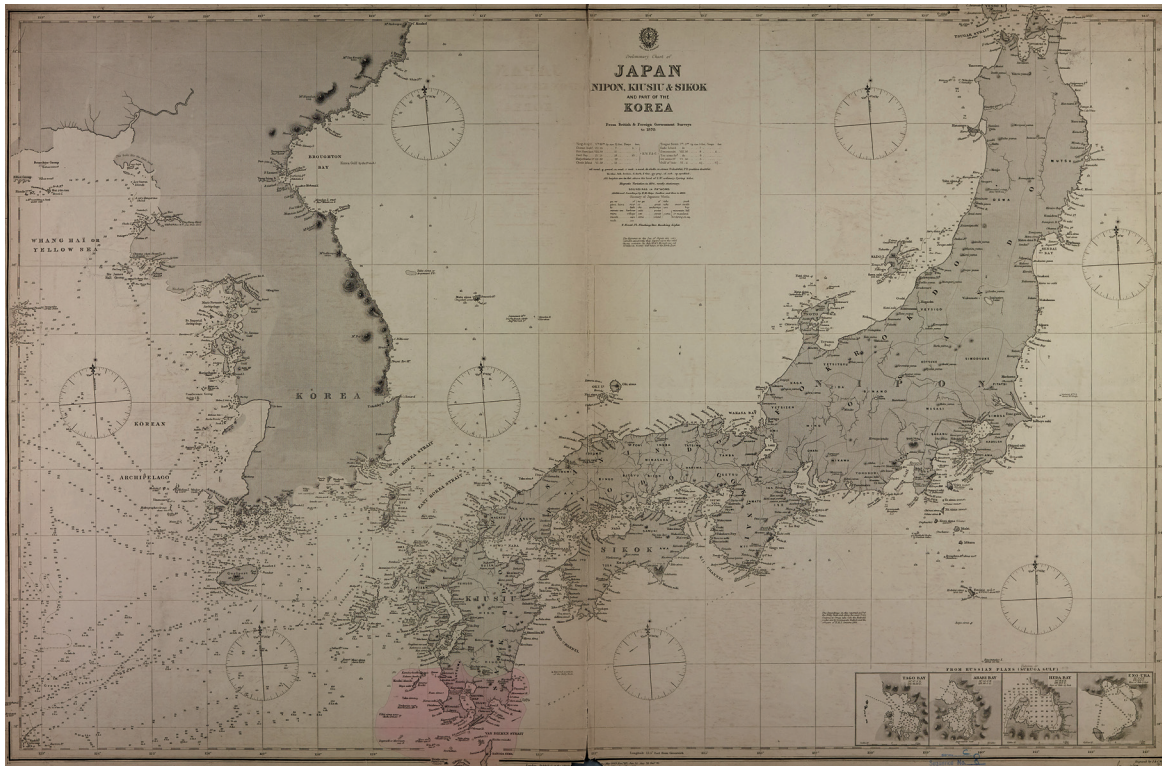


그림 10 영국 해군에서 간행한 「일본」(출처: 독도재단)

만국전도(重訂萬國全圖), 1874년 육군참모국이 간행한 「아세아동부여지도(亞細亞東部輿地圖)」 등이다. 지볼트의 「일본전도」에 영향을 받은 막부의 「중정만국전도」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종래 막부의 공식 바다 명칭이었던 조선해(朝鮮海) 표기가 사라졌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세계 전도 수준에서 새롭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두 섬의 위치와 명칭이 잘못 기재되어 아르고노트를 울릉도(竹島)로, 그 남동쪽에 울릉도를 독도(松島)로 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영국 해군의 「일본」 해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육군참모국의 「아세아동부여지도」에서도 울릉도 북서쪽의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울릉도(竹島)를, 울릉도 위치에 독도(松島)를 표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이 지도에서는 한반도 호남 지방의 해안선이 심하게 왜곡되었다.

민간의 지도 제작자들도 메이지 후기까지 일본 정부의 혼란스러운 지도를 바탕으로 정확성이 결여된 조선 전도를 재생산했다. 일본 전도나 동아시아 지도에서 조선이 부정확하게 나타난 지도는 1885년 시미즈 아키라(清水明)가 제작한 「신찬대일본여지전도(新撰大日本輿地全圖)」, 1894년 시미즈 쓰네타로(清水常太郎)가 제작한 「일청한삼국여지도(日清韓三國輿地圖)」와 「일청한삼국명세지도(日清韓三國明細地圖)」, 1894년 나카가와 잇도쿠(中川一徳)가 제작한 「대일본지나조선신지도(大日本支那朝鮮新地圖)」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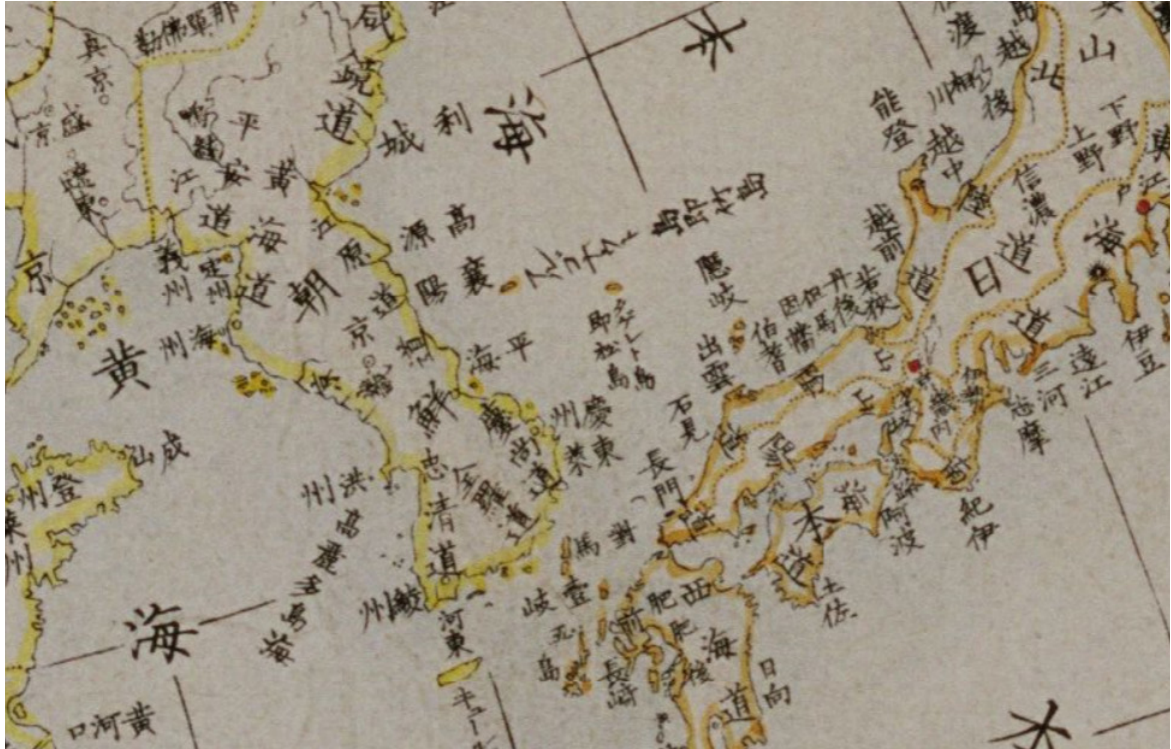


그림 11 「중정만국전도」(출처: 요코하마시립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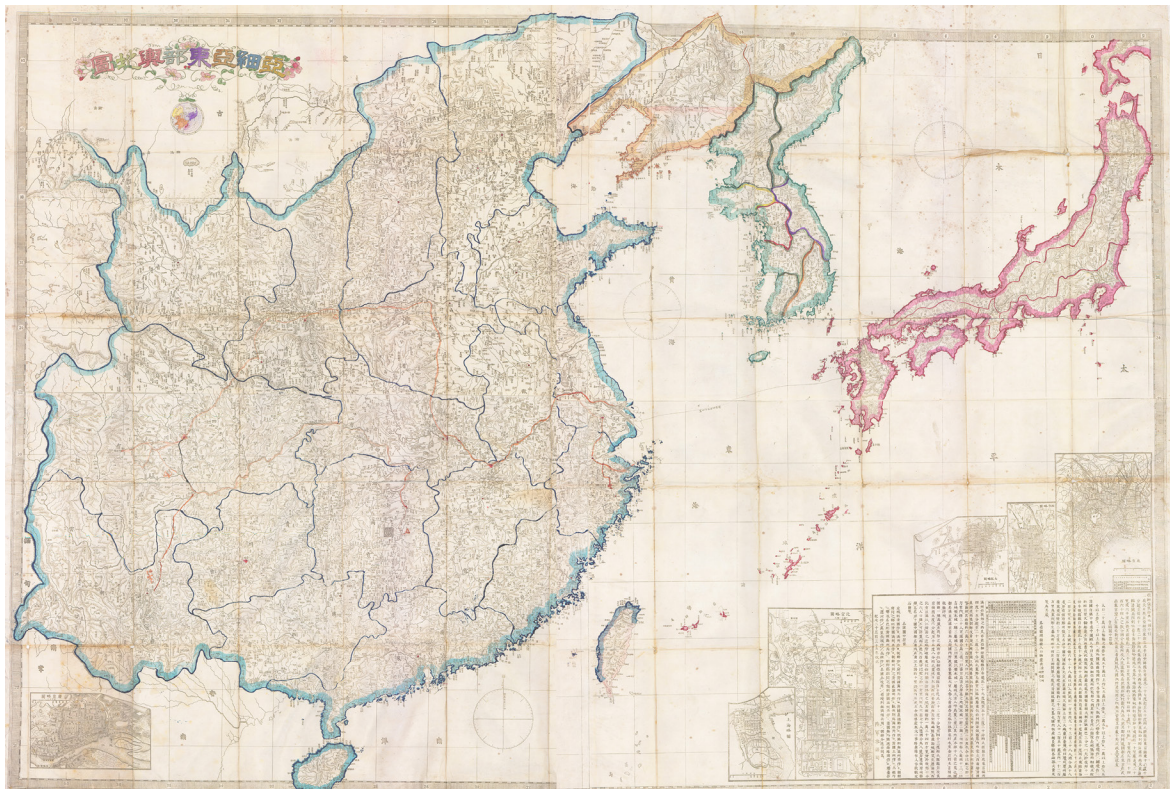


그림 12 「아세아동부여지도」(출처: 독도재단)

다. 단독으로 간행되거나 책에 수록된 조선 전도로는 1882년 오무라 쓰네시치(大村恒七)가 제작한 「조선전도(朝鮮全圖)」, 1894년 가가와 테쓰오(香川鉄夫)가 제작한 「조선전도(朝鮮全圖)」, 1896년 마노 분지(眞野文二)가 제작한 「조선왕국(朝鮮王國)」 등이 있다.

오무라 쓰네시치의 「조선전도」(1882년)는 한반도의 윤곽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충청남도 이하 호남 서해안의 형상은 육군참모국의 「아세아동부여지도」(1875년)를 모방하여 부정확하다. 이 지도는 경선과 위선을 사용했으며, 경선의 기준은 도쿄이다. 조선의 수도는 한성(漢城)으로 표기되었고, 전국 팔도는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했다. 주요 산지는 우모식이 아닌 인자(人字) 모양으로 묘사되었고, 물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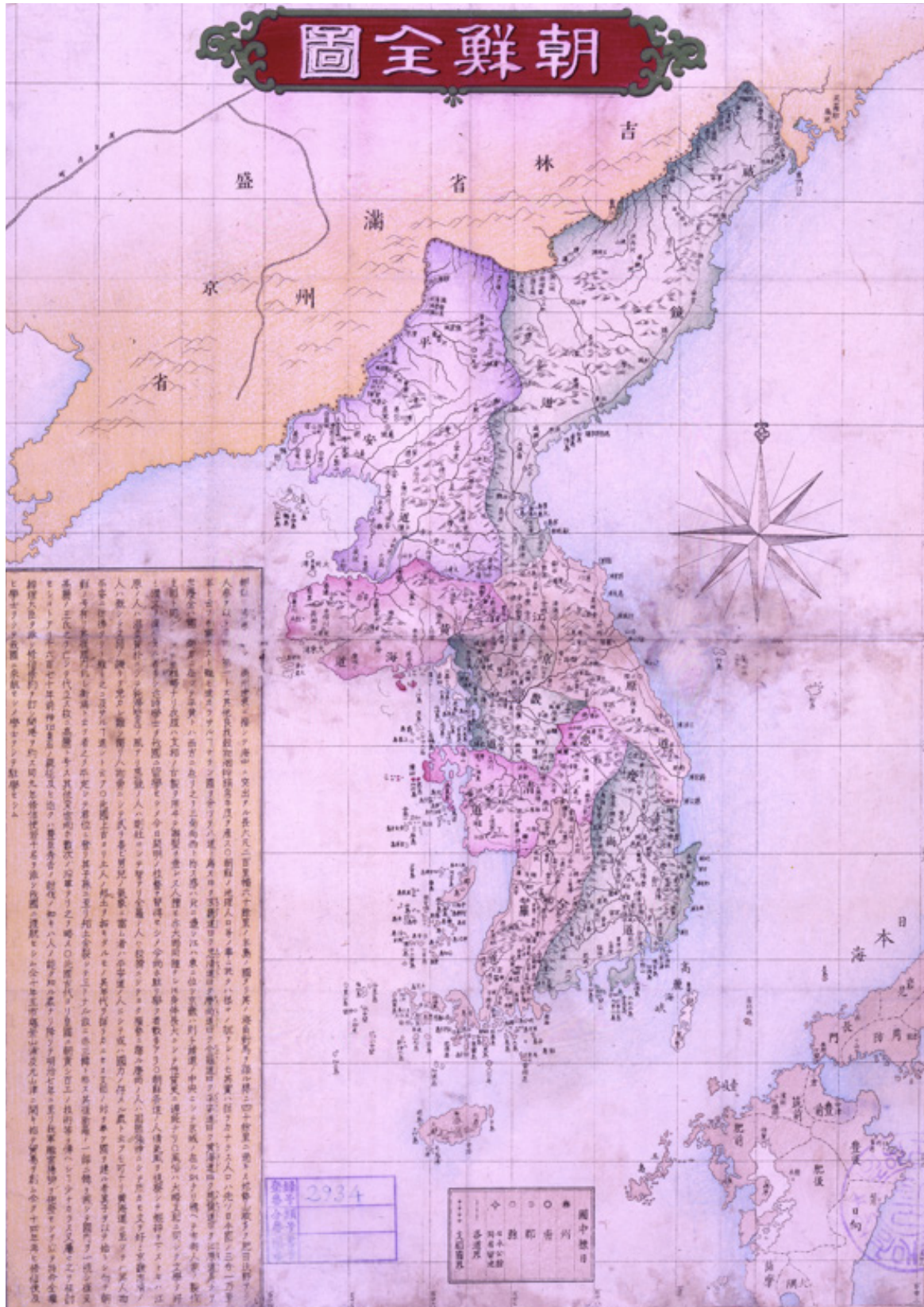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전도」(출처: 영남대학교 박물관)

는 구체적으로 표시되었다. 주·부·군·현의 명칭과 교통로, 일본의 공관 및 거류지가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 소속으로 동일하게 채색되었다. 그러나 두 섬의 위치와 형상, 명칭 표기는 잘못된 지리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확하다. 독도는 울릉도 위치에 송도(松島)로, 울릉도는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 죽도(竹島)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올바른 지도라면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는 삭제되고, 울릉도 위치에 죽도(竹島), 그 동남쪽에 독도를 가리키는 송도(松島)가 새롭게 표시되어야 한다.

시미즈 아키라의 「신찬대일본여지전도」(1885년)는 일본 전도이지만 좌측에 한반도 일부가 포함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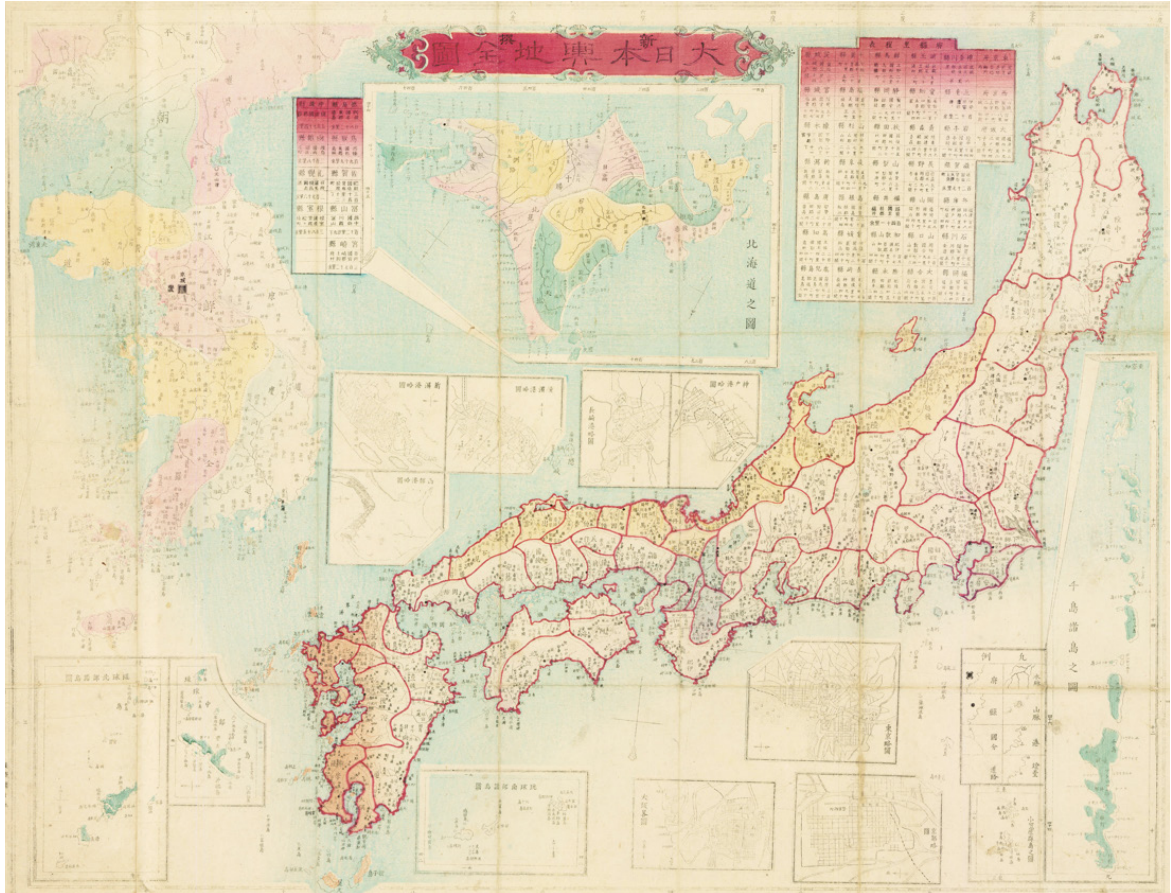


그림 14 「신찬대일본여지진도」(출처: 독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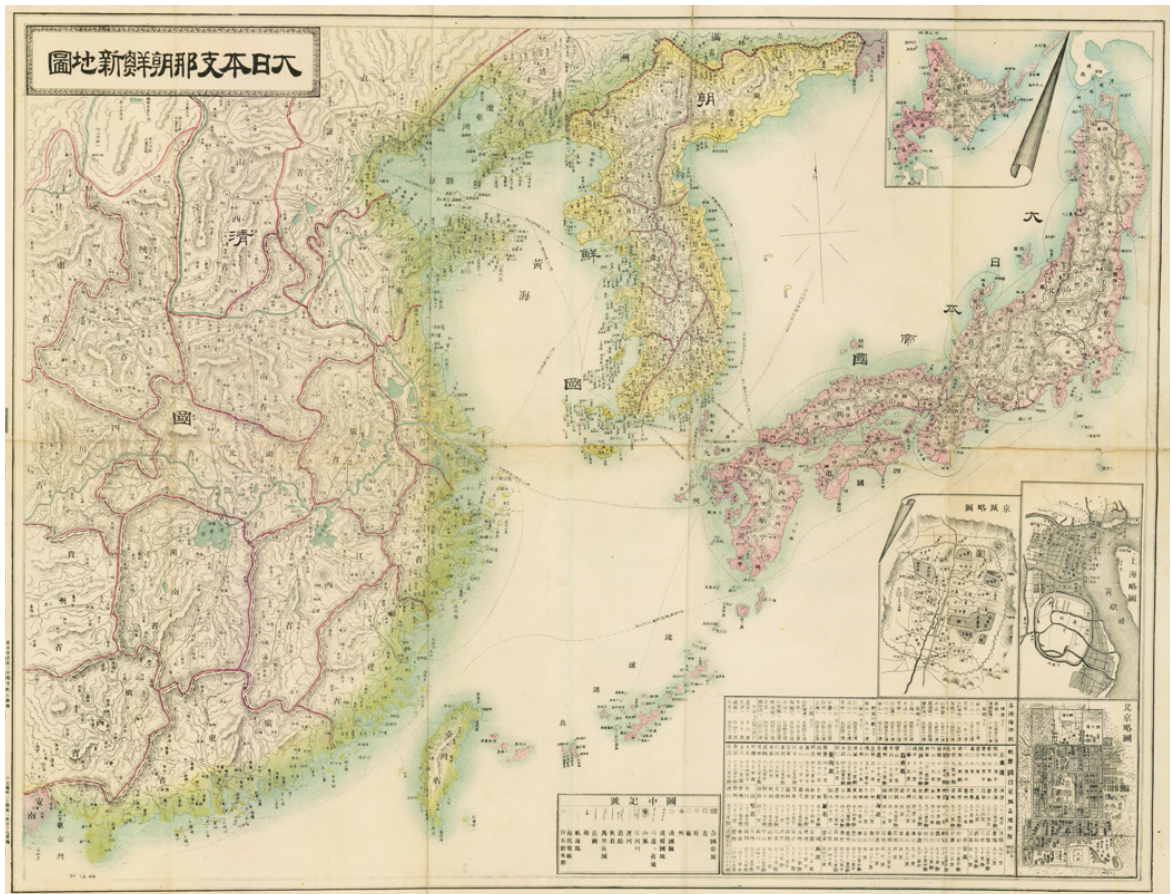


그림 15 「대일본지나조선신지도」(출처: 독도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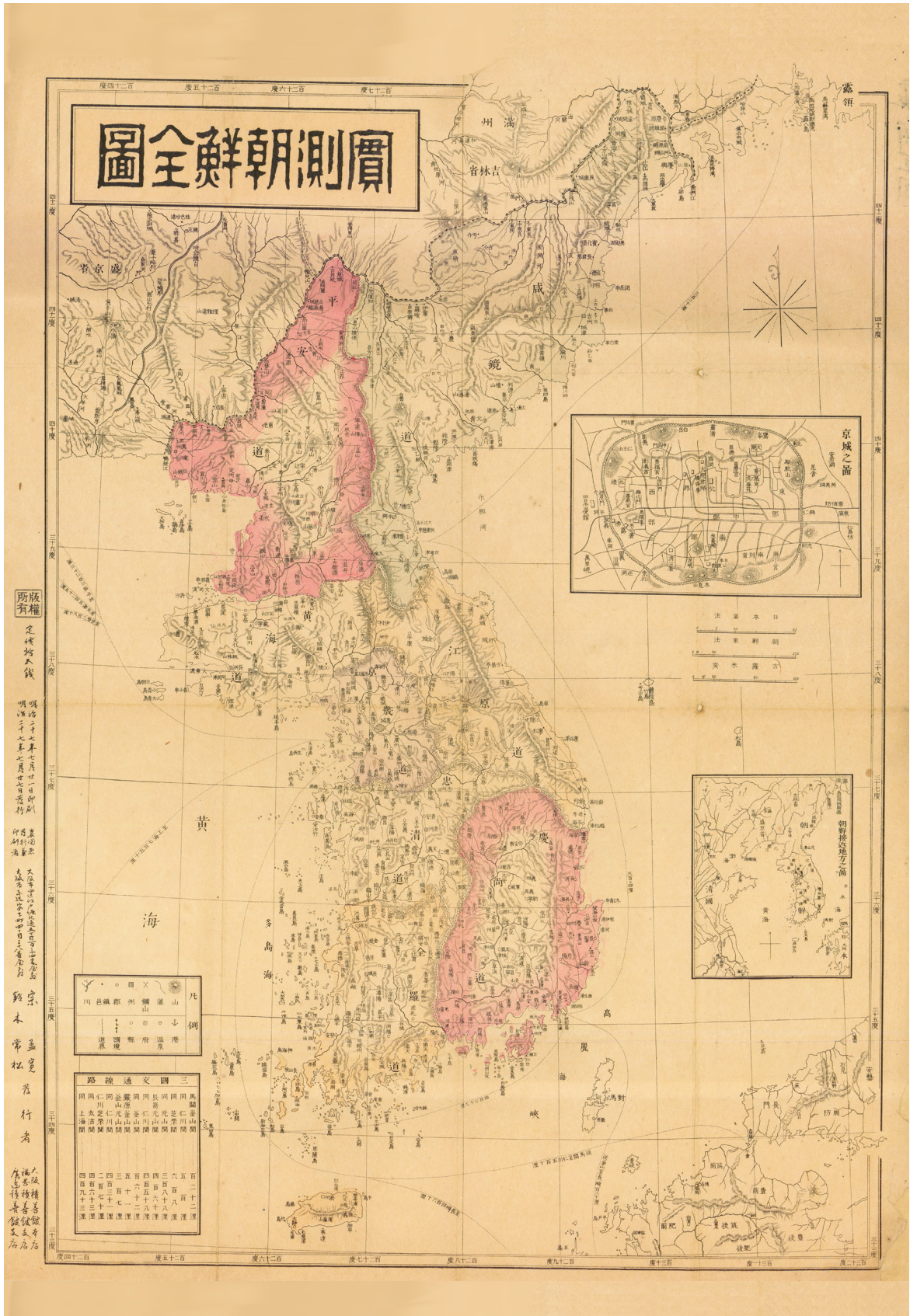
있다. 일본의 형상은 비교적 양호하며, 주요 섬은 붉은 선으로 지역의 경계를 구분했다. 주요 하천과 지역 명칭도 상세하다. 지도 여백에는 삼도로 변방의 치시마제도, 류큐제도, 오가사와라제도가 있다. 또한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의 주요 시가지 약도와 고베, 나가사키, 요코하마, 니가타, 하코다테 등의 항구 약도가 배치되었다. 조선은 평안도와 함경도 이북이 제외되었고, 호남 서해안의 형상은 다른 지도를 모방하여 부정확하다. 수도는 경성(京城)으로 기재되었고, 전국 팔도는 채색을 다르게 하여 구분했다. 주요 하천은 흐름을 표현했지만, 주요 산지는 명칭만 기재하였다. 제주도는 가장 큰 섬으로 표현되었고 형상이 양호하지만,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서양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리적 정보를 이용한 까닭에 위치, 형상, 명칭 표기가 부정확하다.

나카가와 잇도쿠의 「대일본지나조선신지도」(1894년)는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 간행되었다. 일본은 최북단 북방 영토에서 최남단 류큐제도까지 분홍색으로, 중국은 대만을 포함하여 초록색으로, 조선은 황색으로 채색하여 국가의 경계를 구분했다. 한반도 형상은 백두산에서 두만강이 흐르는 부분이 거의 수평에 가까워 부정확하다. 호남 서해안은 육군참모국의 「아세아동부여지도」(1874년)에 제시된 조선 부분과 동일하게 왜곡되었다. 지도 우측 하단에는 삼도로 「경성약도」, 「상하이약도」, 「베이징약도」 등이 있으며, 각 항(港) 해리(海里)와 조선 경성에서 각지까지의 이정(里程)이 도표로 제시되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부정확한 서양 지도를 참고하여 위치, 형상, 명칭 표기가 부정확하다. 울릉도 위치에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송도(松島)가, 북서쪽 가상의 섬 아르고노트 위치에는 울릉도를 가리키는 죽도(竹島)가 표기되었다.

3) 20세기 전후 정확한 조선 전도의 완성과 한국에 미친 영향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서구의 정확해진 각종 지도와 지도 제작 기법이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의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에서는 1890년대부터 한국에서 근대적 측량을 수행하여 1:5만의 대축척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성과를 지도에 반영함에 따라 20세기 전후 일본에서 제작된 조선 전도는 거의 실체에 가깝게 정확해졌다. 예를 들면 1894년 소모칸(宗孟寬)의 「실측조선전도(實測朝鮮全圖)」, 1894년 작자 미상의 「조선국명세신지도(朝鮮國明細新地圖)」, 1894년 고바시 스토케(小橋助人)의 「조선해륙전도(朝鮮海陸全圖)」, 1894년 나카무라 요시마츠(中村芳松)의 「조선명세전도(朝鮮明細全圖)」, 1904년 이토 마사조(伊藤政三)의 「한국전도(韓國全圖)」, 1905년 사이키 히로나오(齊木寬直)의 「한국전도(韓國全圖)」, 1908년 지리연구회(地理研究會)의 「한국신지도(韓國新地圖)」 등이다. 20세기 초반 일본이 서구의 지도 제작 기법을 적용하여 만든 정확한 조선 전도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모칸의 「실측조선전도」(1894년)는 조선, 유럽, 일본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반도 형상이 비교적 양호하다. 소모칸은 도쿄에서 시습의숙(時習義塾)이라는 지도 제작 학교를 개교하여 지도 전문가를 양성했던 사카이(酒井) 집안의 3남이다. 그는 시습의숙의 교수로 활동하는 동시에 1881년부터 육군참모본부 지도과에 출임(出任)하여 지도를 작성했으며, 사직 후에도 일본, 조선, 중국, 일청한, 학교용 지리부도 등 다수의 지도를 완성했다. 「실측조선전도」는 경위선과 방위 표시를 사용하고, 거리 관계를 이해하도록 일본의 이법(里法)과 조선의 이법을 함께 제시했다. 조선의 수도는 한성(漢城)으로 표기하였고, 산지와 하천, 행정지명(부, 주, 현, 군), 항구, 온천, 광산 등이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바다에는 부산, 인천, 원산 항구를 중심으로 국내외를 연결하는 항로가 표시되었다. 여백에는 삼도로 「경성시가지도」, 「삼국교통선로」가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동양과 서양의 자료를 이용하여 표현한 흔적이 보이며, 여전히 부정확하다. 울릉도 위치에는 일본에서 독도를 가리키는 송도(松島)를 표기하였고, 그 북서쪽 아르



고노트 위치에는 두 개의 섬을 표시하고, 섬의 명칭으로 큰 섬에는 울릉도와 함께 죽도(竹島)를, 좌측의 작은 섬에는 우산도(于山島)를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완성된 조선 전도는 더욱 정확해졌다. 1904년에 간행된 이토 마사조의 「한국 전도」는 한반도 형상이 실제와 거의 같을 정도로 양호하다. 이 지도의 축척은 1:300만으로, 1896년에 개편된 조선의 13도 행정구역이 반영되었다. 전국의 산지와 하천, 도와 부, 군, 읍, 촌락, 개항장, 도감찰사, 병영, 외국 영사, 전신국 등의 행정지명, 철도와 도로 등의 교통로가 비교적 상세히 표현되었다. 특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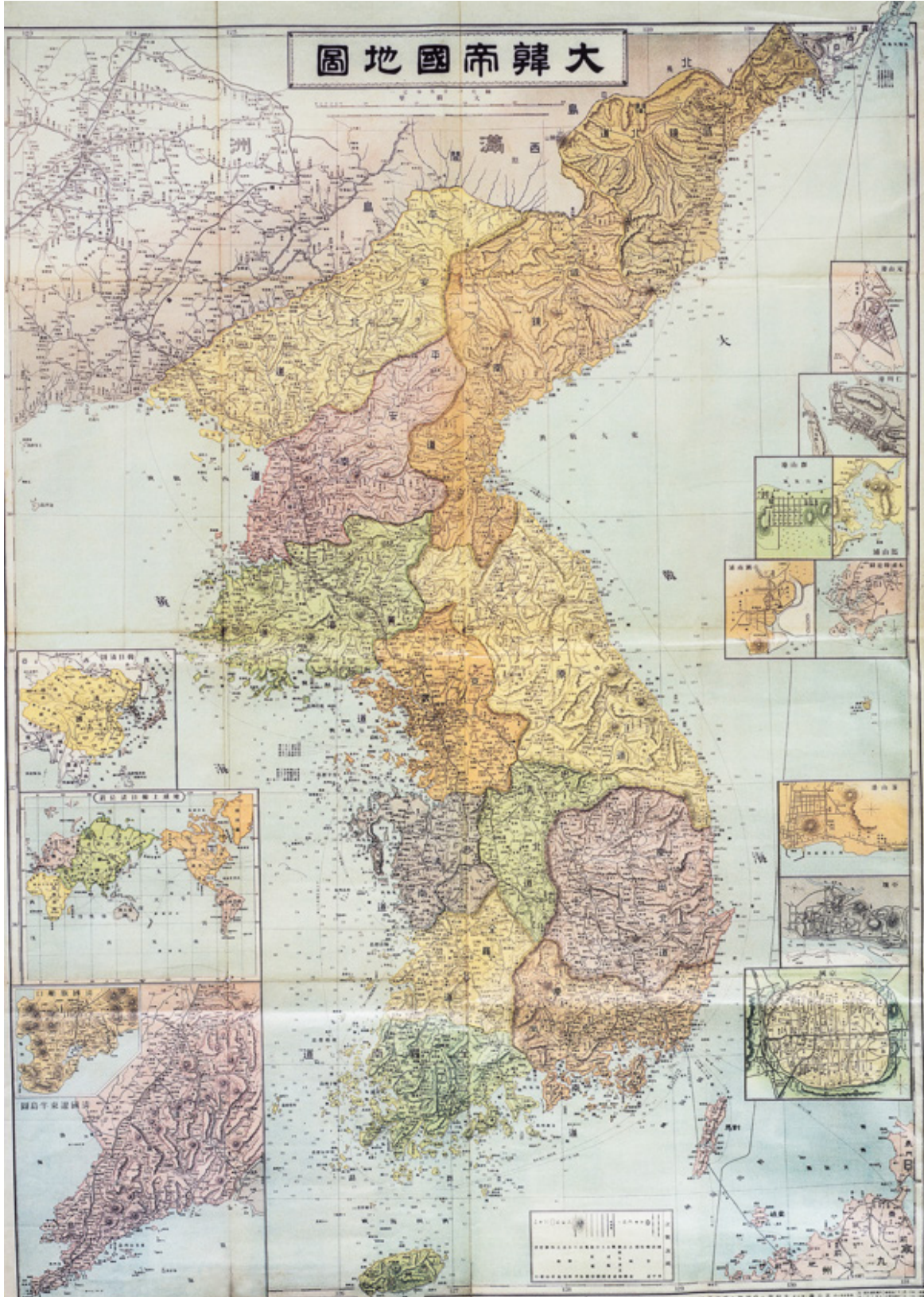


그림 17 「대한제국지도」 (출처: 개인 소장)

항은 중국과의 국경선, 해안선, 13도의 경계선을 초록색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부근과 섬 주변은 모두 청색으로 채색하여 한국의 영해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동해상의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연안의 다른 섬과 마찬가지로 섬 주변이 청색으로 채색되었다.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와 형상은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정확성이 부족하다. 두 섬은 다소 북쪽에 위치하며, 독도는 울릉도의 동북 방향에 그려졌다. 섬의 명칭은 울릉도가 鬱陵島(松島)로, 독도는 죽도(竹島)로 표기되었다.

한편 19세기 말까지 한국에서 간행된 조선 전도는 제작 기법이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있어 정확성이

떨어졌기에 20세기 초반 일본에서 제작된 정확한 조선 전도가 한국에 전해졌다. 민간에서는 현공렴(玄公廉)이 1906년 일본에서 간행된 아오키 쓰네사부로(青木恒三郎)의 「한국대지도(韓國大地圖)」를 바탕으로 1908년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를 모사하여 간행했다. 그는 부친 현채(玄采)의 영향으로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를 졸업하고, 1894년 일본에서 유학했다. 귀국 후에는 사범학교 교관, 애국계몽 운동가, 저·역술가, 서적 출판가 및 경영가로 활동했다.

현공렴은 지리 교과서를 집필하거나 출판하지는 않았지만,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한국의 전도와 지도집을 완성하였다. 이들 전도와 지도집은 비교적 정확한 편이며, 당시 한국인의 지역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완성한 한국 전도는 1908년의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가 있고, 한국 지도집으로는 1908년의 『신정분도대한제국지도(新訂分道大韓帝國地圖)』, 1911년의 『최신조선분도지도(最新朝鮮分道地圖)』가 있다. 이 지도들은 당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리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일반인의 지역 인식에도 널리 활용되었다.

현공렴의 「대한제국지도」(1908년)는 1906년 일본에서 제작된 아오키 쓰네사부로의 「한국대지도」를 저본으로 모사한 것이다. 비록 이 지도는 복제품에 해당하지만, 서구의 지도 제작 기법을 받아들인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한국의 전도라고 할 수 있다. 원본 지도와 모사 지도는 매우 유사하나,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바다 명칭이 원도 「한국대지도」에는 일본해(日本海)로 표기되었지만, 현공렴의 「대한제국지도」에는 원도의 일본해(日本海) 표기가 삭제되고 대한해(大韓海) 표기가 자리 잡았다. 현공렴은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에 의해 ‘일본해’ 표기가 공식화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시각적 호소에 착안하여 지도 제작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도를 간행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통감부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1907년 학부(學部)의 각종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전도」와 1908년 농상공부의 『한국수산지』에 수록된 한국의 각종 수산 관련 지도는 전통적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성이 높아졌다. 또한 통감부는 1906년 「한국통신선로도(韓國通信線路圖)」, 1908년 「한국통신약도(韓國通信略圖)」 등 실측에 근거한 과학적 지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한국에서의 지도 제작은 그림 수준의 고지도에서 벗어나 실측 중심의 근대 지도를 본격적으로 간행하는 획기적 전환을 이루었다.

4. 결론

조선은 쇄국 시대에 자국의 지도를 간략하게 완성했는데, 그것은 한반도의 지리적 정보를 가능한 한 외국에 유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이웃 나라 중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부족하여 상세하게 지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의 지도화에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이었다. 그 계기는 1592년의 임진왜란과 19세기 후반의 정한론, 제국주의에 따른 청일전쟁의 발발 등이었다. 그 결과 메이지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에서 조선의 각종 지리지와 지도를 다수 간행하였다. 일본의 고지도에 등장하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에도 시대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팔도총도」 계통의 지도와 여러 문헌을 바탕으로 조선 전도가 완성되었다. 일본에서 단독으로 간행된 최초의 조선 전도는 1785년 하야시 시헤이가 간행한 「조선팔도지도」이다. 이 지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를 저본으로 하여 완성했으며, 한반도의 형상과 내용은 새롭다.

이 지도는 저자가 별세한 후에도 오랫동안 일본 사회에서 모사되어 일본인의 조선 인식에 기여하였다.

메이지 시대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지도와 문헌, 일본이 서양과의 교류에서 획득한 조선 관련 지도와 문헌, 일본의 한반도 조사 및 실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선 전도가 점차 정확해졌다. 메이지 초기의 조선 전도에는 조선, 일본, 서양 자료를 참고한 흔적이 뚜렷하며, 특히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 형상, 명칭 표기 등은 메이지 후기까지 혼란스러웠다.

20세기 초반 한국의 지도 제작 기법은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일본에서 유학했던 현 공립은 일본에서 간행된 정확한 한국 전도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복제 간행하여 학생들과 일반인의 지리 인식에 기여했다. 그리고 통감부의 국정 관여 및 각종 지도 발행으로 한국에서 과학적인 지도가 보급 및 정착되기 시작했다.

| 참고문헌 |

남영우, 1995, 「林子平의 朝鮮八道之圖 研究」, 『민족문화연구』 제28호, 333~344쪽.

심정보, 2016, 「을사늑약 전후 현재 일가의 지리교재에 표기된 동해 지명 변화 분석」, 『한국지도학회지』 제16권 제2호, 41~57쪽.

_____. 2019, 『불편한 동해와 일본해』, 밥북.

한상복, 1991, 「개항 이전까지 한국에서 출판된朝鮮圖」, 『한국의 전통지리사상』, 민음사, 121~143쪽.

秋岡武次郎, 1971, 『日本古地図集成』, 鹿島研究所出版会.

岡田俊裕, 2011, 『日本地理學人物事典 近世編』, 原書房.

찾아보기

ㄱ

- 가시하라 요시나가(榎原義長) 222
- 가쓰 가이슈(勝海舟) 214
- 가쓰라가와 호슈(桂川甫周) 270, 341
- 가와구치 쓰네키요시(川口常吉) 164, 387, 391
- 간산도(杆山島) 46, 132
- 감여전도(堪輿全圖)내 강원도 112
- 강원도지도(江原道地圖) 124, 158
-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194, 198, 200, 202, 210, 329, 330
- 고바시 스토케(小橋助人) 236, 396
-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28
- 관판실측일본지도(官板実測日本地圖) 252
- 구도 도헤이(工藤東平) 204, 343
- 구리하라 노부아키(栗原信晁) 278
- 구와타로(鍛太郎) 208
- 구키 요시타카(九鬼喜隆) 178, 179, 382
- 국도(國島) 72
- 권근(權近) 20
-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 250, 331
- 김사형(金士衡) 20
- 김수홍(金壽弘) 40
- 김정호(金正浩) 96, 98, 122, 306, 307, 353, 365, 369

ㄴ

-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 194, 196, 198, 200, 210, 216, 329
- 나카무라 요시마쓰(中村芳松) 240
- 나카지마 스이도(中島翠堂) 280, 343
- 녹둔도(鹿屯島) 72

ㄷ

- 다카다 요시토시(高田義甫) 226

- 다카시바 에시산유(高柴英三雄) 198
- 다카하시 가케야스(高橋景保) 272, 274, 286, 341
- 다케(竹) 202, 208
- 다케다 가쓰지로(武田勝次郎) 288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96, 98, 301, 306, 307, 353, 365, 369, 370
- 대동총도(大東總圖) 52, 361, 362
- 대명일통산하도(大明一統山河圖) 70
- 대일본개정전도(大日本改正全圖) 208
- 대일본국군여지로지정전도(大日本國郡輿地路程全圖) 200
- 대일본국군여지전도(大日本國郡輿地全圖) 198
- 대일본국세도 내 대일본총계약도(大日本國細圖, 大日本總界略圖) 206
- 대일본국연해약도(大日本國沿海略圖) 214, 335
- 대일본부현전도(大日本府縣全圖) 216
- 대일본분현지도 내 시마네현전도(大日本分縣地圖, 島根縣全圖) 260, 266
- 대일본연해요강전도(大日本沿海要疆全圖) 204, 343, 344
- 대일본전도(大日本全圖) 210, 256, 387
- 대일본조선팔도지나삼국전도(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288
- 대일본해륙전도(大日本海陸全圖) 331, 333, 335, 336, 224
- 대일본해안전도(大日本海岸全圖) 202
- 대조선국전도(大朝鮮國全圖) 88, 319
- 대조선국지도(大朝鮮國地圖) 내 강원도도(江原道圖) 164
- 대조선전도(大朝鮮全圖) 88, 164
- 대조선지도(大朝鮮地圖) 내 강원도 150
- 대한신지지부지도(大韓新地志附地圖) 94
- 대한여지도(大韓輿地圖) 92, 372, 373, 375
- 대한전도(大韓全圖) 90, 94, 324, 370~372
- 대한해(大韓海) 311, 324, 372, 374, 375, 399
- 도리도표(道里圖表) 86
-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58, 294, 296~298
- 동국도(東國圖) 48
- 동국지도(東國地圖) 32, 40, 42, 44, 46, 52, 56, 58, 60, 64, 66, 68, 80, 82, 84, 86, 88, 90, 92, 100, 102, 124, 126, 128, 130, 132, 134, 142, 154, 156, 158, 160, 162, 164, 352, 353, 355, 357, 360, 361, 365, 366, 369, 372, 377
- 동국팔역산천일통전도(東國八域山川一統全圖) 64
- 동람도(東覽圖) 22, 34, 58, 60, 62, 72, 74, 76, 78, 106, 108, 110, 112, 114, 116, 120, 122,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6, 158, 160, 162, 179, 352, 357, 359, 360, 364, 377
- 동람도(東覽圖) 내 강원도 106
- 동서지구만국전도(東西地球萬國全圖) 278
- 동여고실(東輿攷實) 146, 148
- 동여도(東輿圖) 88, 301, 306, 307, 369
- 동여비고(東輿備考) 내 울진·평해 지도 148
- 동여전도(東輿全圖) 88, 164
- 동관수진일용방(銅版袖珍日用方) 내 강원도 122
- 동해 신묘(東海神廟) 72
- 동해묘(東海廟) 50, 325
- 동해비(東海碑) 124
- ㄹ**
- 류코쿠대학(龍谷大學) 20
- 리소 사다마사(菴窓貞雅) 210
- 리양쿠르암 246, 326, 335
- ㄴ**
- 마쓰(マツ) 202, 208
- 마쓰다 로쿠잔(松田綠山) 282
- 마쓰모토 돈(松本屯) 188
-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28
- 만국신도(萬國新圖) 284, 344, 345
- 만국전도(萬國全圖) 28
- 모리 킨세키(森琴石) 224
- 무릉도(武陵島) 46, 146, 148

무릉섬 46

미쓰쿠리 쇼고(箕作省吾) 276, 278, 286, 343

미야모토 오키아키(宮本興晃) 186, 387, 389

미야자키 류조(宮崎柳城) 284, 344

ㄴ

방산도(方山島) 76

방제적요 일청한삼국대지도(邦制摘要 日清韓三國大地圖) 230

버 나두(J.B. Bernadou) 82

봉수대(烽燧臺) 38

북대양(北大洋) 206

북사문략(北槎聞略) 270, 341

분방상밀대일본지도 내 대일본전국(分邦詳密大日本地圖, 大日本全國)
228

ㄷ

사이키 히로나오(齊木寬直) 246, 396

사해지방승개지도(四海地方勝槩之圖) 72, 108

사해지방승개지도(四海地方勝槩之圖) 내 강원도 108

사해총도(四海總圖) 26

삼국통람도설 내 삼국통람여지로정전도(三國通覽圖說, 三國通覽輿地
路程全圖) 192

상밀대일본신지도(詳密大日本新地圖) 242

선교사 28, 68, 391

선역도(鮮域圖) 100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 20

세이켄 겐오(整軒玄魚) 202

세이타이엔(靑苔園) 182

세키구치 비마시(關口備正) 218

소 모칸(宗孟寬) 242

소동해(小東海) 28, 314

송도(松島) 188, 194, 196, 198, 200, 204, 206, 210, 214, 216, 218,
220, 222, 224, 226, 228, 230, 232, 234, 236, 238, 240, 242, 246,
280, 288, 306, 394, 396

스즈키 기엔(鈴木驥園) 200

스즈키 마사오(鈴木政雄) 244

시마네현 194, 246, 250, 260, 262, 264, 266, 329

시마네현 가축 시장 안내 지도(島根縣家畜市場案内地圖) 264

시미즈 미쓰노리(清水光憲) 232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 274, 276, 278, 280, 286, 341, 342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276, 278, 34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34, 62, 72, 76, 78, 100, 106,
116, 120, 136, 138, 142, 160, 178, 179, 294, 295, 321, 352, 357,
358, 360, 377, 382, 384, 385

ㅇ

아국총도(俄國總圖) 80, 314, 315, 366, 367

아르고노트 218, 226, 232, 236, 240, 242, 288, 326, 331, 336, 391,
392, 394, 396

안도 리키노스케(安藤力之助) 260, 266

양성지(梁誠之) 32, 36, 40, 42, 44, 52, 326, 352, 353, 355, 357, 361,
365, 397

양자기(楊子器) 22

여도(輿圖) 44

여지고람도보(輿地攷覽圖譜) 내 강원도 118

여지도 내 영동(嶺東) 160

여지도(輿地圖) 22, 28, 80, 132, 134, 138, 140, 160, 162, 301~303,
312, 314, 315, 318, 366

여지도(輿地圖) 내 강원도 132, 134, 138, 140, 162

여지전도(輿地全圖) 26

오기팔도조선국세견전도(五畿八道朝鮮國細見全圖) 184, 328, 387,
391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大阪毎日新聞社) 262

- 오아키라 가타오카(尾陽片岡) 180
 오카다 쓰네사부로(岡田常三郎) 234
 왕반(王泮) 22
 웨선창(倭船倉) 52, 304, 309, 310
 우도(于島) 64, 66, 80
 우산(于山) 168, 170, 172
 우산도 22, 24, 32, 34,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2, 84, 86, 88, 90, 92, 96, 98, 100, 102,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156, 158, 160, 162, 164, 168, 170, 172, 178, 179, 180, 184, 186, 188, 218, 272, 294, 296~301, 303~307, 309, 310, 321, 326, 327, 346, 358, 372, 384, 385, 389, 391, 397
 우치다 신사이(內田晉齊) 216
 울도(蔚島) 186, 389
 울도(鬱島) 94
 울릉도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100, 102,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134, 136, 138, 140, 142, 144, 146, 148, 150, 152, 154, 156, 158, 160, 162, 164, 168, 170, 172, 178, 179, 180, 182, 184, 186, 188, 192, 194, 196, 198, 200, 202, 204, 206, 208, 210, 214, 216, 218, 220, 222, 224, 226, 228, 230, 232, 234, 236, 238, 240, 242, 244, 246, 250, 252, 254, 256, 272, 288, 294, 296~310, 326, 329, 331, 335, 336, 358, 366, 372, 377, 384, 387, 389, 391, 392, 394, 396, 397, 398, 400
 울릉도 송도(鬱陵島 松島) 246
 위백규(魏伯珪) 62
 위영복(魏榮馥) 62
 유조변장(柳條邊牆) 56, 92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 214, 252, 256
 이노도(伊能圖) 214
 이도(夷島) 62
 이무(李茂) 20
 이시다 교쿠진(石田旭山) 184, 387
 이회(李薈) 20, 354, 355, 356
 일로전쟁실기 내 한국전도(日露戰爭實記, 韓國全圖) 246
 일본 육군참모국(陸軍參謀局) 226, 256
 일본 해군수로부(海軍水路部) 254
 일본교통분현지도-시마네현(日本交通分縣地圖-島根縣) 262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 272, 342
- 즈**
- 죽산 82
 자산도(子山島) 110, 182, 385
 장중일본전도(掌中日本全圖) 222, 333
 장지연(張志淵) 94, 372
 전세보(傳世寶) 102
 접역전도(鰐域全圖) 66, 318
 정경흠(鄭慶欽) 146, 148
 정상기(鄭尙驥) 124, 126, 128, 130, 132, 134, 142, 154, 156, 158, 160, 162, 164, 294, 297, 298, 352, 357, 365, 366, 369, 372, 377
 정척(鄭陟) 32, 36, 40, 42, 44, 52, 326, 352, 353, 355, 357, 360, 361, 377
 제용감(濟用監) 36, 355, 356
 조선경도일본대판서국해변항로지도(朝鮮京都日本大坂西國海邊航路之圖) 180, 327
 조선국(朝鮮國) 78, 206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188, 192, 224, 234, 331, 333
 조선국지리도(朝鮮國地理圖) 내 강원도 179
 조선국지리도(朝鮮國地理圖) 내 팔도총도 178
 조선국팔도통합도(朝鮮國八道統合圖) 50, 363, 364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254, 335
 조선명세전도(朝鮮明細全圖) 240, 244, 396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36, 42, 352, 355, 356, 377, 390

해동지도(海東地圖) 52, 74, 301~304, 313, 361, 362
해동총도(海東總圖) 76, 136
해동총도(海東總圖) 내 강원도 136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 38
해좌전도(海左全圖) 84, 88, 298~300, 366, 368
허목(許穆) 124
현성운(玄聖運) 94
호고당(好古堂) 122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 2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20, 352, 354, 355, 357,
382
환영지(寰瀛誌) 62
황여고실(皇輿攷實) 146
황조여지전도(皇朝輿地全圖) 270, 341
후사오 겐(總生寬) 220
후지와라 소(藤原惣) 230
후지와라 아사료(藤原朝呂) 206, 344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

초판 1쇄 발행 2023년 12월 27일

지은이 김종근·오상학·심정보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제작·인쇄 청아출판사

ISBN 979-11-7161-035-8 93910

* 이 책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